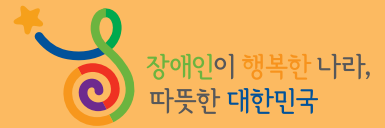


“포용으로 꽃피는 따뜻한 동행”



2019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Contents

2019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발간사	1
2019년 장애 관련 이슈와 언론 보도의 흐름	3
배 현 정 한경 MONEY 기자	
2019년 ‘이달의 좋은 기사’ & ‘올해의 좋은 방송’	11
사무국	
2019년 장애 차별 용어 모니터링 분석	27
서 문 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기획모니터 1	
1. 언론으로 본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47
송 경 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2. 제39회 장애인주간 언론 모니터링	71
김 철 환 장애인벽허물기 활동가	
기획모니터 2	
1.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니터링	91
김 태 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2. 고령장애인 관련 보도내용 분석	113
신 재 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대리	
3. ‘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매뉴얼’ 기획모니터	123
서 문 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4. 초등학생 백일장 시 속에 나타난 20년 장애인 인식의 변화	135
방 귀 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부록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소개	161
2.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165
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72

발 간 사

우리 운동본부는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사용과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한 보도를 발굴하기 위해 1996년부터 지속적으로 대중매체를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언론에서 장애인에 대해 관심을 갖고 관련 기사와 방송이 증가하였고, 꾸준한 모니터 활동과 장애관련 용어 수정을 통해 장애인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최근 화두가 된 4차 산업혁명의 기술 등장은 장애인 정보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복지권 확대를 위한 방안이 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운동본부는 언론에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보도 내용과 형태를 분석한 ‘2019 모니터 보고서 -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을 발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표준사업장’에 대한 포털사이트의 반응을 분석하고, 각 정부부처의 장애인 관련 매뉴얼을 모니터하여 장애관련 정보가 질적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번 보고서가 정보통신 기술 발전으로 인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언론 및 대중의 관심을 제고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장애에 대한 언론의 긍정적 인식변화를 이끌어 모두가 살기 좋은 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2월

이수성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이사장

2019년 장애 관련 이슈와 언론 보도의 흐름

배현정

한경 MONEY 기자

I. 들어가며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됐고,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고속버스가 시범 운행에 들어갔다.

오랜 투쟁의 성과를 맺었지만, 또 다른 출발점이기도 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첫 날, 장애계는 환호 대신 다시 거리로 나갔다. 1~6등급의 장애등급제는 폐지됐지만,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는 요원하다. 휠체어 탑승 장비를 장착한 고속버스 등 이동권의 확대도 예산 확보 등의 쉽지 않은 과제를 안고 있다.

시대적 과제인 ‘고령화’도 무거운 짐을 드리우고 있다.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돼 지원이 축소된다. 장애계는 생존권의 위협마저 얘기하지만, 해결방안으로는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

장애인의 삶과 직결된 중대 현안들에 대해서 언론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II. 장애 관련 이슈의 보도

2019년 장애, 장애인 뉴스는 얼마나 생산되고, 노출되었을까?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검색창을 통해 ‘장애인’(제목+본문)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국내 10대 종합 일간지의 본문과 포토, 인터넷 등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노출된 전체 기사는 10,939건에 달했다. 2018년에 보도된 전체 기사 중 ‘장애인’이 노출된 기사는 10,993건인 것과 비교한다면, 수치상으로는 약 0.5%가 감소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지면 기사로만 한정해본다면 2018년 4,875건에서 2019년 4,279건으로 지면 기사도 약 12%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7년 지면 기사 4,249건, 전체 기사 9,139건에 비해 소폭 늘어난 수준이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패럴림픽으로 기사의 양이 일부 증가했고, 2019년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새로운 이슈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으로도 풀이된다.

장애계의 주요 현안인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비하 발언’, ‘장애인 모·부성권’을 중심으로 주요 일간지 보도의 흐름을 살펴봤다.

□ III. 이슈별 보도 흐름

1. 장애등급제 폐지

2019년 7월 1일, 장애등급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31년 만이다. 1988년 장애인복지법이 만들어지면서 도입된 장애등급제는 장애당사자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보다 장애등급에 따라 행정 편의적으로 관리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가 곧 맞춤형 복지의 시작은 아니었다. ‘진짜 장애등급제 폐지’ 운동이 다시 시작된 이유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는 지면 61건, 인터넷 포함 151건으로 검색된다. 지난해 관련 보도의 지면 40건(인터넷 포함 68건) 대비 늘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

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보도 건수도, 깊이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주목되는 점은 정부 정책 발표를 전한 보도와 장애당사자의 실제 목소리를 담은 기사들의 온도 차이다. 정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장밋빛 시각’을 전달한 기사와 ‘폐지 후 복지 축소’의 이면을 담은 기사들이 대조를 이뤘다.

- 장애등급제 31년 만에 폐지… 건보료 경감 등 지원 대상 늘려 (세계일보 A6면 1단 2019.06.25.)
- 장애등급제 31년만에 내달 폐지… 복지혜택 늘려 (동아일보 A12면1단 2019.06.26.)
- 새달부터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들 “서비스 줄 것” 정부 “최중증 지원...” (서울신문 2면 1단 2019.06.26.)
- 장애인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월 20.7시간 증가 (서울신문 14면 1단 2019.08.22.)
- 전신마비인데 시청각 멀쩡하다고 활동 지원 92시간 깎여 (경향신문 A12면 TOP 2019.07.07.)
- 장애등급제 폐지 첫날… “진짜 폐지하라” 휠체어 행진 (경향신문 A12면 1단 2019.07.01.)

장애등급제 폐지로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1~6급)이 중증(1~3급)과 경증(4~6급)으로 변경됐다. 필요한 서비스는 종합조사를 통해 지원된다. 문제는 예산이다. 장애계는 충분한 예산증액 없이는 활동지원서비스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고, 실제 활동지원서비스가 전보다 축소됐다는 호소가 잇따른다. 전반적으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혼란과 대안을 찾는 심도 있는 보도가 뒤따르지 못한 점은 아쉽다.

2.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2019년 특히 뜨거운 논쟁을 부른 것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다.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아,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활동지원은 중단되고, 장기요양을 받게 된다. 문제는 노인 장기요양은 가장 높은 1등급을 받아도 하루 최대 4시간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다는 것. 에이블뉴스에 의하면,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만 65세 도달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된 인원



은 연간 400여 명 정도로, 2018년의 경우 1,025명 중 363명이 노인장기요양으로 전환됐다.

장애계는 이러한 ‘만 65세 활동지원 중단’을 ‘고려장’에 비유한다. 이에 항의하는 단식 투쟁 등을 계기로 언론에 문제를 알렸다.

- 만 65세 장애인은 그냥 노인? ‘활동지원 제외’에 항의 단식 (경향신문 A10면1단 2019.08.26.)
- “65세 장애인에 활동지원 중단은 사형선고” (한국일보 13면 TOP 2019.12.12.)
- 65세 되면 국가 돌봄서비스 확 줄어드는 ‘루게릭병 환자들’ (문화일보 12면1단 2019.06.19.)
- 세상으로의 문이 닫힌다...중증 장애인 65세의 ‘절망’ (서울신문 2019.10.14.)

국가인권위원회는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0월 서울특별시시장과 부산광역시시장에게 “만 65세가 된 장애인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으로 생명 또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며 긴급구제를 권고했다. 그러나 주요 일간지 중 인권위의 권고를 알린 보도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장애인활동지원 문제는 11월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 이렇다 할 개선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 주요 언론도 후속 보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 인권위, 만 65세 넘자 지원서비스 중단된 장애인들에 긴급구제 권고 (경향신문 2019.10.14.)
- “만 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은 인권침해” (한국일보 2019.10.14.)

3. 장애인 이동권

휠체어를 탄 채로 이용할 수 있는 고속버스가 2019년 10월 28일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10개 버스업체에서 각 1대씩 4개 노선에서 운행한다.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서울↔당진 노선이다. 관련 보도는 10월 28일 시범 운행 첫날, 현장 스케치에 집중됐다.

- 휠체어 장애인 “고속버스 타니 눈물나게 반갑네” (경향신문 A15면1단 2019.10.28.)
- 고속버스 휠체어 탑승 첫날 “몇십년만에 강릉여행 눈물 나” (서울신문 2019.10.28.)

- 이젠 휠체어 탄 채로 고속버스 탑니다 (조선일보 A12면1단 2019.10.29.)
- 휠체어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 척척 탑승 (국민일보 17면1단 2019.10.28.)

혹자는 이날 고속버스에 오른 장애인을 ‘아폴로11호’를 탄 우주인에 비유해 감격을 표현하기도 했다. 그도 그럴 것이 2005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제정된 지 14년 만의 결실이다. 장애계는 2014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 휴가철을 전후해 전국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전개한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시외·고속버스 타기 투쟁을 벌여왔다. 먼저 과거의 기사를 보자.

- “버스 타고 고향에 가고 싶다” (한겨레 2014.09.02.)
- 휠체어 장애인은 빼놓고 달리는 ‘고속버스’ (한겨레 A9면2단 2017.01.26.)
- “버스표가 있지만 탈 수가 없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무릎꿇은 장애인들 (경향신문 2017.09.29.)

고속버스 탑승에 ‘감격’의 표현이 잇따를 만큼, 장애인에게 시외이동권 보장의 길은 험난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3개월간의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되기까지 예산 증대와 구체적인 운영 확대 로드맵이 필요하다.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한 시점이다.

희망적인 것은 휠체어 고속버스 시행을 전후해, 언론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에 다방면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시각장애인 버스 귀성 문제를 짚은 보도, 장애인을 위한 비행기 좌석을 다룬 보도 등이 눈에 띈다.

- 수익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 후퇴시킨 아시아나항공 (한겨레 10면 TOP 2019.11.01.)
- 사라진 점자블록, 겨우 따라가니 벽… 시각장애인 버스귀성 ‘아득’ (동아일보 A10면 TOP 2019.09.12.)
- 충남 장애인콜택시 보급률 92.4%…저상버스는 목표 대수 대비 22% (국민일보 2019.12.06.)
- 찾기 어렵고 사용도 까다로워… 충전 안 되는 ‘장애인 휠체어 이동권’ (한국일보 14면1단 2019.11.04.)



4. 장애인 비하 발언

정치인의 장애 비하 발언은 언론의 ‘단골’ 소재다. 한 해 동안 장애인 비하 발언은 끊임없이 터져 나왔고, 이슈가 됐다. “국회에는 정신장애인이 많다”,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북한 미사일 도발에는 병어리가 됐다”, “신체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 등의 표현이 쏟아졌다. 장애계가 주목하는 어떤 이슈들보다도 언론의 노출 빈도가 높았다.

- “장애인에게 죄송”… 십자포화에 또 고개 숙인 이해찬 (동아일보 A14면1단 2019.01.01.)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비하 여야 정치인 맹비난 (국민일보 2019.01.10.)
- 바로 진화했지만…민주당에서 또 나온 ‘장애인’ 발언 (중앙일보 2019.02.13.)
- “지만원 정신이상자”...민주당 의원 ‘장애인’ 발언 논란 (조선일보 2019.02.13.)
- 정치인들 잇따른 비하 발언에 멧든 장애인들 “황교안 사과하라” (서울신문 2019.08.09.)
- “장애인 비하는 차별… 표현 신중히” 문희상, 의원 모두에게 당부 서한 (서울신문 2019.08.20.)
- “정신병자” “병어리” “파킨슨병”… 반복되는 정치권 ‘장애 비하’ (국민일보 2019.09.19.)
- 병×·병어리장갑·결정장애...이 말은 누구를 아프게 할까요 (한겨레 23면1단 2019.10.14.)
- ‘장애인 비하 표현’ 난무하는 정치권...인권위 “예방대책 마련” 촉구 (중앙일보 2019.12.30.)

정치인의 비하 용어 사용은 대부분 장애인을 비난하거나 낮추려는 의도보다는 잘못된 용어 습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인은 늘 이슈의 중심에 있고,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크기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용어’는 의식과 연결된다.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인식 개선은 언론의 소명이기도 하다. 정치인의 비하 용어 사용을 사건 위주로 보도하는 것에서 나아가, 언어습관을 바로잡고 대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장애인 모·부성권

결혼, 임신,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높은 벽이 장애인의 출산과 양육에 대한 편견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모·부성권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 사회 비장애인 10명 중 7명은 ‘장애인 부부는 아이를 갖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제 장애인의 약 70%는 결혼을 해 자녀가 있고, 자녀가 있는 장애인의 87%는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조사됐다.

에이블뉴스는 2019년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중 두 번째로 ‘장애인 모·부성권’을 꼽았다. 장애인이 임신하면 축하 대신 “왜 아이를 가졌어?”라는 말을 듣는 현실을 다루었다. 많은 장애인이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큰 관심을 얻었다.

그런데 주요 일간지의 반응은 전혀 달랐다. 지난 5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 발표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룬 10대 일간지 보도는 단 2건이 검색됐다. 언론도 장애인의 모·부성권에 눈을 감은 듯했다.

- 장애인 모·부성 생각 한 번 안 해 보고...10명 중 7명 “장애인이 애는 무슨...” (서울신문 10면 1단 2019.05.20.)
- 장애인의 부모될 권리를 누가 왜 가로막나? (국민일보 41면 TOP 2019.06.09.)

6. 탈시설

탈시설 이슈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활발하고 심도 있게 언론에서 자주 다뤄졌다. 시설을 벗어나 독립생활에 성공한 이들의 사례가 속속 소개되고, 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고민되고 있다.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이 나이가 들어 결국 다시 병원(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회전문 현상’이나 한국형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제언 등도 다양하게 쏟아졌다.

다만 이러한 기사의 댓글 가운데는 “모든 장애인에게 탈시설이 최선은 아니다”는 지적이 상당수 달렸다. 이 가운데는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외침이 많았다. ‘시설=감옥’ ‘탈시설=자유, 독립’처럼 이분화된 관점은 숙고해볼 문제다. 시설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이며, 시설 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 장애인·정신질환자 등 보호시설 퇴원자, 체험주택서 자립 배운다 (한국일보 12면 TOP 2019.01.10.)
- 시설 벗어나 독립생활...장애인 32명, 서울시 ‘지원주택’ 첫 입주 (한겨레 2019.12.01.)
- 인권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 마련하라” 정부에 권고 (한겨레 2019.09.23.)



- 한국형 커뮤니티케어 “탈시설 가장 먼저한 뇌성마비인부터 현장과의 불일치 ... (국민일보 2019.12.16.)
- [NGO 발언대]커뮤니티 케어, 장애인 ‘탈시설’ 보장할 수 있나 (경향신문 A28면1단 2019.09.22.)
- 우리 같이 살래요” 시설에선 꿈도 못 꿔던 사랑 (한겨레 A10면 TOP 2019.02.09.)
- 시설 장애인 300명 홀로서기 프로젝트 (동아일보 A24면 TOP 2019.04.01.)
- “야학 가고, 돈 관리도 직접... 도자기공예 꿈 생겼어요” (서울신문 3면1단 2019.04.19.)
- ‘폭행·강제노역 의혹’ 장수벤엘장애인의집... “강제 전원조치 중단” 촉구 (세계일보 2019.08.26.)

IV. 나오며

이상으로 장애계 이슈를 언론이 얼마나, 어떻게 보도했는지를 살펴봤다.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이동권’ 등에 대해 상당수 언론사들이 문제점을 인식하고 장애당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 노력한 자세를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장애등급제 폐지와 같은 중차대한 사안이 제한적으로 보도되고, 폐지 후 혼란과 갈등 상황에 대한 해법 제시가 미흡해 아쉬움을 남겼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등이 사회 갈등 요인이 되지 않도록 대안 찾기도 절실히 보인다.

2020년은 21대 총선이 있는 해이다.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복지 확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언론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이다.

2019년 ‘이달의 좋은 기사’ & ‘올해의 좋은 방송’

I. 선정 기준

우리 운동본부는 장애인 관련 기사의 질적 향상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10개 종합일간지 및 8개 경제지를 대상으로 장애인이나 장애 관련 문제를 다룬 신문 보도를 취합, 분석한 후 우리 운동본부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무국 예심과 심사위원회의 본심을 거쳐 매월 1건씩 ‘이달의 좋은 기사’를 선정하고 있다.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기준표〉

선정기준	내용
장애인 이해도	• 장애인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가? • 장애인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였는가?
사회적 영향력	• 보도를 통해 문제 해결, 정책·제도 개선, 해당 의제의 사회적 확산 등 실질적으로 장애인권 구현을 위해 사회에 공헌했는가?
장애인권 지수	• 장애인을 타자화하지 않았는가? •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동등한 시선에서 접근하였는가?
비장애인 공감도	• 비장애인에게 장애인의 현실을 알려서 공감하도록 하였는가? • 장애인복지 전문용어나 장애인계에서 통용되는 말을 풀어서 사용하였는가?
보도의 정확성	• 장애(인) 관련 정확한 정보를 전달했는가?
기사의 가치	• 직접취재, 취재원 존재유무, 취재목표 반영, 반론, 부연설명, 실용적 정보 유무, 전문용어 사용 등 기사로서 가치가 있는가? *기획 기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장애인 인권보도준칙〉

구분	내용
장애인 인격권 보호	①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②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했는가? ③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했는가? ④ 장애를 질병으로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⑤ 장애인을 동정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인 존재로 묘사했는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노력	①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는가? (예: 장애는 어둡고 부정적인 것, 장애를 고치라 등) ② 미담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했는가? ③ 장애인의 초상권, 프라이버시, 인격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④ 장애인 촬영 시 장애부위를 부각하거나 인격권이 지켜지고 있는가? (인권보도준칙) ⑤ 여성장애인에 대한 성차별 성폭력 보도 시 신중을 기했는가? (인권보도준칙) ⑥ 장애인을 위한 제도개선과 사회인식 개선에 노력했는가? (인권보도준칙) - 장애인 행복추구권 보장하기 - 장애인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하기 - 장애인을 활동적인 사회참여자로 묘사하기 - 장애를 감성이 아닌 사회제도 차원에서 접근하기 - 특정한 날에만 장애인 이슈 다루지 않기

장애인 인권보도준칙 : 국가인권위원회(2013). “주요 언론의 인권보도준칙 준수 실태조사”, p.34

II. 선정 기사

1월 동아일보(김예윤 기자 / 1월 7일)

“청각장애인 일자리 장벽, 청각장애인 손으로 허문다”

東亞日報

2019-01-07 (월) A18면 사회

“청각장애인 일자리 장벽, 청각장애인 손으로 허문다”

원목 소품업체 김태수 대표, 장애인 자립 돕는 공방 만들어

6일 오후 3시 서울 구로구 오류동의 원목 공방. 이팝 총기를 앞둔 원목 디자이너 반향대의 가락을 놓고 김태수 씨(47)와 대학생 4명이 머리를 맞댔다. 다만 여는 화사의 회의와는 분위기가 다르다. “재를 포장하는 데 ‘흑흑’이 몇 미터나 들어 갈까요?”

“다섯 번 정도는 잡아야 할 것 같은데...” 김 씨가 어땠다고 내놓은 말투와 진지한 손짓을 하면 앞에 있던 수어(手語)통역사 정혜경 씨(56)의 손이 바빠진다. 정 씨가 김 씨의 뜻을 전하자 재를 팔가를 계산하던 강신원 씨(24)가 “아이고...” 하며 조그맣게 탄소를 쉬었다. 청각 장애인인 김 씨는 원목으로 디자인소품을 제작 및 판매하는 ‘메인오브제(main object)’ 대표다. 김 씨가 재를 만들던 성균관대 학생들이 판매한다. 마케팅과 홍보도 학생들 몫.

김 씨는 초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이 끝날 무렵 뇌수막염을 앓고는 혼수상태에서 사흘 만에 깨어났다. 몸은 온전했지만 청력을 잃었다. 동네 골목대장이던 그의 세상은 하루아침에 바뀌었다. 친구 관계 유지도, 공부도 벅했다. 하지만 초등학교는 물론 중고교까지 일반학교를 졸업했다.

“어린 자에게 특별한 의지가 있지는 않았어요. 부모님께서 ‘좀 고생하더라도 일반학교를 다니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다녔을 뿐이요.”

사춘기 시절에는 마음고생도 했지만 일반학교를 다닌 뒤에 사람과 어울리고 재로 배우는 데 두려움은 없었다. 그러나 세상은 그를 ‘두려워했다. 5개 대학에서 입시 면접을 봤지만 ‘청

각장애’가 있으면 수업을 듣기 어렵다”는 말을 들었다. 결국 러시아 대학에서 청각을 전공하고 귀국해서는 대학원에서 국제수화통역을 전공했다. 이후 나사렛대 등에 출강했지만 자신의 길이 무엇인지 확신하지 못했다.

8세대 청각 잃고 목공 배워 목수로 성대 학생들과 ‘메인오브제’ 창업 이달 모니터 받침대 출시 앞뒤

서울시 뉴딜형 일자리 사업 지원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 1대1 매칭 정보환경 개선하고 인테리어 재공 수어로 소통 쉽게 목공교실 꾸며

그러던 김 씨는 2007년 목공을 배우기 시작했다. 당시 DIY(Do it yourself·소비자가 원하는 물건을 직접 만들기) 유행이 일었다. 자신이 원하는 디자인의 제품을 스스로 만든다는 점이 매력적이었다. 한국장애인재단의 지원으로 공방에서 일주일에 두 번, 일 달 동안 목공을 배웠다. 서울농아인협회 구로지사에서 활동하며 취미 상이 목공을 제작을 꾸준히 했다. 그런 그에게 2015년 초 성균관대 동아리 ‘인액트(InActual)’ 학생들이 접촉해 왔다. 인액



6일 서울 구로구 원목 소품 브랜드 ‘메인오브제’ 공방에서 대표 김태수 씨(오른쪽에서 세 번째)와 수어통역사 정혜경 씨(왼쪽에서 두 번째) 그리고 성균관대 학생들이 재를 들어 보이며 활하게 웃고 있다. 박영대 기자 yee@donga.com

터스는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리더를 양성하는 취지의 동아리다. 다른 장애인에 비해 수어만 할 수 있으면 사회 생활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청각장애인의 자아실현과 경제문제를 사업체를 만들어 해결해 보자는 게 학생들 구상이었다.

“고용되지 못하는 것이 속상했는데 사업주가 돼 스스로를 직접 고용할 수 있구나, 멋있습니다.”

김 씨와 학생들, 수어통역 재능기부자 정 씨가 의기투합한 반 년 남짓은 회의 끝에 그해 9월 원목 인테리어 및 사무용 소품을 제작하는 메인오브제를 만들었다. 매출이아아 미미하지만 그

래도 포기하는 않다.

마케팅 담당 이소연 씨(23)는 “지난해 12월 공리 끝에 판매나무 수면등에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새겨주는 이벤트를 했는데 매출이 140만 원가량 됐다”며 “적어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선 큰돈”이라 웃었다.

메인오브제는 수어 사업을 넘어 다른 청각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뛰고 있다. 김 대표가 농(農)학교에서 하는 목공 수업에 반응이 좋은 데 착안해 청각장애인들이 목공을 배울 공간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하반기 서울시 뉴딜형 일자

리 사업인 ‘우리 동네 전달 예술가’ 사업에 지원했다. 디자인 전공 청년예술가와 소상공인을 일대일로 만나게 해 정보 환경 개선을 꾀하는 사업이다. 김 대표와 학생들은 공방을 청각장애인 목공 교육에 적합하게 꾸미고 있다.

김 씨는 “문재인 대통령 구두를 제작했다는 청각장애인을 직원으로 둔 업체가 도산할 뻔했다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10억 원 가까운 자금으로 살아났다고 한다. 사회적 이슈가 되지 않고도 장애인들이 어디서든 교육과 사업에 관한 지원을 받아 자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예윤 기자 yee@donga.com



2월 한겨레(특별취재팀 24시팀-정환봉, 권지담, 김민제, 박윤경, 이준희 기자 / 2월 2일)

“29년 동안 정물화 같은 삶...시설 장애인 123명 10년 추적기” 외 2건

한겨레

2019년 2월 8일 토요일 010면 가림/독집 35.5 x 34.6cm

“우리 같이 살래요” 시설에선 꿈도 못 꿔던 사랑



● 자유를 얻은 장애인들

재단 이사장 비서관에서 촉발된 ‘책임투자형’ 이후 석영재단은 프라모델로 이름을 바꿨다. 재단 이사회에 장애인 단체들이 참여했다. 석영재단으로 양명된 ‘정물화’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장애인과 자립을 지향하는 사명으로 변했다. 현재 석영재단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23명 중 29명이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 삶을 꾸리고 있다. 지원 이후, 이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한겨레)가 이들 29명 중 21명을 만났다. 또 시설장애인 123명과 자립장애인 15명 등 모두 41명을 설문조사해 그들의 삶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9년 겨울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집 ‘평생재’. 휠체어 두개가 나란히 승강기 앞에 섰다. 중증 뇌병변 장애인 이명경(49)이 집은 2층이다. 같은 장애를 가진 3층 남자 김동림(56)은 마음이 급했다. 자립 이후 같은 학교에 다니며 활동비를 이명경을 통해 받아 봤다. 김동림이다. 한지 모를 그런 날이 있다. 어떤 승강기가 내려오기 전에 홈 버튼을 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같이 살자” 김동림이 대문 밖을 나섰다. 이명경은 집밖으로 나왔다.

“평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했다. 담을 두들기고서 승강기 안에서 기다렸다. 기다림을 버릴 재간이 없었다. 김동림은 다른 말을 생각해낸 여주조자 없었다. “우리 같이 살자” 같은 말로 한번 더 불렀다. 그래서 이명경은 입을 벌렸다. “그래요. 한번 우리 같이 가요.” 같은 중증 장애를 가진 위중 남자와 아내를 여자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됐다. 연애 1년이 조금 넘은 2012년 9월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지금은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산다.

“이제부터 생활을 때는 ‘자유’라는 말이 제일 좋았죠. 지금은 결혼한 게 가장 좋아요.” 22년 동안 시설 생활을 해온 2009년 자립을 시작한 김동림은 입을 막고 이명경을 사랑하러 온 눈으로 바라봤다. 김동림은 “최근에는 신도 받았고”며 신세를 지냈다. 2018년 10월 12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연) 전국장애인부모연대회의에서 받은 모범가족상이었다. 부부는 “그날 호텔에서 처음으로 신세를 받았습니다”며 밝게 웃었다.

36㎡ 남짓한 도봉구의 작은 아파트 곳곳에는 두 사람의 사진이 담긴 여섯 여자가



(한겨레)가 만난 자립장애인들이 자유롭게 일상을 누리며 행복을 찾는 사진들을 모았다.

한겨레 제공

사랑

2층·3층 사는 이명경과 동림씨
“자립이후 1년 만에 귀 결혼
“자유보다 좋은 말이 생겼어요”

곳곳에 놓여 있다. 김동림은 “잘 나쁜 사람이 더 많다”며 장물을 열어 아내의 흑백 사진이 담긴 액자를 보물처럼 꺼내왔다. 한한 미소와 아내 사진을 들고 김동림은 아이처럼 웃었다.

시설에 있을 때는 결혼은 물론 연애도 꿈꾸지 못했다. 홀로 외로운 것보다 여러 사람과 부대끼며 살면서 외롭다는 사실이 김동림을 더 힘들게 했다. 지금은 다들 “외롭지 않다”고 좋아하는데 혼자면 피곤하다고 속삭이고 속삭이려 한다. “외롭지 않다”고 좋아하는데 혼자면 피곤하다고 속삭이고 속삭이려 한다.

■ **다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 시설 생활은 새로운 세상도 기다리고 있다.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 장애를 함께 가진 정우정(33)은 8살 때 석영재단(현 석영재단)에 입소해 서른을 코앞에 둔 2013년 자립했다. 그는 휴대전화와 카메라 대용 여행 사진을 하나씩 보여줬다. 정우정 위로 넓고 푸른 속초 바다가 펼쳐

여행

32년만에 처음 바다 본 우정씨
자립하니 새로운 세상 기다려
식비 아낀 돈 모아 일본·중국도

게 있었다. “바다에 간 것이 가장 좋았어요.” 지난해 11월 1박2일 자립장애인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정우정은 32년 인생 처음으로 바다를 봤다. 정우정과 함께 시설에서 있다가 자립한 중증 뇌병변 장애인 황인준(40)이 앞에서 말을 보았다. “우정씨가 사실에서 나온 뒤로 많이 보고 의사 표현도 분명해졌어요.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도 아니야 이런 보면 여행들 가라고 놀라요.”

둘은 그렇게 여행 동자가 됐다. 25년을 지냈던 시설에서 2015년 말부터 자립한 황인준은 지난 4년 동안 일본에 3차례, 중국에 1차례 다녀왔다. 이제 일본여행만큼은 자신 있다. 국내여행도 많이 간다. 특히 대형호텔 장이었던 정남대는 황인준이 가장 좋아하는 여행지다. 여행하는 식비를 아껴서 마련한다. 25년 동안 가장 못했던 것을 할 일이다. 아니었다.

예시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한진(57)

공부

공부 못 하며 지낸 수십년 후
탈시설 뒤 먼저 교육기관 찾아
“노래 배우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은 지난해 6월 일본 후쿠오카에 다녀왔다. 역시 50년의 삶을 지낸 뒤 맞이한 첫 국외여행이었다. 파란 옷에 까만 선글라스를 쓴 한진선 뒤로 하카타 항구에 세워진 100m 높이의 하카타 포트 타워가 보였다. “깨끗하고 조용해서 좋았어요.” 기록교인 한진선은 1990년 처음 시설에 들어왔다. “이렇게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생각했어요. 18년 시설 생활은 그를 의심하게 만들었다.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정말 하나냐고 물어봐요.” 2008년 그는 세상으로 나왔다.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걸음을 바르게 옮기고 있었다.

■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 행복해요”** 탈시설한 이들이 가장 갈망하는 건 공부다. 공부는 세상에 소외되어 있던 이들을 세상과 연결해주는 통로다.

지난해 12월 18일 경기 김포 ‘김포장애인아카데미’에서 만난 중증 뇌병변 장애인 이주정(45)은 지난해 25년 시설 생활을 마무리하고

자립했다. 아학에는 이주정이 몇 개 남지 않은 이를 활짝 드러내보이며 수줍고 있는 사진이 곳곳에 걸려 있다. 이주정의 아학 친구인 중증 뇌병변 장애인 박일삼(56)도 이주정과 함께 “공부가 가장 좋다”고 말한다. 25년을 지냈던 시설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도 “공부를 못 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주정(49) 역시 같은 생각이 있다. 이주정은 매우 재능이 학에서 수업을 듣는다.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마저 쉽지 않은 중증 뇌병변 장애를 가진 지만 무엇보다 그를 막을 수 없다. “아학에 다녀오니 수학·영어·그림·영화 등 다양한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요.”

이주정은 그중에서도 노래를 배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들어 올린 밤... 참이 나쁘다고 참이 나쁘다고 “그는 지난해 12월 22일 ‘정물화’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4월 까지 모두 불렀다. 참대할 휠체어에 누워 있어서 가사는 잘 보이지 않았어도 한 손을 흥겹게 흔들며 노래를 부르는 열정만큼은 누구도 여누를 수가 없다.

특별취재팀
24시간 정환봉 권지담 김민제 박윤경 이준희 기자

3월 경향신문(송진식 기자 / 3월 26일)

[단독] 엄마들 무릎 꿇어 얻은 '서진학교' 해 넘기나

12 2018년 3월 26일 화요일

사회

엄마들 무릎 꿇어 얻은 '서진학교' 해 넘기나

서울 강서 장에 특수학교, 주민 항의·민원에 공사 착공
개교일 3월→9월→11월로 또다시 연기될 가능성 커
교육청 "9월 일부 개교"에 학부모 "누구를 먼저" 난색

서울 강서구에 개성된 특수학교
인 서진학교의 개교일이 오는 9월
에서 11월로 또다시 연기될 지사에
놓였다. 그간 서진학교를 '완성지
선'이라 수장하며 개교에 반대해온
영근 여파의 주민들이 공사 관련 민
원을 끊임없이 제기하는 데에다 공
사가 연달아 밀려나, 원래 개교가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
교목원은 지난 21일 전국장애인무
모연대 경지지부 소속 학부모들을
대응으로 개교 연기 문제를 관련
실정회로 열었다. 서진학교는 2017
년 9월 학교 개성 문제를 놓고 영근
공정원에서 정해져 부모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무릎 꿇고 눈물로 개

교일 오수에 생애가 뒤편 특수학교
다. 교육부의 "2018 특수교육정책
을 보면 국내 특수교육의 질적향상
에 박력은 2017년까지 100%에
달라야 한다"는 방침이 반영된 것

2018년 9월 개교를 했. 공민초등
교목원에 따르면 개교를 했. 공민초
교목원에 따르면 개교를 했. 공민초
교목원에 따르면 개교를 했. 공민초

이제는 서진학교 개교일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제
지진 학교일은 11월이었다. 학교
청에 따르면 11월은 11월로 내년부터



2017년 9월 열린 공사착공식. 특수학교 설립 교육청-주민-교육자 등 참석자가 '특수학교 반대'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관 등 공사가 추가되면서 개교는 오
는 9월로 연기 지체 늦춰졌다. 지교목
원 관계자는 "공사 규모를 감안하
면 본래 공사기간이 18~24개월 원
요하지만 공사구 자체에 특수학교
수요가 시급한 점을 감안해 13개월
로 공기를 11개월 단축한 것"이라
고 밝혔다.

공사가 빠듯해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해야 했지만 영근 여파의 주민
들은 차질된 "공사를 소용의 지
점"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민
원을 냈다. 주민들은 오후 5시에
나온 이따금씩 경찰에 찾아가 "어
간 공사는 늦어지게 됐다"고 공의
에 대해 항의했다. 한 공
정 관계자는 "경찰에 갈아 영근
에서 민원을 내려고 한다"고 크레
이츠를 일찍이 전하며 공사장 중
단시키려고 항의를 했다. "사
업을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을 것
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학교 정문
위치를 놓고도 "완성지선에서 구
주민들이 자주 다니는 길 쪽으로 내
자"라고 항의했다.

이제는 서진학교 개교일은 계속
미뤄지고 있다. 서울교육청에 제
지진 학교일은 11월이었다. 학교
청에 따르면 11월은 11월로 내년부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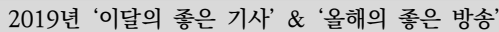
방향을 바꾸고민에게 재검토"라
"9월에 일부 개교하면 12~13개 학
급은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지교목원의 재검
토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세웠고, 차
에 학부모 모두 학교 앞에서 시
위를 벌였다. 일부 학부모는 "영
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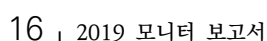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영근 주민들이 일어난 영근에 대해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편견 깨는 장애인 유튜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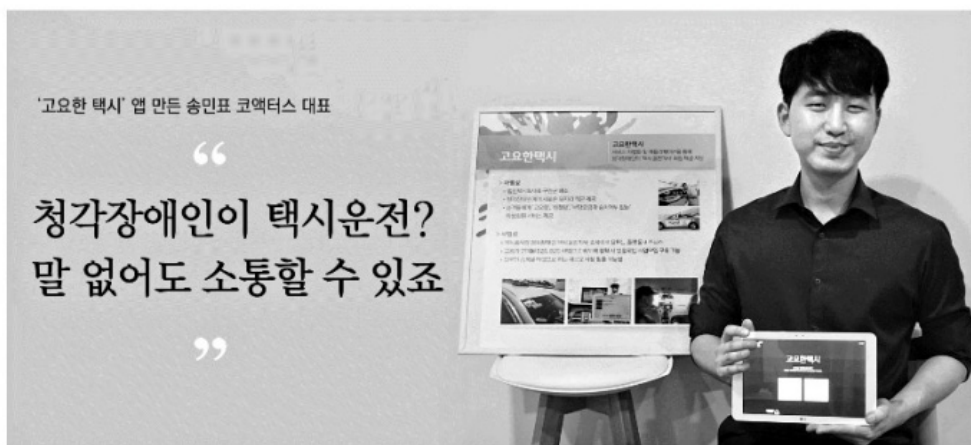


6월 동아일보(김수연 기자 / 6월 27일)

청각장애인이 택시운전? 말 없어도 소통할 수 있죠

동아일보

2019-06-27 (목) A25면



21일 서울 중구 중무로 중무창업쿠브에서 만난 사회기업 코엑터스의 송민표 대표가 청각장애인 택시운전자와 승객들의 소통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이 장착된 단말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지난해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 '고요한 택시'를 선보였다. SK텔레콤이 후원했다.

요즘 취업시장은 달 그대로 '엄동설한'이다. 여러 지표가 보여주듯 연봉이나 학력 수준을 볼 뿐 아니라 '고용난해'에 대한 아우성이 넘쳐나고 있다. 일자리가 밀려 버린 상황에서 신체의 일부가 불편한 장애인들은 비장애인들에 비해 더 큰 고용을 겪을 수밖에 없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인들도 마찬가지다.

사회적 기업 '코엑터스'의 송민표 대표(29)는 이러한 고용의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을 위한 아이디어를 고민하던 중 청각장애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시작했다.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 운전기사가 단말기를 통해 승객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것이다. 송 대표는 택시 안에 조음하다는 의미로 달아 이 서비스의 이름을 '고요한 택시'라고 명명했다. 21일 서울 중구 중무로 사무실에서 송 대표를 만났다.

"대학교를 다닐 때 사회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는 동아리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장애인에 고용원칙에도 관심을 갖게 됐죠."

그가 처음부터 창업을 생각한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청각장애인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기사를 우연히 접한 게 계기가 됐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가 없을까.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다른 위험한 작업현장에서 고된 노동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랜 고민 끝에 비장애인과의 소통 도구인 청각장애인들도 얼마든지 택시 기사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2017년 8월 팀을 꾸렸다. 그리고 지난해 초 실제 서비스에 들어갔다. 사업 초기엔 좌승우승의 연속이었다. 초기 자본이 없어 운전자 형인 경

기사-승객이 차량 단말기로 소통 전국 12대 청각장애인 택시 운영 불편한 대화 차단돼 승객도 만족 동아리 활동하며 사회문제에 관심 고용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양질의 일자리 찾아주려고 시작 "세상 바꾸는 일 계속 해나갈 것"

전대회에 나가 상금을 받아 증명했다. 자신이 개발한 사업이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고쳐야 할 점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청각장애인들을 인터뷰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나이 지긋한 택시회사 관계자들을 만나 자신의 서비스를 홍보하는 일도 쉽지 않았다.

사업 1년 만에 서울에 3대, 경기 남양주시에 8대, 경북 경주에 1대 등 총 12대의 '고요한 택시'가 탄생했다. 송 대표는 "고요한 택시" 단말기를 택시회사에 제공하고, 운전기사로 일할 청각장애인들에게 다양한 서비스 교육을 시킨다. 코엑터스에서 청각장애인 운전기사를 양성한 뒤 택시회사에 취업을 시키는 방식이다. 송 대표는 아직 기사 수가 많지 않지만 앞으로 크게 확대될 것을 자신하고 있다.

이유를 추궁해야 하는 택시회사와 청각장애인 고용 요청을 수용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통 장애인을 고용하면 위험관리와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송 대표는 "고요한 택시"는 기사와 승객들끼리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는 일방적 대화가 없어 오히려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밝혔다. 또 "최근 수도권 지역은 택시회사마다 인력난이 허역이어서 구이 많다"며 "청각장애인이라서 차를 안정적으로 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택시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고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택시기사로 일하는 청각장애인들도 업무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 중 상당수는 운전기사로 일하기 전까지 공장에서 조립 등 단순 공정을 반복하거나 위험한 노동현장에서 일한 사 람들이다. 이제 작업이 없었거나 비정규직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송 대표는 "비정규직이었던 분들에게 정규직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

다"고 말했다. 장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한 달에 300만 원 이상, 날게는 300만 원대 수입을 올리는 기사님들을 보면 이 일을 시작하길 살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운전하는 게 위험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하지만 청각장애를 가진 택시기사들은 소리가 들리지 않는 만큼 오히려 조심스럽게 방어운전을 하는 게 습관이 돼 있다. 그만큼 사고율이 낮다. 또 기사들에게 운전 매너와 승객을 대하는 예절에 대해서도 교육하고 있어 승객과

의 충돌이 거의 없다. 다만 송 대표는 이 사업을 진행하며 청각장애인을 향한 우리 사회의 높은 벽을 접감했다고 말했다. 다른 장애인에 비해 청각장애는 외존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보니 오히려 배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공공장소에서 수화를 하며 대화를 나누는 청각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갑다.

송 대표는 다음 달 11일 제8회 SIT(Social Innovations Table)의 연사로 참석해 사회적 기업을 하며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문제를 발표한다. SIT는 기업의 분야에서 혁신 사례를 만들어가는 사회혁신자들이 모여 자유롭게 아이디어 나누는 네트워킹 플랫폼으로 SK텔레콤이 후원하고 있다.

송 대표는 "우리 기사님들을 고용한 택시회사의 사장님들 중 몇몇 분은 직원과 소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기 시작했다"며 "이런 게 바로 세상을 바꾸는 거라는 생각이 가슴이 찡다. 앞으로 이들을 위해 더 많은 연계를 지속적으로 해나가 고 싶다"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skkim@donga.com



7월 경향신문(특지역 기자 / 7월 22일)

방치된 '장애인 안전'...서울 631곳 중 보호구역 지정 7곳뿐

경향신문

2019년 7월 22일 월요일 010면 사회

방치된 '장애인 안전'... 서울 631곳 중 보호구역 지정 7곳뿐

〈장애인 거주·복지시설〉

전국에도 90곳 불과... '교통약자' 사고 위험 실재

중증사각장애인 정현주씨(70)는 지난 2월 평소와 다름없이 성북시 각장애인복지관으로 가기 위해 서울 지하철 4호선 상선대리역구역 6번 출구로 나왔다. 7번 출구로 나오면 정자불목이 설치된 인도도 갈 수 있지만, 동행이 없고 인도 위 주파동 차량도 있어 걷기 어렵다. 정씨는 그래서 늘 6번 출구로 나와 주택가 사이로 난 골목길을 더듬어 복지관으로 향한다.

아닌도 정씨는 지팡이를 바다를 잡으며 천천히 길을 가고 있었다. 갑자기 '부웅' 소리가 들리더니 한 차 동자가 정씨의 팔꿈치를 치고 지나갔다. 정씨는 너무 아파 주저앉았다. 마침 길을 지나던 복지관 직원이 정씨를 일으켰고 7분 후 차주에게 한 말만 호소하자 변하였다. 차주는 정씨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개버렸다.

■ 서울 중·경·강·경남·경북 등 보호구역 7곳

이처럼 장애인들은 각종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장애인시설 주위에 지정되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턱없이 적다. 장애인 보호구역 적용 기준이 열소해 지정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의지도 부족해 때문이다.

서울시의 행정안전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에 있는 장애인 보호구역은 7곳이다. 서울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282곳, 지역사회복지시설 280곳 등 총 631개의 장애인시설이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전국에도 90곳이 있는데 경기남부(24곳), 제주(14곳), 광주(11곳), 충남(11곳)만 10곳이 넘는다. 대구·인천은 6곳, 경기도는 4곳, 대전·울산은 3곳, 부산·충북·충남은 1곳뿐이었다. 세종·강원·경남·경북·전북에는 장애인 보호구역이 없다.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교통약자 안전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차량 통행이나 속도 제한된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시설

▶ '턱없는' '안전지대'

거주시설 300~500m까지

지정 기준 현실과 동떨어진

100명 오가도 복지관 예외

세종·경남·경북 등은 전무

민원 걱정 신청 망설이기도

▶ 지정해도 관리 뒷짐

과속단속 없고 방지턱 훼손

불법 주정차 및 사고 빈발

주민 눈치에 표지판 실종도

'그게 뭐죠' 지적해 관심 밖

'일불적 아닌 친화적 환경'을

으로 지정하면 운전지도 경각심이

생겨 우리가 걱정 없이 다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15년 3월 복

지관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50

대 중증 사각장애인 나병태씨도

'장애인 보호구역' 표지판이 있었지만

사고는 안 당했을 것'이라고 했다.

주체가 어떤 도로에서 추진하면 차

운사는 간섭자 뉴우문장·뉴우문장

무복지관은 아무런 관심도 장애인

인 통행이 많아 보호구역으로 지정

했다.

■ 지정된 보호구역도 관리 부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고 위

험은 여전한 것이다. 최근 경향신문은

서울의 장애인 보호구역 7곳을 모

두 찾아 살펴보았다. 장애인 보호구역

인간 강자서 방화근단인류 및 도로를

전통 불타서 한 번 남성이 지난다.

도로에는 15t 임프트릭, 굴삭기 등

이 불법주차돼 있다. 전통 불타서

열을 1t 담자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기기도 했다. 장애인 보호



서울시내 장애인 보호구역은 7개뿐이다(가운데 지도). 그러나 불법 주정차 차량, 장애인 배려 없이 빠르게 달리는 차량 때문에 장애인의 이동권은 위협받는다.

특지역 기자 gip@kyunghyang.com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500

m까지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시설

의 장이 자치구에 신청하면 특별시

장, 광역시장, 도지사 등이 최종 지

정한다. 자치구가 장애인 교통사고

발생 지역을 조사해 별도로 시에 요

청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에

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처럼 주

주정차도 할 수 없다. 장애인 보호

구역 표지판, 과속방지턱, 방호울

림 등도 설치할 수 있다.

장애인 보호구역은 현행법상 일

정 기간 장애인이 거주해 요양 시설

등을 지원받는 '장애인 거주시

설' 안에서 지정할 수 있다. 장애인

복지관 등은 장애인 거주·요양

시설로 장애인 보호구역 신청할 수

없다. 정씨는 '장애인 보호구역' 인

도, 거주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정씨는 '상설장애인복지관'에

관여 다니는 장애인인 하우에 100

명을 넘겼다. 장애인 보호구역에

했다.

서울시 보행정책과 관계자는 '거

주시설만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

정하는 현행법이 현실과 동떨어진

있음을 알고 있다'며 '통행이 많은

복지시설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

도록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며

관부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

울시는 간섭자 뉴우문장·뉴우문장

무복지관은 아무런 관심도 장애인

인 통행이 많아 보호구역으로 지정

했다.

■ 지정된 보호구역도 관리 부실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에도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사고 위

험은 여전한 것이다. 최근 경향신문은

서울의 장애인 보호구역 7곳을 모

두 찾아 살펴보았다. 장애인 보호구역

인간 강자서 방화근단인류 및 도로를

전통 불타서 한 번 남성이 지난다.

도로에는 15t 임프트릭, 굴삭기 등

이 불법주차돼 있다. 전통 불타서

열을 1t 담자 한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기기도 했다. 장애인 보호

역 7곳 중 4곳에서 과속 차량이 폭

발고, 5곳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있었다. 보행자를 보호하는 방호울

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3곳이

었다. 과속 단속 장치가 없거나 과

속방지턱이 파손된 상태로 방치된

곳도 있었다.

경동구 장애인사회복지관과 관련

자는 '시설 부착 장애인 보호구역'에

는 장애인 보호구역이라는 도로표

지조차 없다'며 '구경 차량에게 불

안보나 '주민들이 꺼려 도로 보수공

사 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따로 표

지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 턱없이 부족

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자체의 관심 부족 때문

이다. 보호구역 신청 요건을 갖춘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들은 서울시

로부터 관련 공문을 받지 못했다

며, 심지어 장애인 보호구역이 무엇

인지 모른다고 했다. 서울도봉구

에 있는 한 장애인 거주시설 관계자

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하려는

공문을 받거나 이에 대해 누구도 알

려준 적이 없다'며 '장애인 보호구

역을 신청하려는 공문이 내려왔다

면 신청했을 것'이라고 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장애인 교통

사고 예방 지역을 조사해 보호구역

으로 지정할 수 있지만, 현재 시

지는 않는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

계자는 '구에서는 사설에서 요청하

면다'고 말했다. 어린이·노인 교통

사고 등에는 매해 집계되는 반면 장애인

에 대한 피해는 입은 교통사고 통계

에는 없다.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지자체에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대부분

받아들이지만, 신청서 신청하는

시설장은 적다. 장애인 보호구역을

신청하려면 시설 주변에 주차장을

없는 등 조건을 지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의 민원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

계자는 '안전 지대 민원을 일괄해 장

대신청서 속에서 신청 자체를 주

한다'고 전했다.

장애인 보호구역이 장애인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하지만, 이

보다 먼저 도로환경을 장애인 친화

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

다. 법률적으로 보호구역을 지정하

기보다는 거주·복지시설 위치와

주변 환경, 실제 이용자들의 생활

고려해 세심하게 판단해 결정하

는 장애인 보호구역을 지정하면 60~70

km로 넓은 차량이 갑자기 감속하

야 해 오히려 사고 위험이 높고, 차

량의 인드 진입을 막기 위해 설치한

블라드 등 중증 장애인의 이동권을

방해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정책과 관계자는 '법

제에 따른 장애인 보호구역을

서울시와 관련 기관에 협의하

고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도 큰 의

미가 없다'며 '인도와 차도의 단차

를 없애는 등 장애인 친화적인 도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지역 기자 gip@kyunghyang.com



8월 한국일보(조소진, 정준기 기자 / 8월 28일)

[단독] 기초수급 장애인 고독사... 지자체·센터는 '도울 의무' 없었다

10



사회

2019년 8월 28일 수요일 | WWW.HANKOOKILBO.COM | 한국일보

기초수급 장애인 고독사... 지자체·센터는 '도울 의무' 없었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 관악구에서 50대 장애인 여성 정모(52)씨가 홀로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됐다. 그런 이용하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1년간이나 끊었는데, 아무도 그 이유를 알아보지 않았다. 관련 기관들은 정씨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끊었다는 사실을 '일월 의무가 없는 일'이었다는 대답만 내놓았다.

27일 서울 관악경찰서 등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일 오후 8시쯤 삼성동의 한 다세대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은 건물 2층에 살던 주인이 일주일 이상 악취가 지속된다고 관리인에게 연락했고, 시신을 발견한 관리인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시신은 배가 부풀 정도로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부패 상태, 이웃 주민과 마지막으로 연락한 시기 등으로 미루어 몇 주 전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웃 주민들을 불쌍히 여겼던 정씨는 5년 전쯤 가정폭력에 입원한 남편과 이혼한 뒤 홀로 살았다. 다른 가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택에서 단호한 불행에 맞서 싸워온 정씨의 다리를 쫓았다. 수습 뒤 정씨는 장

3년 전 다리 잃은 50대 여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1년간 관련기관 모두 정보 공유 외면 숨지고 2주 지나서야 발견돼 "꼭마는 사람이 우울 봐야 하는 복지 신청주의 시각서 또 죽음"

예인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고 장애인차별철폐연대센터에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 왔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장애인 수당 등 약 70만원이 수입의 전부였다. 정씨는 장애인이자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이중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렇다고 삶의 의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날 찾은 삼성동 정씨 집에는 장애인 단체가 후원한 우편물, 2019년 생계급여를 지급하는 제1차 '장애인복지법'이라 적힌 포스트잇, 생전에 써다던 메모지 등이 발견됐다.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에서 한 다세대 빌라에서 고독사한 50대 여성 장애인 정모씨가 생전에 집 방안에 붙여 둔 포스트잇에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항이 적은 문구가 적혀 있다. 다리가 불편했던 정씨는 집중집회에 '복합'을 제자리에 놓아 달라는 당부를 적은 용지를 붙여 두기도 했다.

은 물품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뭔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노력하고 있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흔적들이다.

정씨의 고독사가 뒤늦게 알려진 건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꼭 마는' 자가 우울을 피하'는 시도로 운영돼서다. 정씨의 경우 지난해 겨울 장애인차별철폐연대센터에서 이용가운 반점을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을 중단한다고 통보

했으나, 그 뒤 다른 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하진 않았다. 하지만 동주민센터 복지정보 시스템에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씨의 이용가운 변경 신청을 받았던 장애인차별철폐연대센터는 "그런 신청을 다른 곳에 알렸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바우치 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형과 사회보장정보원도

"그런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고만 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 역시 1년째 한 차례 정기 대이 용자 평가를 과할 뿐이다. 2018년 말 정씨 당시, 이용을 중단한 지 몇 개월 지나지 않은 정씨는 급격히 대상이 아니었다는 설명을 내놨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적어도 서비스 이용 중단 여부, 사유 등은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렇듯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인 '정서주의'의 시각에서 보면 고독사한 정씨는 "도움이 꼭 필요한 사람이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면 최소한 왜 그런지 물어보고, 되도록이면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6개월 이상 바우치 미이용자에 대해선 수급 중지가 가능하다'는 재정 절감 차원의 조항만 두고 있을 뿐이다.

이런 업무의 손과 발이 되어줄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의 증원도 필요하다. 정씨가 살았던 삼성동 주민센터는 7명의 복지활동사가 기초생활수급자 1,247명과 장애인 1,536명을 담당한다. 노인 등 다른 취약계층까지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다. 급변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적, 이중 삼중의 취약계층을 중점 관리하는 방식이 아야 하는데 지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가 적다 보니 일일이 찾아가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글 서진·조소진 기자

9월 국민일보(정창교 기자 / 9월 29일)

[단독] 자폐인 최초 대학교수된 윤은호 박사 “꿈과 희망 말하고 싶다”

국민일보

2019년 09월 30일
28면 (인물)

자폐인 최초로 국내대학 강단에서 강의한다

〈인하대〉

윤은호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교수

“장애를 갖고 있는 것 자체는 힘든 일이지만 현재의 즐거움이 중요합니다.”

2019학년도 2학기에 인하대 문화콘텐츠문화경영학과 초빙교수로 임용돼 3학점 강의인 ‘심리학과 웰니스 콘텐츠’를 맡게 된 자폐인 윤은호(33·사진) 교수는 29일 “장애극복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인하대 문화콘텐츠과 1기 출



신으로 철도신문 기사를 거쳐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모교 교수로 임용됐다. 윤 교수는 문화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내 대학에서 강의하는 첫번째 자폐인 교수다.

윤 교수가 맡은 과목은 4학년 강의로 50명이 강의를 신청했다. 다른 학과 학생도 상당수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교수는 수업을 통해 장애인을 비롯

한 다양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힐링콘텐츠를 소개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윤 교수는 “갑자기 화를 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콘텐츠를 비롯한 인간의 감성에 관심을 갖는 웰니스콘텐츠는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정립되지 않은 분야”라며 “인용할 만한 논문도 없기 때문에 조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질문이 많은 수업으로 학생들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 교수는 “도박중독, 치매, 난치성질환, 척수장애, 학습장애 등이 관심사”라며 “앞으로 연구를 계속해 다른 학교에서도 강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gyo@kmi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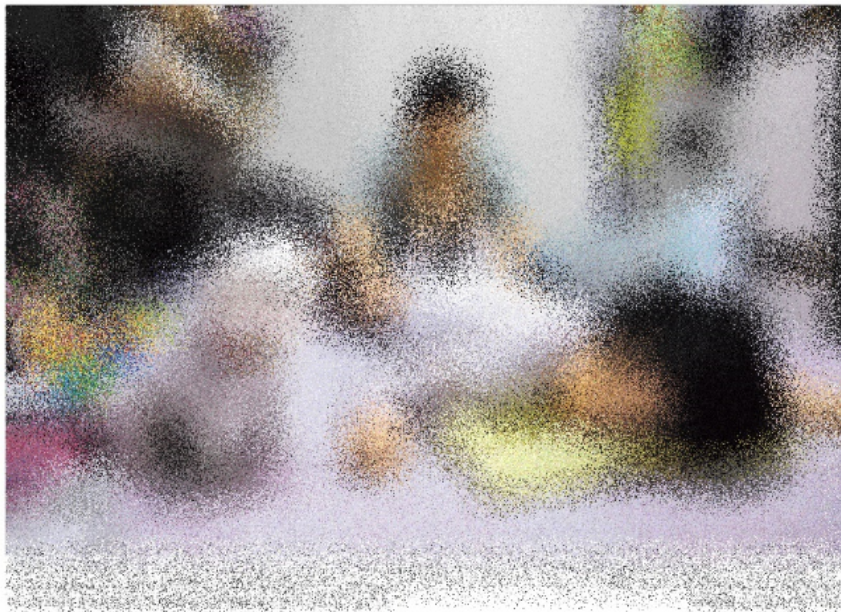
(18.8*7.6)cm



10월 경향신문(이종섭 기자 / 10월 8일)

“아이 치료할 곳이 ‘엄마의 품’밖에 없어요” 외 2건

아이 치료할 곳이 ‘엄마의 품’밖에 없어요



‘재활 난민’ 증증장애아동

석광국군(8)은 첫돌이 되기 전 뇌병변 1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팔다리를 맘대로 움직일 수 없고 언어조차 없으면 누워서만 지내야 한다. 음식을 먹는 것조차 자유롭지 않다. 제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몸이 틀어지고 굳기 때문에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다. 석군이 살던 경북 안동에는 소아재활치료 가능한 병원이 없었다. 장애 진단을 받은 후 석군 가족이 집을 떠나 치료할 곳을 찾아 떠도는 ‘난민 생활’을 해야 했던 이유다.

석군 가족은 그동안 재활치료를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등지의 여러 병원을 돌다 다녔다. 울산의 한 대학병원에서 장애 진단을 받고 처음 찾았던 곳은 석군 외가 가 있는 경기 고양시였다. 그곳에서도 단정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결국 서울의 한 재활병원에 입원했

뇌병변 1급 장애 앓는 8살 광국이 재활병원 찾아 온 가족 전국 유랑

‘소아재활’ 223곳뿐… 갈수록 줄어 전문병원 단 1곳… 또 어디로 가나

다. 하지만 대개 환자가 많아 장기 입원이 어려운 데다 병원 사장이 여의지 않아 다시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헤매야 했다.

1 관련기사 2·3면
병원을 수소문해 찾아가던 곳이 부산이었다. 안동에서 차로 3시간은 가야 하는 가라진 뒷에 부산의 한 병원에서 가족이 함께 생활하며 입원치료를 했다. 생활은 안만이 됐다. 결국 석군의 재활치료를 위해 가족이 모두 부산에서 가까운 경남 김해시로 이사했다. 4·5년간 부산에서도 치료를 위해 여러 병원을 전전했다. 그사이에도 서울·경기 지역으로 여러

병원전치료를 다녔다. 2년 전 아버지의 직장 문제 등으로 다시 안동으로 이사한 석군은 더 이상 제대로 치료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안동에는 여전히 석군이 안정적으로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이 없다. 부산에서는 소아재활병동에 다니며 매일 6시간씩 치료를 받았지만, 지금은 1주일에 3일, 하루 30분~1시간 정도 외래로 재활치료를 받는 게 전부다. 소아재활병동은 석군 같은 장애아동이 집에서 생활하며 낮에만 병원에 입원해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이다. 지속적인 고안정적인 치료가 필요한 증증장애아 가족에게 선호도가 높지만 이런 시스템을 갖춘 곳은 많지 않다. 병원에서 ‘돌이 안된다’는 이유로 소아재활치료를 꺼리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속적인 소아재활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223곳(2014년 기준)으로 파악된

다. 2015년 기준 전국 의료기관 수가 2만 9488개인 점을 감안하면 소아재활치료를 하는 의료기관은 1%도 되지 않는다. 그나마도 적자자 이유로 소아재활을 포기하는 병원이 적지 않다.

소아재활치료 전문병원은 서울에 있는 푸른재단 백승어린이재활병원 1곳 뿐이다. 석군처럼 치료할 병원을 찾아 전국을 떠도는 ‘재활 난민’이 영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에서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석군 아버지(42)는 “광국이 재활치료를 한 지 7~8년이 지났지만 치료 여건은 달라진 게 없다”며 “다시 다른 지역에 सरा도 치료를 하고 싶지만 광국이 동생들도 보살펴야 하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럴 만한 여건이 안된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kyunghyang.com

11월 한겨레(전광준 기자 / 11월 1일)

수익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 후퇴시킨 아시아나항공

한겨레

2019년 11월 1일 금요일 010면 사회

수익 이유로 '장애인 이동권' 후퇴시킨 아시아나항공

보행약자에 우선 내줬던 1열 좌석
비장애인에게 웃돈 받고 예매제로
장애인단체 "전용석 이용에 제약"

시범운영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도
'3일 전 예약-전동휠체어만 가능'
"교통약자 이동권 세심한 보완을"

지난 28일은 장애인 이동권 역사에 한 획을
그은 날이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 시행 13년 만에 휠체어 이용자를 태울 수
있는 고속버스가 시범운행을 시작해서다. 그

려나 저가항공사는 물론이고 아시아나 같
은 대형 항공사마저 수익 제고를 이유로 교
통약자들을 위한 '앞좌석 우선 배정제'를 포
기하는 등 여전한 장애인들이 세상으로 나
오는 길은 험난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장
에인 인권단체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아시
아나항공은 지난 9월27일부터 국내선 '프린
트존 에이(A)' 구역에 대한 유료 사전 예매
제도를 시작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는 "다른 승객보다 먼저 내리기 유리한 이코
노미클래스 전면 좌석인 프린트존 에이(1-3
열)" 구역에 포함된 1열 좌석의 경우 사전 예
매 단계에선 좌석을 지정할 수 없게 비워뒀
다가 탑승 당일 공항 카운터에서 보행약자

들을 중심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되면서 국내선은 9천원을 더 내면 비장
에인도 1열 좌석을 미리 선택할 수 있게 됐
다. 아시아나 측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사전 예약을 통해 프린트 시트(1열)를
무료로 배정해드리고 있다"고 밝혔다. 보
행약자 전용석을 비워두는 것이 아닌 한 '공
수포'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희순 제주장애
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1열 좌석이 아니면
휠체어에서 좌석으로 옮겨 타기가 매우 힘
들다. 다리가 아예 안 굽혀져 1열 좌석에만
탈 수 있는 장애인도 있는데 장애인 이동권
을 제한하는 형태"라고 비판했다.

저가항공사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 일부

저가항공사는 장애인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조차 없다. 전용선 한국접근가능한관광네트
워크 대표는 "2년 전 일본행 저가항공을 이용
했을 때 직원들이 기내용 휠체어로 나를 옮기
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휠체어에서 떨어질 뻔
했다"고 말했다. 장애인 인권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제공 등 관심이 필요하다고
질었다. 장애인 전문 여행사 '두리함께'의 이보
교 이사는 "장애인을 태우면 항공사 수익성
은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해주는 항공사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정부
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범운행을 시작한 '휠체어 탑승
고속버스'도 보완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

온다. 4개 노선 10대의 버스에 2개씩 휠체어
좌석을 두는 것이지만 수동휠체어가 아닌
전동휠체어에만 적용이 되고, 버스 리프트
를 다룰 수 있는 인력을 배정해야 하기 때문
에 탑승 3일 전엔 예약을 해야 한다. 다만 장
에인 이동권 투쟁이라는 더딘 서사를 돌아
본다면, 첫걸음만으로 큰 진전일 수 있다. 이
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실장은
"장애인 이동권은 장애인 삶의 근간이다.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해 본인이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장애인 삶의 질 향
상에 기여한다. 보행약자 모두의 인권을 위
해 실질적인 장애인 이동권이 마련되길 기
대한다"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12월 서울경제(고광본 기자 / 12월 4일)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장애인 수검률 분석..맞춤 의료정책 길 터

서울경제

2019년 12월 5일 목요일 A16면 종합

장애인 수검률 분석...맞춤 의료정책 길 터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박종혁 충북대 의대 교수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세종대왕은 당 노로 인해 시각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장애는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장애 문제에 장애인에 대한 연구는 소수자나 취약집단의 문제로 치부돼 사회복지학·재활학·특수교육 등의 학문 영역에서만 접어졌다. 하지만 고령화로 투병기간이 길어지며 이제 장애는 보편적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12월3일을 '세계장애인의 날'로 정한 유엔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를 달성하려면 장애로 고통받는 15억명의 건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도 오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 12월 수상자인 박종혁 충북대 의대 교수 연구팀이 여성에게 네 번째로 흔한 자궁경부암 수검률을 분석한 결과,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 자료와 장애등록자료를 연계해 지난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을 표준화해 장애 유형과 중증도별로 분석한 결과다. 이 기간 동안 비장애인의 수검률은 21.6%에서 53.5%로 증가했지만 장애인의 수검률은 20.8%에서 42.1%로 증가하는 데 그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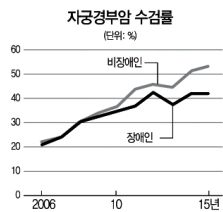
장애인의 수검률은 비장애인의 71% 수준이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42% 정도에 불과했다. 특히 자폐 장애(6%), 지적장애(25%), 뇌병변 장애(31%), 요루·



박종혁 충북대 교수가 연구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연구재단

건보 자료 등 빅데이터 활용해 장애 유형·중증도별 연구 장애인 자궁경부암 수검률 비장애인의 71% 수준 밝혀 과학적 근거 기반으로 장비확충·수가 등 정책 방향 제시



장루 장애(36%), 정신장애(43%)를 가진 장애인의 수검률이 낮았다.

박 교수는 "이는 검진기관의 접근성, 사회문화적 접근성, 의료진의 태도 및 위 모든 상황으로 인한 장애인의 수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태도 등이 복합적

원인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검진시설과 장비의 확충, 의료진을 위한 장애인 검진수가 인상 등 정책 방향을 제안했다. 여성 장애인을 염두에 둔 맞춤형 의료정책 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미국 임상종양학회지'에 게재했다.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반 해도 장애인 의료이용 실태에 대한 기초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았다. 장애정책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낮아 수요자가 아닌 제공자 중심이었고 우선순위에서 밀렸기 때문이다.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돌봄이나 교육·치료시설을 찾기 힘들었다. 연구자들은 장애인의 삶의 질과 건강, 보건

의료 접근성 등 과학적 측정을 통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장애 문제가 나와 내 가족의 문제임을 인식하고 암 연구처럼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시기에 차이가 있지만 모든 사람은 장애를 경험한다. 정부와 대학이 장애과학에 투자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미국 하버드대 보건대학원이 나 영국 런던대가 장애의과학·보건장애학 관련 교과목을 개설하고 후학을 양성해온 것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 복지정책을 펼 때 장애인이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제도를 만드는 정책 결정 과정을 갖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사회의 장애 문제가 커지고 있으나 장애인 건강 연구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미진해 앞으로 주요 연구주제라고 꼽은 바 있다.

박 교수는 "장애인 연구집단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사회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경제학·보건학·공학 등에서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사회의 장애 문제는 재활과 복지 중심의 사회과학적 접근과 함께 의생명과학적 접근을 통한 종합적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의과학·보건장애학의 학문적 가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실제 그는 사회역학, 공공보건, 장애인 건강 연구를 통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관련 법을 제안하고 정책 방안을 제시해왔다. 과거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작성 과정에도 힘을 보태고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고광본선원기자 kbg@sedaily.com

Ⅲ. 선정 방송

상반기 SBS(김영환 국장, 5월 11일)

뉴스토리 - 나는 정신장애인입니다



232회 SBS 뉴스토리

나는 정신장애인입니다

방송일 2019.05.11(토)

정신장애인은 최근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자신들이 겪는 소외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나오면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고 재활과 사회복귀를 돕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방송은 조현병 당사자들을 심층 인터뷰 해 정신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의 문제점을 성찰하고 바람직한 치료와 복지 제도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하반기 KBS1(손성권 PD, 9월 15일)

즐거운 챔피언



스포츠를 매우 사랑하는 연예인이 장애인 스포츠로 전국대회에 도전한다. 처음 접해보는 장애인 스포츠가 생소하고 어렵지만 이들에게는 '열정'과 '진정성'이란 무기가 있다!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이들의 전국 대회 챔피언 도전기이다.

2019년 장애 차별 용어 모니터링 분석

서 문 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I. 들어가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을 보면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작 이 법을 제정한 우리 국회는 장애 인권 감수성이 아예 없는 것 같다. 정당 대표나 전·현직 국회의원의 장애인 비하 발언들을 살펴보면 2018년 말 “정치권에는 정상인가 싶을 정도로 정신장애인이 많이 있다.”, “그 말을 한 사람을 정신장애인이라고 말한다.”에 이어 2019년에도 “정신병 환자가 자기가 병이 있다는 것을 알면 정신병이 아니다.”, “대통령이 일본 수출규제에는 생중계까지 하더니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는 병어리가 돼버렸다.”, “북한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조롱해도 더불어 민주당과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꿀 먹은 병어리”, “야당대표가 병어리라고 비판하니 왜 병어리가 됐는지 따져 보지는 않고 관제 언론은 병어리를 장애인 비하라고 시비만 한다.”, “달을 가리키니 손가락만 쳐다보는 외눈박이 세상”, “신체 장애인보다 못한 더 한심한”,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 등의 욕설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인의 이같은 장애인 비하 발언이 나올 때마다 장애인단체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항의와 사과 요구를 되풀이하는 일이 벌어졌다. 뿐



만 아니라 국회의장도 8월 20일 국회의원에게 발송한 서한을 통해 “평소 언어 습관대로 무심결에 한 표현들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가슴을 멎게 하는 언어폭력이자 차별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그 누구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할 우리 국회의원과 정치인은 마땅히 장애인과 관련된 표현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국회의장에게 보낸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발언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국회의원이 장애인 비하 및 차별적 표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장애인 차별 발언은 장애인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찍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여 자칫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지는커녕 오히려 인식개선에 걸림돌로 작용한다.¹⁾ 특히 정치인은 인권 존중의 가치를 세우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회적 지위에 있는 사람들로서 개인과 사회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에 상대방에 대한 부정적인 비유 대상으로 장애인을 언급하며 장애인 차별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할 책임이 크다. 따라서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런 점은 언론도 마찬가지다. 언론이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할 때 장애인은 부정적인 모습이거나 동정적인 이미지로 고정된다. 장애인이 부정적이거나 동정적인 이미지로 독자들에게 비칠 경우,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확장하고 재생산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언론사는 정치인의 발언을 직접 듣고 보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정치인의 장애 비하 발언이 나올 때 그것을 그대로 기사로 쓸 것이 아니라 해당 발언에 대해 다시 묻고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정치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 의식을 줄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018년에 이어 2019년에도 장애인 용어사용에 대한 언론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2018년에는 전국종합일간지, 지역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에는 지상파 방송사 3곳과 종합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대중매체가 말하는 장애인”,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2010 모니터보고서.

편성 방송사 4곳도 추가하여 실시하였다²⁾. 모니터링 범위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도된 뉴스 기사로 기사의 검색은 대표적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기본으로 하였다. 때문에 용어의 검색 결과가 실제 보도된 것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모니터링 대상 용어는 장애인을 지칭해오던 용어 가운데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로 ‘절름발이, 정상인, 병어리, 장님, 정신박약, 불구자, 귀머거리, 장애자, 정신지체, 맹인’의 10개를 선정하였다. 기사 중에서 장애인의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차별적 단어가 들어간 기사를 검색하였고, 특히 용어 변천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장애인의 개념을 혼동하게 하는 용어 위주로 모니터링하였다.

모니터링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매월 실시하고 통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또 수정이 필요한 기사는 신문사의 경우 수정대상 기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사설·칼럼 기사는 편집국 또는 논설위원실로 전자메일을 발송하여 수정을 촉구하였다. 방송사의 경우 검색된 기사는 이미 방송된 점을 감안해 수정요청 대신 주의요청만 하였다.

□ II. 용어 분석

1. 일간지

가.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2019년 모니터링 결과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2,892건이었다. 이를 일간지별로 살펴보면 지역종합일간지가 1,549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뒤를 이어 전국종합일간지가 783건 그리고 경제일간지가 상대적으로 적은 560건으로 나타났다.

2) 지상파 방송사는 KBS, MBC, SBS, 종합편성 채널은 JTBC, 채널A, TV조선, MB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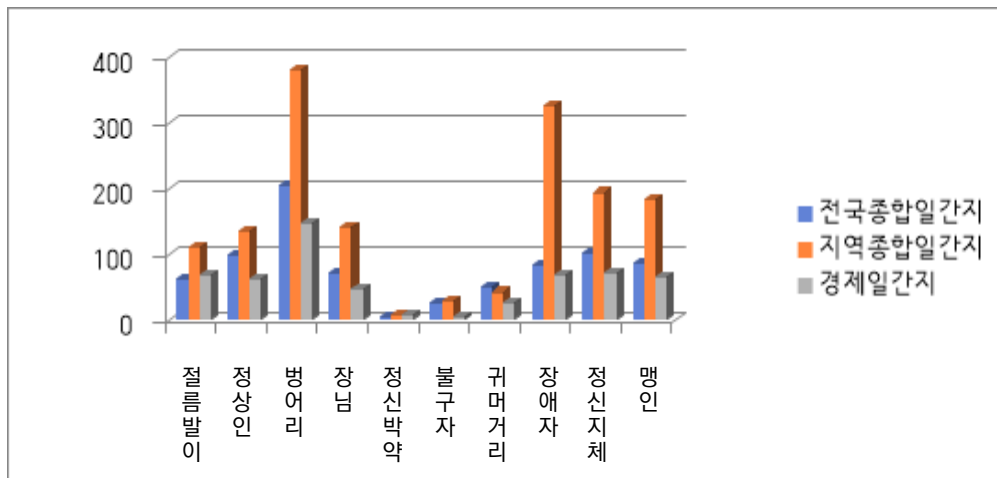


〈표 1〉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연도별, 언론사별)

(단위 : 건)

용어	연도		전국종합일간지		지역종합일간지		경제일간지		총계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2018	2019
절름발이	60	62	126	111	67	67	253	240		
정상인	78	98	124	134	62	61	264	293		
병어리	182	204	372	381	132	148	686	733		
장님	99	71	161	141	82	46	342	258		
정신박약	14	5	22	8	20	6	56	19		
불구자	13	25	28	27	5	5	46	57		
귀머거리	39	49	66	42	24	24	129	115		
장애자	145	82	345	327	76	69	566	478		
정신지체	88	101	226	194	74	70	388	365		
맹인	80	86	185	184	61	64	326	334		
총계	798	783	1,655	1,549	603	560	3,056	2,892		

2018년과 비교해 보면 지역종합일간지가 1,655건에서 1,549건으로, 전국종합일간지가 798건에서 783건으로, 그리고 경제일간지가 603건에서 560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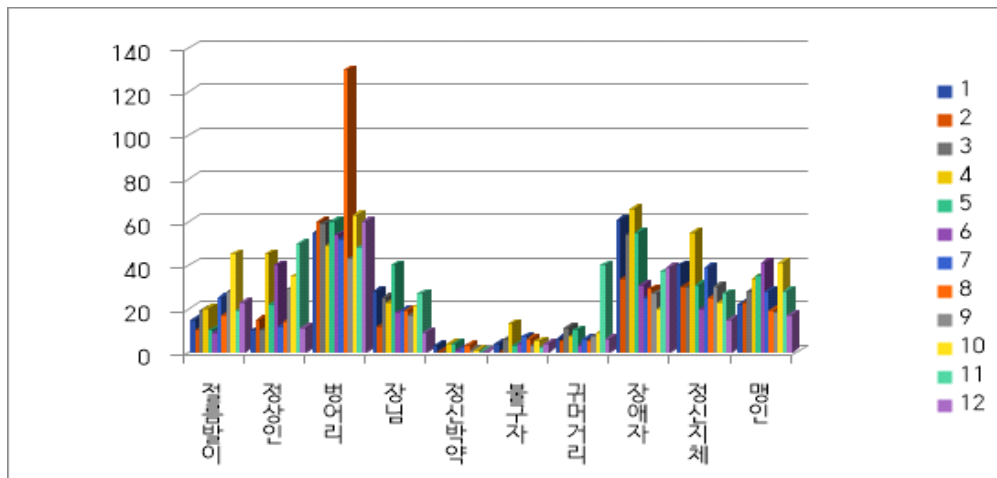
〈그림 1〉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2019)

월별 용어의 사용량을 보면 4월이 316건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었고, 11월이 278건, 5월이 270건 사용되었다. 반면 12월은 184건으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월 평균 사용량은 240건으로 2019년의 254.7건보다 감소하였다. 4월에 316건의 장애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장애인의 날’이 기자들의 취재 활동이나 언론사의 보도 행태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10월과 11월은 10월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있었던 한 의원의 “웃기고 앉아 있네. 진짜 XX 같은 게”라는 발언의 여파로 보인다. 신문 기사에 나타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월별)

(단위 : 건)

월별 용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계
절름발이	15	10	19	20	10	9	25	17	28	45	19	23	240
정상인	10	15	10	45	22	40	12	14	29	35	50	11	293
병어리	55	60	59	49	60	54	52	130	43	63	48	60	733
장님	28	12	25	23	40	18	19	19	17	21	27	9	258
정신박약	3	0	0	4	4	1	2	3	1	1	0	0	19
불구자	4	0	6	13	3	4	7	6	3	5	2	4	57
귀머거리	6	5	11	7	10	3	6	5	7	9	40	6	115
장애자	61	34	54	66	55	31	25	29	27	20	37	39	478
정신지체	40	30	30	55	31	20	39	25	30	23	27	15	365
맹인	22	23	28	34	35	41	28	19	18	41	28	17	334
총계	244	189	242	316	270	221	215	267	203	263	278	184	2,892



<그림 2>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월별)



나. 잘못 사용된 사례

모니터링 결과 언어장애를 나타내는 ‘병어리’가 733건 사용되었으며, 이어서 ‘장애자’가 478건, ‘정신지체’가 365건으로 3위를 차지하였다. 시각장애인을 지칭하는 ‘장님’이 258건, ‘맹인’이 334건 사용되었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귀머거리’ 115건을 포함하여 청각언어 장애인을 나타내는 용어가 848건으로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또 장애인에 대응하는 말로 정상인이 293건이나 사용되어 아직도 장애인을 ‘정상-비정상’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1) 병어리

‘병어리’ 용어는 장애인을 지칭하는 경우보다 비유적으로 사용되었다. “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과 같이 속담이나 관용적으로 사용된 경우가 많았다. 장애는 단지 불편한 것일 뿐인데 마치 불행한 것처럼 장애를 비하하는 표현들이 사용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아래 기사는 내용에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연상하는 “꿀 먹은 병어리”를 사용하였다. 이 경우 “답답해도 대응을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에 처하게 되어 있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언어장애인을 비하할 수 있다. 때문에 “꿀 먹은 병어리”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이 경우 “수수방관 바라만 볼 수밖에 없다.”로 순화해 사용해도 뜻은 통한다.



〈그림 3〉 답답해도 대응을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라는 의미로 “꿀 먹은 병어리” 용어를 사용한 기사(경향신문 2019.01.10.)

2) 장애자

‘장애자’ 용어는 478건으로 2018년에 이어 2위를 차지하였다. ‘장애자’ 용어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 인식되어 2000년 장애자복지법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된 이후 쓰지 않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으로 수정해 사용해야 한다.

기사에서 장애인 관련 용어가 문제되는 경우가 ‘사외 칼럼’ 또는 외부 기관의 ‘보도자료’다. 사내 기사의 경우는 편집 기자가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저명한 인사의 칼럼일 경우는 언론사의 특성상 자의적으로 수정이 곤란하다. 그리고 보도자료의 경우는 거의 기계적으로 복사하여 기사화하기 마련이다. 때문에 사외 칼럼이나 보도자료의 기사에서 ‘장애자’ 용어의 사용이 빈번하게 된다. 이 경우 사외 칼럼은 원고 청탁 시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상의 주의점을 미리 밝히고 수정할 수 있다



록 해야 한다. 보도자료의 경우 편집국 내부에서 기준을 세워 수정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용어의 사용이 사회 인식을 바꾸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사외 칼럼 기사에서 ‘장애자’가 사용된 예는 다음과 같다.



〈그림 4〉 기사제목으로 ‘장애자’를 사용한 경우(서울경제 2019.05.23)

위 기사에 쓰인 ‘게임장애자’는 ‘게임중독자’로 수정되어야 하겠다.

3) 정신지체, 정신박약

1990년 이전에 사용되었던 ‘정신박약’ 용어는 이후에 ‘정신지체’라는 용어로 바뀌었고, 2007년 이후에는 ‘지적장애’로 변경되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신박약’ 용어가 지방일간지 등에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 언론이 올바른 장애인 관련 용어 사용에 대해 그만큼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그림 5〉 기사에서 ‘지적장애’를 ‘정신박약’으로 오남용하여 사용한 경우
(국민일보 2019.07.28)

위 기사에 쓰인 ‘정신박약’이라는 말은 ‘지적장애’로 수정해야 한다. 이 기사는 의사라는 전문가가 쓴 외부 칼럼이다. 원고 청탁 시 주의요청을 통해 편집자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 수정 요청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신문 기사 모니터링을 하면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기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혹은 해당 언론사 편집국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글을 발송하여 주의를 촉구하고 있다.

수정 요청 대상 용어는 모니터링 기사 중³⁾에서 장애인의 의존적이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차별적 단어와 관용구로 하였다. 기타 주제의 기사 중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가 포함된 관용구의 사용을 모니터하였다. 특히 용어 변천에 대한 잘못된 이해나 장애인의 개념을 혼동하게 하는 용어는 집중적으로

3) 수정요청 대상은 지역종합일간지는 제외하고, 10개 종합일간지와 8개 경제일간지(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머니투데이,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로 한정하였다.



모니터하였다. 예를 들어 어떤 장애인 장애는 질환을 앓고 난 결과, 즉 일종의 후유증이므로 ‘뇌성마비 환자’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다’와 같은 말은 적당하지 않다. 또한 “병어리 냉가슴”이 비록 옛날부터 전승되어 온 속담이라지만 오늘날에는 언어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가 될 수 있다.⁴⁾ 따라서 모니터링을 통해 이러한 용어를 걸러내는 것은 기자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전환 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것이다. 모니터링은 매월 20개의 기사를 취사선택 정리한 후 수정요청의 취지가 담긴 내용의 글을 작성하여 담당 기자에게 발송하였다.

수정을 요청한 후에는 기자들의 메일 수신과 기사의 수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1월부터 12월까지 235개 기사의 수정요청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 언론사별 수정요청 및 수정완료 (연도별)

(단위 : 건, %)

연도	매체	수정요청		수정완료		수정미완료	
		중앙 종합일간지	경제 일간지	중앙 종합일간지	경제 일간지	중앙 종합일간지	경제 일간지
2017		128	52	3	2	125	50
	계	180(100.0)		5(2.8)		175(97.2)	
2018		127	53	7	12	120	41
	계	180(100.0)		19(10.6)		161(89.4)	
2019		137	98	12	13	126	85
	계	235(100.0)		25(10.6)		211(8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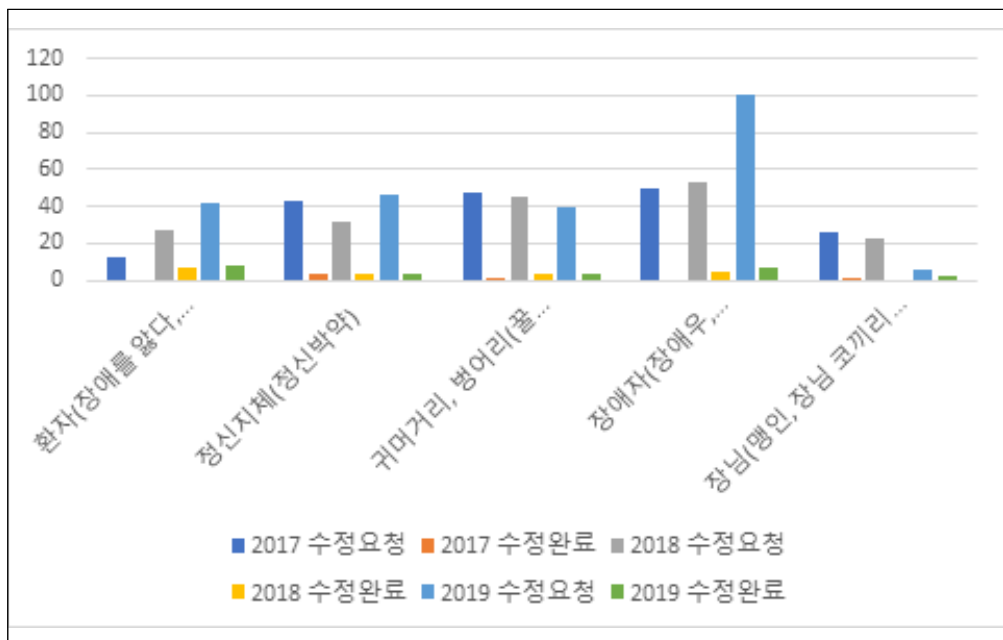
위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2018년에는 180건의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수정 요청해서 19건을 수정하였고, 2019년에는 235건을 수정 요청하여 25건을 수정하였다. 이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서문원, 장애인 속담사전, 북트리. 2018.

〈표 4〉 용어별 수정요청 및 수정완료 (연도별)

(단위 : 건, %)

용어	연도	2017		2018		2019	
		수정요청	수정완료	수정요청	수정완료	수정요청	수정완료
환자(장애를 앓다, 뇌성마비 환자)		13	0(0.0)	27	7(25.9)	42	9(21.4)
정신지체(정신박약)		43	3(7.0)	32	4(12.5)	46	4(8.7)
귀머거리, 병어리(꿀 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48	1(2.1)	45	3(6.7)	40	3(7.5)
장애자(장애우, 앓은뱅이, 절름발이)		50	0(0.0)	53	5(9.4)	101	7(6.9)
장님(맹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26	1(3.8)	23	0(00.0)	6	2(33.3)
계		180	5(2.8)	180	19(10.6)	235	25(10.6)



〈그림 6〉 용어별 수정 건수 비교(연도별)



수정 요청 대상 용어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장애자’였고 그 뒤를 ‘정신지체’와 ‘장애를 앓다’가 뒤따르고 있다. 기자들이 대부분 ‘장애자’, ‘정신지체’ 용어에 익숙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장애를 질환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좀처럼 없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언론인 대상 장애인식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2019년에는 235건의 수정요청 용어 가운데 25건이 수정되었다. 이를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별로 살펴보면 ‘장애를 앓다(환자)’가 9건, ‘장애자’가 7건이었고, ‘정신지체(정신박약)’가 4건, ‘병어리(귀머거리)’가 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2018년에는 한 개도 수정되지 않았던 ‘장님(맹인)’은 6건을 수정 요청하여 2건이 수정되었다. 2018년에는 ‘장애를 앓다’가 7건, ‘장애자’가 5건, ‘정신지체’가 4건, ‘귀머거리, 병어리’가 각각 3건 수정되었다.

2. 방송사

가.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2019년 처음으로 실시한 지상파 3개 방송사와 종합편성채널 4개사의 모니터링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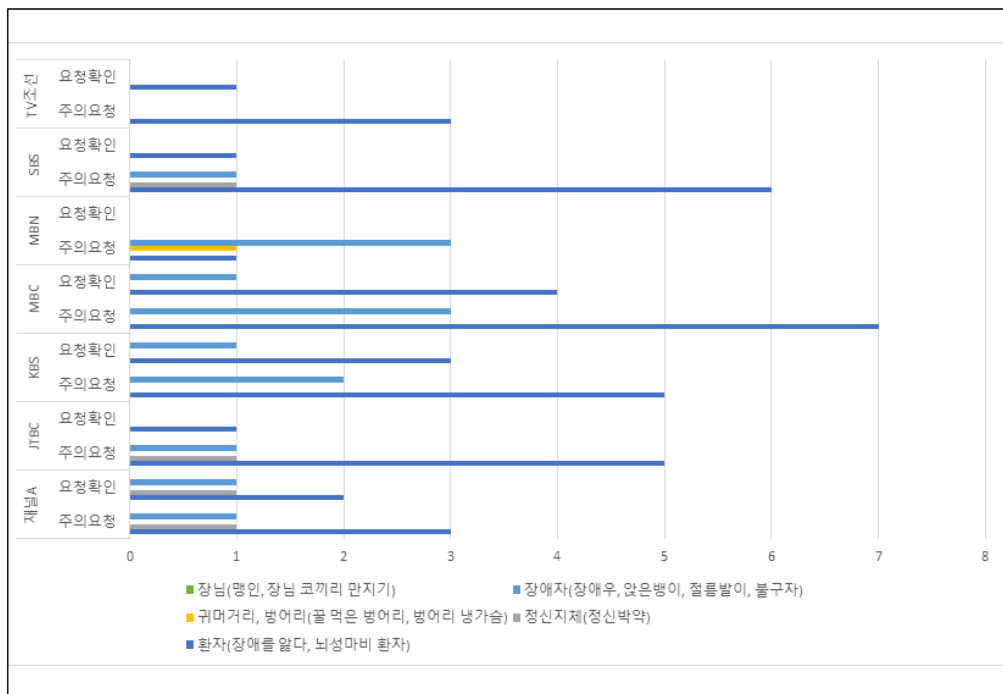
〈표 5〉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방송사별)

(단위 : 건)

용어	방송사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계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확인	
환자(장애를 앓다, 뇌성마비 환자)	5	3 (1)	7	4 (1)	6	1	5	1	3	1	3	2	1	0	30	12 (2)		
정신지체(정신박약)	0	0	0	0	1	0	1	0	0	0	1	1	0	0	3	1		
귀머거리, 병어리(꿀먹은 병어리, 병어리 냉가슴)	0	0	0	0	0	0	0	0	0	0	0	0	1	0	1	0		
장애자(장애우, 앓은뱅이, 절름발이, 불구자)	2	1	3	1	1	0	1	0	0	0	1	1	3	0	11	3		

용어	방송사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계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주의	요청
		요청	확인	요청	확인	요청	확인	요청	확인	요청	확인	요청	확인	요청	확인	요청	확인
장님(맹인, 장님 코끼리 만지기)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계		7	4	10	5	8	1	7	1	3	1	5	4	5	0	45	16

*괄호 안은 주의요청에 대한 응답 건수



〈그림 7〉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주의 요청 건수(방송사별)

〈표 6〉 방송사별 주의요청 및 요청확인 건수

(단위 : 건, %)

2019	매체	지상파 3사		종합편성채널 4사	
		수정요청	요청확인	수정요청	요청확인
	계	25	10(40.0)	20	6(30.0)

모니터링 결과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는 45건이었으며, 방송사 별로는 지상파 3사가 25건, 종합편성 채널 4사가 20건이었다.



용어별로 살펴보면 ‘장애를 앓다’ 관련 용어가 30건, ‘장애자’ 관련 용어가 11건, ‘정신지체’ 관련 용어가 3건, ‘귀머거리’ 관련 용어가 1건이었다. 장애는 사고나 질병으로 생긴 정신적 신체적 손상을 의미한다. 나올 수 있는 것은 장애가 아니다. 그럼에도 ‘장애를 앓다’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된 점은 장애 관련 용어에 대한 기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나. 잘못된 표현과 수정요청

방송사 뉴스 모니터링을 하면서 용어 사용에 문제가 있는 기사는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 혹은 해당 언론사 보도국으로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발송하였다.

1) 장애를 앓다



〈그림 8〉 기사에서 ‘장애’를 ‘병’으로 인식하게 사용한 경우
 (KBS 2019.01.02.)

‘장애’는 질병의 후유증상이다. 따라서 ‘장애를 앓는다’는 표현은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위 보도는 “조울증에 따른 양극성 기분장애를 갖고 있는”으로 수정해야 하겠다. 본부는 담당 기자에게 앞으로 유사한 내용을 방송할 때 유의할 것을 요청하였고, 기자는 차후 표현에 주의하겠다는 답장을 보내왔다.

2) 불구자

 뉴스 · TV · 열린A
“범행 후 새로운 속옷 입혔다”...화성 8차도 이춘재 짓
[박준영 / 윤모 씨 법률대리인(그제)] “이춘재의 자백 내용을 들었을 때 윤모 씨의 자백은 피해자의 마지막 모습을 도저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경찰이 작성한 진술조서에선 윤 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한 질문도 다수 포함돼 있었습니다. 성매매를 한 적이 있는지, 여자와 교제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집요하게 묻는가 하면, “나 같은 불구자를 좋아 하는 여자는 없었다”는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박준영 / 윤모 씨 법률대리인(그제)] “수기나 타자기를 이용해 작성된 조서. 그 당시 경찰의 의도와 목적이 반영된, 어떤 계획에 의해 작성된 조서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림 9〉 기사에서 장애를 비하하는 용어 ‘불구자’를 사용한 경우
(채널A 2019.11.15.)

보도에서 ‘불구자’라는 용어는 ‘몸의 어느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장애인을 비하하는 말로 인식되어 사용하지 않는 용어다. 따라서 기사에 쓴 ‘불구자’는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해당 용어가 인용문이라는 점이다. 기사 흐름상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본부는 담당 기자에게 법정 용어인 ‘장애인’을 사용할 것과 유사한 내용을 방송할 때 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의 수정을 요청하는 작업에서 그치지 않고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송하여 기자들이 기사 작성시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에 신문사 기자 235명과 방송사 기자 45명에게 배포되었다.

방송사 뉴스는 신문사와 달리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는 방송이 끝나 뉴스 기사의 사후 수정이 어렵다는 점이다. 물론 신문 기사도 사후 수정이기는 하지만 방송사보다는 어느 정도 수정이 용이하다. 때문에 방송사에 대해서는 수정요청보다 주의요청이 적당하다 할 것이다.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법적용어 (올바른 용어)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장애자·심신장애자	애자·불구자·병산·불구	장애우	장애인	
맹인	애꾸눈·외눈박이	장남·소경·봉사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말더듬이·병어리		언어장애인	
	언청이		안면장애인	
정신지체안·정신박약자	백치·저능아		지적장애인	
지체부자유자	편마·결름발이·아은병아·불구자·곱추		지체장애인	
간질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부적절한 표현	올바른 표현
장애를 앓다	장애를 갖다
결름발이 ○○	불균형적인·조화롭지 못한
귀머거리 삼년·병어리 삼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꿀 먹은 병어리	말문이 막힌·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병어리 냉가슴 앓다	가슴앓이하다·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병어리장갑	손모아장갑·엄지손장갑
장님 꼬끼리 다리 만지기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주먹구구식
눈 뜬 장님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눈먼 돈	대가없이 얻은 돈·임자(주인)없는 돈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편파적인 시각
외눈박이 방송	편파 방송

※ 올바른 표현은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용

〈그림 10〉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언론 모니터 활동의 장점은 기자와 소통을 통하여 어떤 것이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인가 하는 것을 알려 주고 이를 통해 기자들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수정요청과 주의요청을 받은 기자들은 인터넷에 등록된 해당 기사를 수정하였을 뿐 아니라 답신 메일을 통해 “앞으로 기사 작성시 주의하겠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수정 요청받은 내용을 <독자투고>란에 게재하여 독자들의 주의를 환기시키기도 하였다.⁵⁾ 이런 차원에서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모니터 활동은 바람직한 활동이며, 계속 시행돼야 한다.

Ⅲ. 나가며

2019년도 뉴스 기사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 결과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가 신문에서는 2,892건으로 나타나 이 중 235건 기사에 대해 수정요청을 했다. 방송사 모니터링은 45건 보도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기자들에게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을 제작 발송하여 기사 작성시 참고하도록 하였다.

2019년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들이 여과없이 그대로 뉴스에 노출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치인의 비하 발언과 언론 보도, 장애인단체의 사과 요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몇 차례 되풀이 되었다. 일부 매체에서 정치인의 잘못된 장애인식을 비판하고 수정하려는 노력들을 하였지만 잠깐이었다. 또한 모니터 통계에서 보듯이 언론인 자신들의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은 계속되었다. 때문에 우리는 언론사의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2020년은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선거유세과정에서 후보들이 장애인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언론에서 여과없이 보도한다면 그것은 장애 차별의식을 없애려는 장애인과 시민단체의 노력에 찬

5) [조선일보를 읽고] ‘꿀 먹은 병어리’는 장애인 비하표현, 독자의견. 조선일보, 2019.04.18.



물을 끼얹는 결과가 될 것이다. 사회적 편견과 거부감을 바로잡고, 인권·평등 사상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측면에서 언론에 대한 모니터링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2019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기획모니터 1

1. 언론으로 본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송경재(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2. 제39회 장애인주간 언론 모니터링

김철환(장애인백허물기 활동가)

언론으로 본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2017~2019년 빅카인즈 뉴스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송 경 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I. 장애인에게 다가온 4차 산업혁명

20세기 인터넷의 등장은 인류에게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통신기술(ICT)의 편리성을 동시에 알려주었다. 1993년부터 일반인에게 상용화된 인터넷은 짧은 기간 내에 인류의 삶과 사회·생활·문화 전 영역을 새롭게 재규정하고 있으며, 이제는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으면 오히려 불편한 사회로까지 되었다. 그만큼 정보통신기술은 인류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에 캐나다의 정보사회학자인 아나벨 퀘엔하세와 베리 웰만(Anabel Quan-Haase and Barry Wellman)은 정보통신기술로 인류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로 진입했다고까지 평가하고 있다.¹⁾ 인터넷과 스마트폰과 같은 정보통신 기기로 연결된 초연결사회는 네트워크를 통해 사람-사람, 사람-사물, 사물-사물이 통신하여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정보혁명 과정에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기존 산업, 서비스의 융합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른바 정보통신기술이 기존 산업에 접목되면서 새로운 혁명적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변화가 단순히

1) Andrew Chadwick,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생활 영역이 아닌 산업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핵심적인 변화의 기술을 지칭하여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은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을 제시하였다.

과거 산업혁명은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이란 3번의 산업혁명기를 거치며 발전했다. 그러던 산업혁명이 이제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모든 산업이 융합하는 시대로 진입했다. 4차 산업혁명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제3차 산업혁명(정보 혁명)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혁명으로도 일컬어진다. 그동안 일반인들에게 다소 서먹했던 스마트한 정보통신기술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확산되는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한 것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그동안 정보혁명으로 축적된 정보통신기술이 기존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면서 새로운 사회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 World Economic Forum)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융합되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국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며, 결국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 등 거의 전 분야에서 변화가 나타날 것을 예견했다.²⁾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진화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동반한다. 한편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을 제시하면서 보다 풍요로운 물질적 토대위에 인간의 수명은 증가하고, 삶의 여가 역시 증가하는 새로운 전환기라고 진단한다. 이런 입장을 강조한 이들은 기술적인 낙관론에 근거한 풍요로운 미래를 제시한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비관적인 시각에서는 오히려 인간의 노동력이 필요 없어지고, 인공지능(AI)과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여 실업이 증가하고, 특정 분야에서 인간의 역할은 축소될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고도로 발전한 정보통신기술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많아 이른바 국가에 의한 감시만이 아니라 개인에 의한 감시, 기업에 의한 감시가 일상화될 것을 우려한다.

이처럼 아직 4차 산업혁명의 후폭풍에 대한 시각은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다. 그렇지만 4차 산업혁명의 미래를 낙관적이나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들도 공통으로

2) 클라우스 슈밥, 송경진 역,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 새로운현재, 2016.

주목하는 것이 있다. 바로 인공지능, 로봇, 스마트 기술, 자율주행 등의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발전이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이들과 후천적으로 장애를 갖게된 이들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WEF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약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동안 장애인에게 정보통신 기기 이용은 일종의 장벽이 존재했다. 특히, 신체적인 장애가 있으면 모니터를 보거나, 자판을 두드리거나, 마우스를 이동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정보불평등이 야기되고 정보접근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등장은 전통적인 장애인 정보격차(digital divide)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과 로봇, 생명공학, 나노공학 등의 발전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부분을 어느 정도 해결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서비스가 등장하고 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어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정보기술 혁신을 포용하는 정도가 국가 사회 발전의 주요 척도가 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한다. 이러한 관심은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 로봇의 등장에 따라 장애인에 특화된 케어로봇, 스마트 지팡이(Smart Cane)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매년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소비자기술협회(CTA : Consumer Technology)가 주관해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가전제품 박람회인 ‘국제전자제품박람회’가 개최된다. 국제전자제품박람회는 우리나라에서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로 더 잘 알려진 박람회이다. 1967년 뉴욕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성장을 거듭하며 세계 최대의 가전전시회로 성장했다. 이 CES에서 최근 화두는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이다. IoT(사물인터넷)과 드론, 자율주행차 등도 화제를 모았지만 2016년 이래 꾸준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디지털 헬스케어와 장애인 관련 제품들이다.

실제로 CES 2018에서 혁신상을 받은 오캠(ORCAM)의 오캠 마이아이



2(ORCAM MyEye 2)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시각장애인이나 저시력 장애인에게 인공 시각(artificial vision)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디링(The Dring)의 스마트 지팡이는 스마트 홈과 연동되는 단순 추적과 안전기기를 통합한 제품이다. 스마트 지팡이에는 센서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모듈이 손잡이에 장착돼 있어 위치를 추적하고 이용자가 넘어질 만한 곳에 있으면 경고하거나 그 지역을 벗어나도록 유도하며 지팡이나 사용자가 넘어지면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주변인에게 연락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화두가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적인 정보통신기술 발전이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인에 미치는 중요한 변화에 주목하여 한국에서의 관심도를 언론보도 건수로 측정하여 관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준비되었다. 기실 주요 선진국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이 산업과 경제적인 변화만이 아닌 삶의 변화에 주안점을 두고, 특히 장애인 삶의 질의 변화까지 고려한 새로운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 일반에 대한 논의에만 한정되어 장애인의 적용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활용 문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4차 산업혁명이 단순히 사회경제적 변화가 아니라 장애인복지와 장애인 사회참여, 자립을 확장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가능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언론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준비되었다. 물론 언론 기사화가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나 기술발전의 수준을 모두 보여주지는 못할 것이지만, 언론의 뉴스가 한 사회에서 관심사의 수준을 파악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보고서의 구성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먼저 I 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제기된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신기술의 변화에 주목하고 한국 언론 보도뉴스 모니터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II 장은 구체적으로 한국 언론들의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뉴스를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뉴스 빅데이터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했다. III 장은 세부적인 분석을 하였다. III 장은 크게 3부분으로 구성했다. 먼저 1절은 2017년~2018년까지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관련 뉴스를 분석한다. 2절은 2017

년~2018년 기간 동안 4차 산업기술이 소개되고 있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관련한 장애인 관련 뉴스를 분석한다. 그리고 3절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특화하여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관련 뉴스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마지막 IV장은 연구의 요약과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 II. 분석 방법론

이 보고서에서 뉴스 분석을 위해 연구는 국내 최대 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BIG KINDS)>를 이용했다. 그리고 보조적으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간의 검색어 연관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 검색어 트렌드를 살펴보았다.

먼저, 분석을 위한 방법론은 국내 주요 언론뉴스 빅데이터 플랫폼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를 이용한 뉴스검색 데이터와 분석결과 시각화를 시도했다.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의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접목해 만든 새로운 뉴스 분석 서비스이다. <빅카인즈>는 1990년부터 현재까지 53개 매체의 약 6천만건 뉴스 콘텐츠를 구축한 명실상부한 뉴스 빅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³⁾

한편 <빅카인즈>는 검색서비스와 함께 형태소, 개체명, 연결망 분석 등을 제공하고 있어 본 보고서에서는 이를 활용하여 기본적인 서비스인 뉴스검색과 연결망 분석 등을 보완하여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뉴스 생산의 추이와 특징을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언론은 <빅카인즈> 검색이 가능한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전문지 등 5개 영역을 망라했다. 전문지의 경우 디지털타임스와 전자신문 2개에 불과하지만, 분석의 필요성이 있어 추가하였다. 보고서는 뉴스검색과 연결망 분석, 추출된 뉴스를 필터링하여 관련 뉴스 관계도, 연관어 등 세부분석 절차를 진행할 것이다. 우선 첫 단계로 <빅카인즈>의 기본 뉴스데이터를 추출하여 기본 분석을 시행하고, 연관어를 워드 클라우드(word

3) 한국언론진흥재단. <https://www.bigkinds.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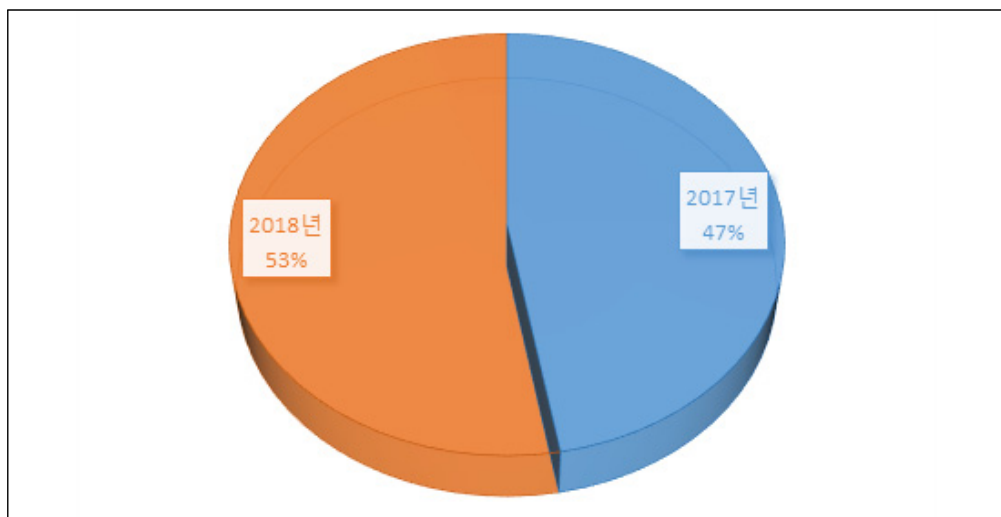


cloud)로 도식화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과 장애인과 연관된 신문사 보도의 추세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다음 단계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뉴스를 별도로 추출하여 관련 뉴스에 관한 2차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 분석 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의 기간을 정했다.

Ⅲ. 분석

1.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관련 뉴스 분석(2017~2018년)

먼저,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에 대한 뉴스 검색 결과는 107,933건이었다. 2017년은 50,942건, 2018년은 56,991건으로 2018년 뉴스량이 조금 증가했다.



〈그림 1〉 “장애인” 뉴스검색결과 (2017년~2018년)

다음, “장애인” 검색어로 도출된 107,933건의 뉴스에 관한 관계도를 분석하면 다양한 행위자들이 장애인 관련 뉴스에 오르내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정당과 중앙정부, 지방정부, 언론사 등이 관계를 맺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뉴스를 생산한 신문사는 경향신문이 19건, 국민일보와 서울신문이 18건이었고 내일신문 17건이었다. 경제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뉴스량이 많았는데, 이는 4차 산업혁명이 주로 경제적인 차원에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어서 뉴스생산량 자체가 종합일간지보다 약간 많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머니투데이가 7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아시아경제가 55건으로 다른 경제지나 종합일간지보다 현저히 많은 뉴스량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지인 전자신문은 관련 뉴스가 동일 기간 동안 25건, 디지털타임즈는 12건을 생산했다. 그리고 지역종합지 중에서는 중도일보가 4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일보 25건, 대전일보와 충청투데이 21건으로 나타났다. 이들 4개 지역종합지가 분석기간 동안 20건이 넘는 관련 뉴스가 생산되었다.

〈표 1〉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검색결과(2017~2018년)

종합일간지		경제지/방송사/전문지		지역종합지	
경향신문	19	매일경제	29	강원도민일보	1
국민일보	18	머니투데이	71	강원일보	0
내일신문	17	서울경제	15	경기일보	25
동아일보	7	아시아경제	55	경남도민일보	3
문화일보	5	아주경제	30	경남신문	8
서울신문	18	파이낸셜뉴스	19	경상일보	13
세계일보	12	한국경제	19	경인일보	12
조선일보	3	헤럴드경제	37	광주매일신문	7
중앙일보	15			광주일보	10
한겨레	11	KBS	0	국제신문	9
한국일보	8	MBC	0	대구일보	7
		OBS	2	대전일보	21
		SBS	0	매일신문	3
		YTN	16	무등일보	10
				부산일보	3
		디지털타임즈	12	영남일보	5
		전자신문	25	울산매일	8
				전남일보	8
				전북도민일보	17
				전북일보	5
				제민일보	1
				중도일보	41
				중부매일	13

종합일간지		경제지/방송사/전문지		지역종합지	
				중부일보	15
				충북일보	4
				충청일보	6
				충청투데이	21
				한라일보	3

* 2017년 311건, 2018년 431건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연관어 분석으로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을 검색한 뉴스 중에서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하였다. 분석결과, 장애인과 연관된 뉴스는 인공지능이 가장 연관도가 높았으며, 사물인터넷, 일자리, 빅데이터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인 인공지능과 로봇기술이 장애인 케어가 가능하며 향후, 전망 있는 사업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림 4〉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뉴스 연관어 분석결과

2.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장애인 관련 뉴스 분석

해외에서 장애인 관련 신제품이 소개되고 있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와 장애인 관련 뉴스를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 보았다. 먼저,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대한 〈빅카인즈〉 뉴스검색 결과는 9,935건(2017년 1월 1일~2018년 12

월 31일) 이었다. 2017년 4,627건, 2018년 5,308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기간에 가장 뉴스량이 많았던 신문사는 매일경제 1,021건, 전자신문 957건, 서울경제가 943건이었으며 그 뒤를 한국경제 778건, 머니투데이 757건의 순이었다. 역시 경제지와 전문지의 뉴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전자제품박람회”와 “장애인”에 대한 뉴스검색 결과는 116건이었다. 2017년에는 37건, 2018년에는 79건이었다. 연관어 분석결과 전체 표본이 많지 않아 유의성은 낮다고 할 수 있지만 주로 CES에 참가한 기업들과 장애인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스마트 글러브, 웨어러블 기기, 색각이상자, 재활훈련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장애인 케어를 위한 신제품과 관련된 뉴스가 다수 발견되었다. 특히 삼성전자와 시각보조 솔루션 릴루미노 등이 주목을 받았다. 결과 중 분석 뉴스와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시각화한 워드클라우드를 재구성하면 다음 <그림 5>와 같다.



〈그림 5〉 “CES”와 “장애인” 뉴스 연관어 분석결과

마지막으로, 2017년~2018년 CES와 관련된 국내 언론사의 뉴스 내용분석 하였다. 뉴스 중에서 “장애인”과 “CES”란 단어가 단순 연결된 뉴스를 제외하고 의미 있는 뉴스를 16건 추출하였다. 관련 뉴스를 종합일간지와 경제지가 망라되어 있었으며 주요한 뉴스는 CES 행사 동안의 새로운 장애인 관련 혁신제품에 대한 소개의 기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관련 뉴스는 CES가 1월에 열린 이후 1/4분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적 혁신에 대한 소개와 함

계 국내기업의 동향을 주로 다루고 있다. 가장 많은 비중은 역시 신제품 동향으로 스마트 글러브, 시각장애용 웨어러블 컴퓨터 등(머니투데이 20181221, 서울경제 20170422, 문화일보 20170420)을 다룬 뉴스였다. 그중에서 장애인의 신체적인 어려움을 보조할 수 있는 웨어러블 컴퓨터 소개 뉴스가 다수였다. 이와 함께 기존 제품 개발과 장애인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다기능 전자제품의 개발 등도 뉴스에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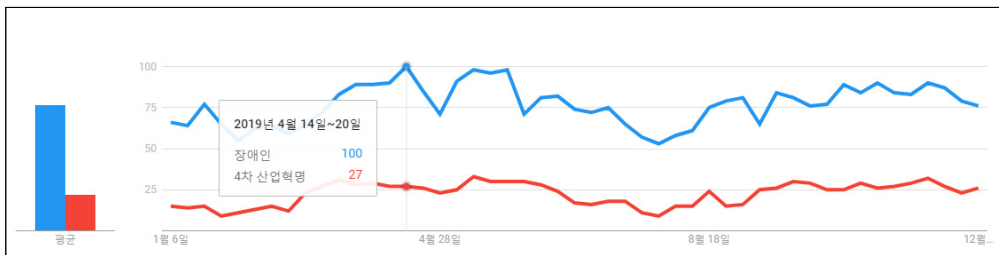
〈표 2〉 “CES”와 “장애인” 뉴스 내용 요약(2017~2018년)

일자	신문사명	구분	제목
20181221	머니투데이	경제지	[단독]삼성전자, CES서 ‘의료용 웨어러블 로봇’ 첫 공개
20180515	아주경제	경제지	삼성 패밀리허브로 인간공학디자인상 ‘그랑프리’ 받아... “사용자 중심 냉장고”
20180116	국민일보	종합일간지	美 ‘AI’ 주도, 日 中 ‘로봇’ 두각 CES서 드러난 4차 혁명 경쟁구도
20180115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삼성전자, 가장 잘 하는 기술로 사회 공헌
20180112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CES 2018] 코맥스 “아마존, MS 직접 만나 협업 타진 가장 큰 성과”
20180108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시각장애인이 주인공인 영화 ‘두 개의 빛’ 조희 수 2000만건 돌파
20180103	중앙일보	종합일간지	피부상태 보는 AI사진기, 앞 사람만 듣는 스피커
20180102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삼성전자 C랩 혁신 아이디어 올해 CES도 출린다
20180102	중앙일보	종합일간지	목에 걸면 360도 촬영하는 카메라 CES 가는 삼성 C랩 스타트업
20171227	아주경제	경제지	삼성전자, 새해 신제품 스마트 TV, 시청각 장애인 접근성 대폭 강화한다
20170602	머니투데이	경제지	웨어애편제 네오펙트, 재활솔루션 기부캠페인 성료
20170422	서울경제	경제지	만지면 정보가 다보여 눈길 잡는 시각장애용 웨어러블
20170420	문화일보	종합일간지	원격의료 규제탓 병원연동 홈케어 제품 판매 난항 국내선 손꼽는 ‘스마트 글러브’
20170420	서울경제	경제지	만지면 정보가 다보여 눈길 잡는 시각장애용 웨어러블
20170122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스마트폰 10년 “SW가 블루오션이다”
20170122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스마트폰 10년 ‘모바일 라이프’를 재설계 하라



3. 2019년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연관 뉴스 세부분석

2019년의 장애인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를 분석하기에 앞서 전체적인 장애인 관련 관심도를 파악했다. 인터넷상의 관심도는 검색어 순위를 통해 추론하는 방법을 활용했다. 이를 위해서 검색 포털 구글(Google.com)에서 제공하는 검색어 트렌드(Google trend)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했다.⁴⁾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키워드로 구글 트렌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림 6〉 구글 트렌드 검색 결과(장애인+4차 산업혁명)

2019년 동안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검색어는 검색엔진인 구글에서 많이 검색되었다. 그렇지만 비중에서 보면 확인되지만, 장애인을 검색한 비중은 77%이고, 4차 산업혁명을 검색한 비중은 22%에 불과하다.⁵⁾ 즉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을 같이 검색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경우가 2019년 4월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의 검색어가 27% 수준이었다. 이는 장애인을 키워드로 검색한 관심도가 100으로 산정하면 하위 키워드인 4차 산업혁명의 비중은 27%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 키워드 트렌드에서 확인이 되지만 아직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은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의 결합에 대한 관심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인터넷 검색에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결합 검색을 앞서의 분석과 같이 〈빅카인즈〉를 대상으로 살펴보았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1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장애인”을 검색어로 한 뉴스는 51,538건으로 나타났다. 2017년은 50,942건, 2018년은 56,991건에 비교하면, 2019년 11월 30일까

4) 구글 트렌드 <https://trends.google.co.kr/trends/?geo=KR>

5) 구글 트렌드 수치는 특정 지역 및 기간을 기준으로 차트에서 가장 높은 지점 대비 검색 관심도를 나타낸다. 값은 검색 빈도가 가장 높은 검색어의 경우 100, 검색 빈도가 그 절반 정도인 검색어의 경우 50, 해당 검색어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0으로 나타난다(구글 트렌드 <https://trends.google.co.kr>).

지 “장애인” 검색 뉴스량은 이미 2017년보다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관련 뉴스들이 증가한 것은 과거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증가함에 따라 뉴스생산량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사회·문화·경제 등 전 영역에서 단순 “장애인” 키워드를 추출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수치이다. 실제 장애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뉴스로 범위를 좁히면 그 수는 줄어들 것이다. 추세는 다음과 같이 상위 5개 언론사의 보도 건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3〉 〈빅카인즈〉 “장애인” 키워드 검색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종합지	방송사
국민일보 (1,602)	아시아경제 (2,599)	중도일보 (3,705)	YTN (724)
서울신문 (1,253)	머니투데이 (1,705)	충청투데이 (1,821)	KBS (334)
세계일보 (1,058)	헤럴드경제 (1,620)	경인일보 (1,747)	OBS (203)
한국일보 (1,017)	서울경제 (1,360)	중부일보 (1,644)	MBC (198)
경향신문 (943)	매일경제 (1,266)	충청일보 (1,639)	SBS (107)

종합일간지는 국민일보가 가장 많은 “장애인” 키워드 관련 뉴스를 보도했는데 1,602건이었다. 그리고 서울신문이 1,253건, 세계일보 1,058건, 한국일보 1,017건, 경향신문 943건의 순이었다. 12월을 제외하면 334일을 일평균으로 한다면 국민일보는 4.7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평균 “장애인”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뉴스가 4.70건이 생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많은 신문사가 일요일판을 인쇄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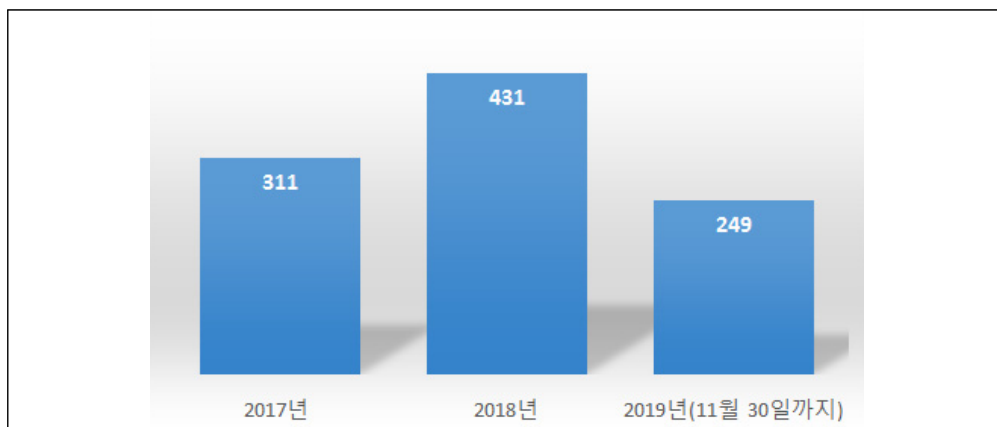
경제지는 더욱 많은 뉴스가 생산되었다. 아시아경제가 2,599건, 머니투데이가 1,705건, 헤럴드경제 1,620건, 서울경제 1,360건, 매일경제 1,266건이다. 역시 종합일간지보다 산업과 제품뉴스가 포함되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뉴스생산량이 더욱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방송사 역시 뉴스전문 방송사가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한 것으로 나타났다. YTN이 724건, KBS 334건, OBS 203건, MBC 198건, SBS 107건의 순이었다. 특징적인 것은 OBS가 MBC보다 장애인 관련 뉴스가 많았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가장 많은 “장애인” 키워드 뉴스를 보도한 곳은 지역종합지이다. 지역종합지는 중도일보가 3,000건이 넘는 뉴스를 보도했다. 상위 5개 언론사를 살펴



보면, 중도일보가 3,705건, 충청투데이 1,821건, 경인일보 1,747건, 중부일보 1,644건, 충청일보 1,639건 등이었다. 이렇게 지역종합지에서 “장애인” 관련 키워드 뉴스가 많이 생산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위하여 세부적으로 뉴스를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종합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동정과 관련뉴스에서 복지정책과 사회적 약자 정책을 소개하는 경우 장애인을 키워드로 다루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뉴스가 다수 작성되었다. 그리고 일부이지만 <빅카인즈>에서 중복 뉴스나 2보, 3보 형태의 동일 뉴스가 있어 아직은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문제점도 발견되었다.

연구를 확장하여 키워드를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뉴스를 추출한 결과 249건이 집계되었다. 같은 키워드로 2017년 311건, 2018년 431건이었다.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뉴스가 언론 상에서도 관심을 가진 주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 최근 3년간 <빅카인즈>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뉴스건수

2019년 11월까지의 249건의 뉴스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합일간지가 50건, 경제지가 76건, 방송사 9건, 전문지 18건, 지역종합지 96건으로 집계되었다. 방송사 뉴스가 상대적으로 두 키워드로 도출된 관련 뉴스량은 적었다. 종합일간지 중에서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한 신문사는 서울신문이 9건이었고, 내일신문과 중앙일보가 각각 6건이었다. 한편, 경제지는 76건 중에서 아시아경제 19건, 머니투데이 15건, 아주경제와 헤럴드경제가 공동으로 11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장애인 뉴스기사 중 4차 산업혁명 검색결과(249건)
(2019년 1월 1일 ~ 11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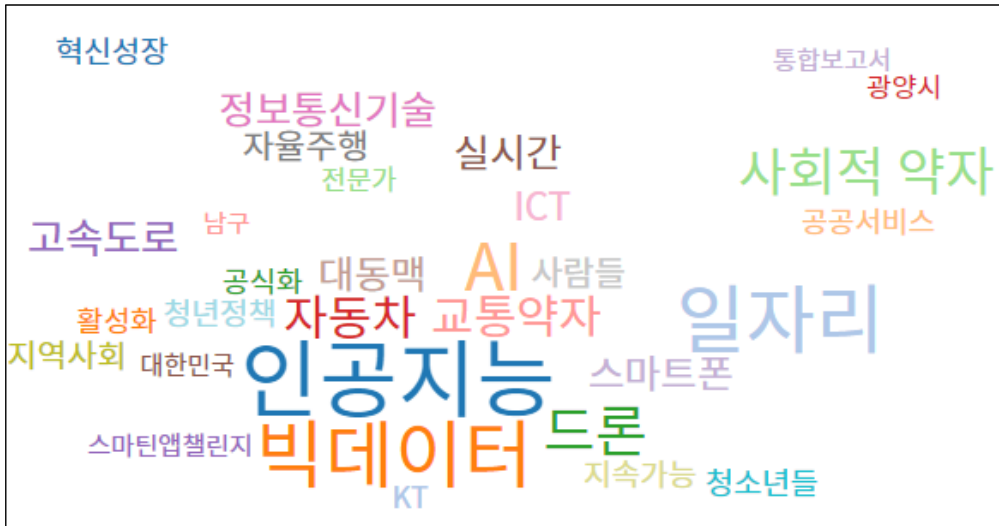
종합일간지 (50)		경제지/방송사/전문지		지역종합지 (96)	
경향신문	4	경제지	(76)	강원도민일보	2
국민일보	4	매일경제	5	경기일보	6
내일신문	6	머니투데이	15	경남신문	4
동아일보	5	서울경제	8	경상일보	1
문화일보	2	아시아경제	19	경인일보	6
서울신문	9	아주경제	11	광주매일신문	7
세계일보	3	파이낸셜뉴스	4	광주일보	7
조선일보	4	한국경제	3	국제신문	2
중앙일보	6	헤럴드경제	11	대구일보	2
한겨레	4			대전일보	2
한국일보	3	방송사	(9)	매일신문	3
		KBS	3	무등일보	4
		MBC	0	부산일보	7
		OBS	0	영남일보	1
		SBS	1	전남일보	4
		YTN	5	전북도민일보	3
		전문지	(18)	전북일보	2
		디지털타임스	4	중도일보	17
		전자신문	14	중부매일	2
				중부일보	4
				충청일보	2
				충청투데이	6
				한라일보	2

방송사는 YTN이 5건으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키워드 관련 뉴스의 양이 가장 많았다. 전문지는 전자신문이 14건, 디지털타임스는 4건이었다.

장애인 관련 키워드 뉴스량과 같이 지역종합지가 상당히 많은 뉴스를 생산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중도일보가 17건으로 가장 많은 뉴스를 생산했다. 그리고 광주매일신문, 광주일보, 부산일보가 7건의 순이었다. 지역종합지의 경우 지역 내에서 관련 뉴스에 따라 뉴스생산량이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지역에서 장애인과 관련한 정책과 4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뉴스가 많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빅카인즈>의 좋은 기능 중의 하나는 연관어 분석이다. 앞서 추출된 뉴스의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뉴스 중에서 연관성(가중치, 키워드 빈도수)이 높은 키워드를 <그림 8>과 같이 시각화하였다(300개 뉴스 연관어 분석).



〈그림 8〉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뉴스 연관어 분석결과(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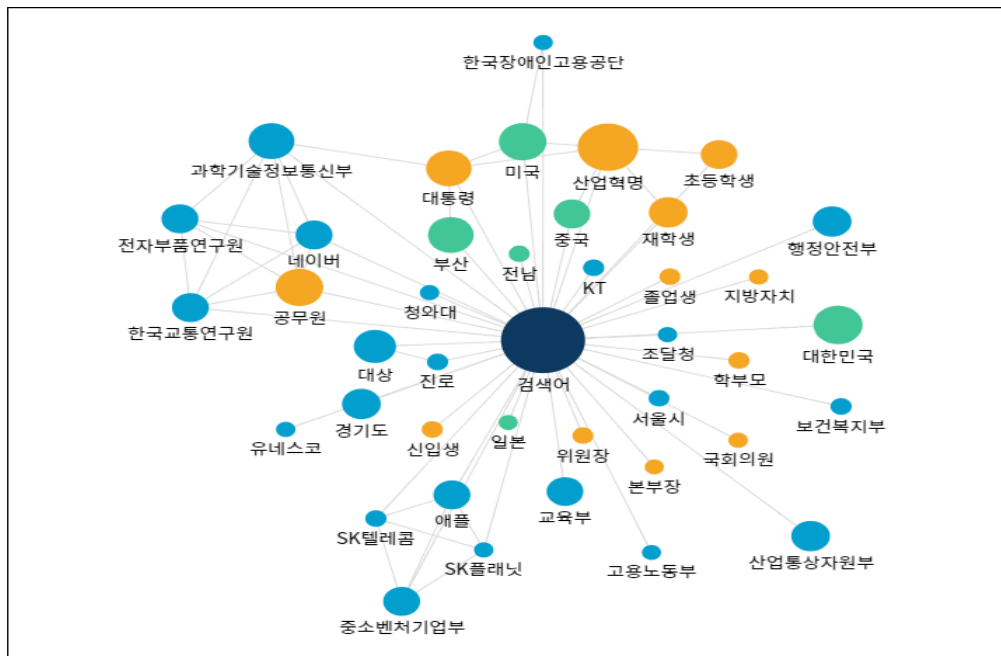
분석결과, 인공지능·빅데이터·일자리·AI·드론·사회적 약자·자동차·교통약자·고속도로·스마트폰 등 상위 10개가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뉴스에 자주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일부 지방자치단체 지명도 확인되는데 이들 지역에서 관련 정책이 발표되면서 뉴스생산량이 증가한 것이다.

〈표 5〉 상위 10개의 뉴스 연관어(2019년)

순위	키워드	키워드 빈도수	순위	키워드	키워드 빈도수
1	인공지능	156	6	사회적 약자	46
2	일자리	381	7	자동차	82
3	빅데이터	153	8	교통약자	28
4	AI	261	9	고속도로	42
5	드론	124	10	스마트폰	65

다음은 <빅카인즈>의 관계도 분석을 시각화했다. 관계도 분석은 검색 결과 중 정확도 상위 100건의 분석 뉴스에서 추출된 개체명(인물, 장소, 기관, 키워드) 사이의 연결 관계를 네트워크 형태로 시각화한 서비스이다.

관계도 분석결과에서는 주로 정부 기관이 많이 도출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강한 연관성이 있었다. 그리고 다른 상위의 관계도 역시 지방자치단체도 높은 비중으로 나타나 주로 2019년 언론뉴스가 정부의 장애인 정책 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에서 생산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계도 분석(상위 100건)

마지막으로 〈빅카인즈〉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키워드 뉴스 249건 중에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뉴스(26건)만 연구자가 추출한 뉴스만을 따로 분석했다. 분석결과 다수의 뉴스가 관련어로서 도출되었지만, 실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과 직접 연관된 뉴스는 매우 적었다. 그리고 일부 중복 뉴스도 발견되어 이를 삭제했다.



〈표 6〉 핵심 뉴스 추출 내용분석(2019년)

일자	신문사명	구분	제목
20190101	한국일보	종합일간지	IoT 접목 가로등, 사고 방지 특허
20190127	KBS	방송사	장애인 돕는 착한 기술 “택시 몰고 농장 가꾸고”
20190306	광주매일신문	지역종합지	광양시, 로봇산업 선도도시 육성 총력
20190322	내일신문	종합일간지	장애인돌봄 등 서비스로봇 1만대 보급
20190322	내일신문	종합일간지	휠체어 편한 길 안내해드려요
20190325	아시아경제	경제지	은평구, 전국 최초 드로이드 및 교통약자 이동경로 지원모델 개발 추진
20190325	국제신문	지역종합지	에코델타시티 물류 로봇이 실어 나른다
20190403	한겨레	종합일간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
20190426	전자신문	전문지	소외계층의 디지털정보격차, 정부와 기업이 함께 해결해 나아가
20190501	전자신문	전문지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공헌의 새 바람 기업의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한 교육과 기술지원으로 소외계층까지
20190508	매일경제	경제지	4차 산업혁명시대 의학 혁신 선도할 것
20190516	중도일보	지역종합지	안산시 단원구, 장애인 제4차 산업혁명 체험교육 실시
20190519	광주매일신문	지역종합지	국내 첫 인공지능 ‘치매 돌봄 로봇’ 뜬다
20190520	광주일보	지역종합지	광양시 ‘치매 돌봄 로봇’ 보급 나선다
20190522	중도일보	지역종합지	시흥시, 무료 4차산업 체험과 교육 실시
20190528	국민일보	종합일간지	방송인 심준구 목사, 국내 시각장애인 최초 원격 평생 교육원 설립
20190604	중도일보	지역종합지	성남도시개발공사,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무인 감시 시스템 시범 운영
20190621	아시아경제	경제지	은평구, 교통약자 온라인 길 안내 서비스
20190626	국민일보	지역종합지	장애인먼저,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신문보도 분석 발표
20190710	아시아경제	경제지	정원오 성동구청장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 포용 도시로서 제2 도약 준비”
20190730	전북일보	지역종합지	4차 산업혁명 대비 도내 특수교육 진로 직업교육 방향
20190825	YTN	방송사	IT는 사랑을 싣고...취약계층 편의 서비스 봇물
20190903	아주경제	경제지	서장원 넷마블문화재단 대표 “e스포츠로 장애인이 도전하고 꿈꾸는 문화 만든다”
20190911	경기일보	지역종합지	장애인과 가족의 친구가 될 반려로봇 감동이가 찾아 간다
20191002	서울경제	경제지	장애로 잊었던 꿈, 드론 통해 되찾았죠
20191122	중앙일보	종합일간지	“학생들의 열정으로 선한 영향력을 품다” STAC 2019 최우수상에 효자논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본 26건의 핵심 뉴스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개발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소식이 많았다. 2019년 1월 1일자 한국일보의 IoT 접목 가로등, 3월 6일 광주매일신문 광양시 로봇산업 선도도시, 3월 22일 내일신문 장애인 돌봄 서비스 로봇, 6월 4일 중도일보 성남시의 장애인 전용 감시시스템, 6월 21일 아시아경제의 은평구 교통약자 온라인 길 안내, 8월 25일 YTN 취약계층 서비스, 9월 11일 경기일보 장애인과 가족의 친구가 될 반려 로봇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다수의 뉴스 중에서 분석뉴스에서 장애인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이 부족함을 지적한 뉴스도 많이 발견된다. 2019년 4월 3일자 한겨레의 “4차 산업혁명 시대, 장애인은 보이지 않는다.” 칼럼, 4월 26일 전자신문 “4차 산업혁명 시대, 사회공헌의 새 바람 기업의 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한 교육과 기술지원으로 소외계층까지” 뉴스는 4차 산업혁명에서 장애인 관련 정책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미래지향적인 장애인복지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IV.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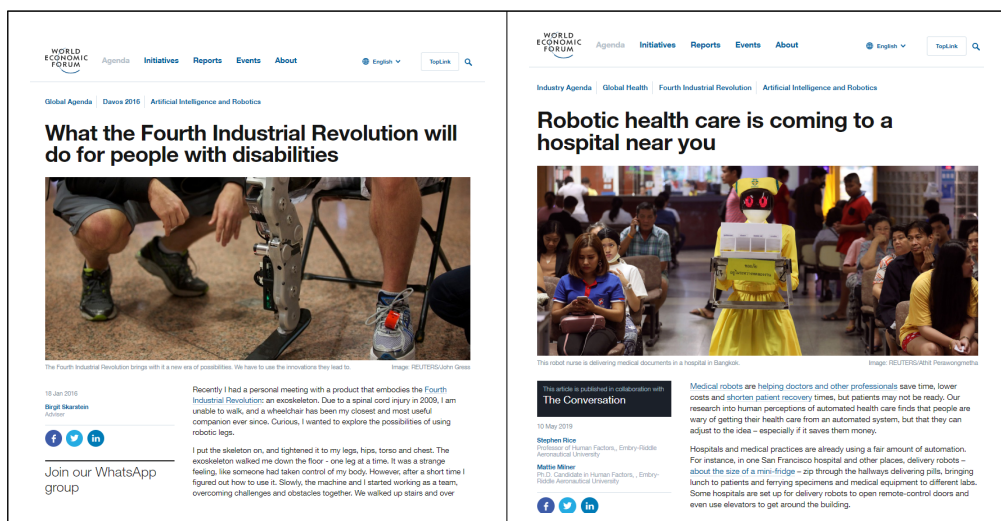
이상,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언론뉴스를 분석한 결과, 해외에서의 다양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아직 국내에서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장애인 분야로의 관심은 낮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2016년 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냈던 것은 헬스케어 분야였고 일부 제품이 혁신상을 받으면서 장애인 관련 분야가 4차 산업혁명의 수혜가 될 것을 기대했으나 아직 국내에서의 뉴스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CES 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진전은 노인, 장애인 등의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 활용의 신서비스 등장을 가속하고 있다. 이에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이용한 장애인 관련 제품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의 경우 4차 산업혁명의 담론이 경제성장이나 혁신 분야에 한정되어 다양한 차원에서



의 응용까지 확대되지 못한 감이 있다.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주요 종합일간지와 경제지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장애인, 노약자 등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개발에 전환점이 될 것이다. 기존의 특수한 제품의 개발과 설계라는 한계로 인해 낮은 시장성 등의 어려움이 존재했던 상황에서 딥러닝과 인공지능, 로봇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 돌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기회요인이 될 것이다. 이에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불이익 및 복지권의 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를 기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⁶⁾ 이를 통해 보편적 권리로서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여 스마트 복지(smart welfare)의 실현을 모색하고 있다.



〈그림 10〉 WEF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관련 연구보고서

가장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적 전환을 주창한 세계경제포럼은 지속적으로 4차 산업혁명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연구보고서와 칼럼을 주기적으로 게재하는 등 4차 산업혁명이 단순한 기술진전이 아니라 삶의 질을 개선하고 장애

6) 조영임·강석준·김남규·송경재·Altayeva, Aigerim·Giyenko, Andrey, ICT 패러다임 변화와 정보격차 종합계획 수립 방안 연구,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인의 사회적 참여를 확대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국내 언론에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장애인의 삶의 변화와 미래의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논의와 고민은 부족한 감이 있다.

이번 모니터 보고서는 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 도입이 장애인의 삶에 미치는 변화에 주목하고 언론에서 과연 어떻게 보도되는지를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는 언론 보도의 다수는 미흡한 수준이지만 장기적으로 장애인의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도입이 장애인의 사회적 생활을 향상시키고 생활의 질적인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전망이 다수 제시되었다. 앞으로 선천적 장애인보다 후천적 장애로 인해 고통을 겪는 다수의 장애인이 인공지능이나 스마트 기술, 자율주행 휠체어, 로봇, IoT 등을 활용한 사회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근사한 일이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사가 제고되면서 장애인의 활용에 대한 언론사의 뉴스는 2019년에는 11월 30일까지의 결과로 249건으로 2017년 311건, 2018년 431건 보다 하락했다.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아직 한국의 언론에서는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과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상 시대적인 흐름의 변화와 국내 언론뉴스와 관련한 분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아직 다수의 뉴스가 4차 산업혁명에만 한정되어 있으며 4차 산업혁명이 일으킬 사회의 변화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 특히 본 보고서의 주제인 장애인 관련 분야 역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연구와 보고서가 발표되고 있지만 이를 번역하는 뉴스조차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특히 세계경제포럼은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주제의 보고서가 계속 시리즈로 발표되고 있으나 아직 한국에서 이런 새로운 시도는 거의 소개조차 되지 않고 있다.

둘째,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뉴스 생산량은 늘어나지만, 여전히 정부나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또는 4차 산업기술정책 일부분으로 뉴스가 생산되고 있는 한계가 있다. 실제 뉴스 연관어 워드 클라우드나 관계도 분석에서도 확인되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뉴스 키워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 많은 언론사가 관심을 가지고 뉴스의 생산량이 증가는 했지만 아직은 관련 중앙정부 부



처나 지방정부의 정책 소개 차원에서 다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앞서 상황과 연계되어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뉴스 중에서 심층 보도나 분석 뉴스의 비중이 매우 낮은 한계가 있다. 일부 언론사에서 주요한 칼럼으로 장애인 정책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는 분석 뉴스가 있지만, 여전히 다수의 뉴스가 단순한 스트레이트 성의 보도에 머물러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언론사에서 좋은 뉴스 소재임에도 이에 관한 관심이 약간은 부족한 감이 있다.

넷째, 26건의 관련 뉴스 세부 내용분석에서도 확인되지만, 장애인의 관점에서 뉴스가 생산되기보다는 단순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시혜적인 뉴스가 많이 발견된다. 이는 여전히 뉴스작성 과정에서 언론인들이 장애인을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책과 기술의 시혜 대상으로 보지 않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 다수의 뉴스가 복지혜택, 그리고 기술발전으로 인한 도움 등에 주목하고 있지, 우리 사회가 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부재한 감이 있다. 물론 일부 뉴스에서는 다양한 차원에서의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기술 접목의 중요성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부족한 감이 있다.

이상, 2017년~2019년 동안 언론에서 바라본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관련 뉴스는 아직은 우리 사회의 장애인에 관한 관심 수준과 유사하게 낮은 편이다. 그런데도 과거와 비교하면 점차 뉴스생산량이 증가하고 사회적 관심도가 제고된다는 점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IoT 접목 가로등, 휠체어 편한 길 안내, 장애인 돌봄 로봇 등 예년과 비교하면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뉴스 생산이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일부 분석과 칼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의 사회참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발견된다.

요컨대, 최근의 언론사의 뉴스에서는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결합 가능성에 대한 시야를 넓혔다는 점에서 양적인 증가는 의미 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깊이 파고들어 언론사가 뉴스 형태로 세계적인 장애인 관련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과 한국의 노력을 소개한다면 국민의 인식도 제고에 이바지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아직 4차 산업혁명 일반에 대한 논의에만 한정되어 장애인의 적용과 사회

적 약자에 대한 활용 문제는 아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그리고 많은 언론사는 지면의 한계와 인적·물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 뉴스를 다루지 못하는 것은 있다. 언론사와 담당 기자들도 4차 산업혁명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뉴스화하여 사회 여론을 형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언론사와 기자들이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적용과 관련된 뉴스 생산에 더욱 나서주기를 기대한다.

제39회 장애인주간 언론 모니터링

김 철 환

장애인벽허물기 활동가

I. 들어가며

2019년 새해 벽두부터 장애인은 기대에 부풀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등급제를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예고를 했기 때문이다. 장애인등급제는 1988년 도입된 제도로 31년 만에 폐지가 된다.

하지만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주장해오던 장애인단체들은 정부가 시행하려는 등급제폐지 정책에 반기를 들며 접었던 집회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중/경증을 구분하는 수준의 “무늬뿐인” 폐지이고, 더욱이 예산의 확보가 안 되면 실질적인 정책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한편 4월 초순 대형 산불이 발생했다. 4월 4일 저녁 강원도 고성외 도로변 전선에서 생긴 불이 강풍을 타고 산으로, 주택으로 번지면서 큰 불로 확대되었다. 이 불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이 생겼고, 401채의 가구가 불에 전소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산불 초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는 재난방송을 뒤늦게 하는 등 재난방송사로서 책무를 하지 못하여 비난을 샀다. 특히 이 화제로 인하여 재난방송 초기 수어통역을 하지 않는 등 장애인의 재난대책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인터넷, 스마트폰 등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발달로 상대적으로 전통적인 언론매



체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에도 전통적인 매체들이 생산하는 생산물을 개인 매체들이 유통하거나 재생산하는 등 전통적 매체들의 영향력은 아직도 남아 있다.

언론매체의 기능 가운데 우선으로 꼽는다면 정보제공이다. 그리고 발생한 사건에 대한 분석이나 진단이다. 국민들의 삶에 활력을 주는 오락기능도 언론 매체의 기능 가운데 하나이다. 대중매체를 통한 구성원들의 생각과 가치관들을 공유하는 사회화 기능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언론으로서 정보제공을 우선순위에 놓을 수 있다. 앞서 강원도 산불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난 정보를 구성원들에게 신속,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것도 언론의 역할 가운데 하나이다. 언론들이 장애인에게 혹은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때 장애인의 사회 고립이나 국민들의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질 수 있다. 이는 사회화의 기능도 마찬가지이고, 장애인 문제에 대한 진단이 잘못되었거나 진단을 외면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많은 전문 기관들이나 장애인단체들이 언론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하는 이유이기도 한다.

장애인의 날 모니터링도 이러한 문제에서 출발한다. 장애인의 날 모니터링은 제 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으며 언론사별로 어떤 장애인 기사를 다루는지 살펴본다. 어떤 형태로 장애인을 다루는지,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등 장애인 정책들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는지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모니터링은 장애인의 날 주간동안 보도된 내용으로 하였다. 보도내용 가운데 경중에 따라 단순과 일반보도로 나누고, 내용별로 분류를 하였다. 그리고 언론사별로 보도량이 어떻게 되는지, 보도유형이 어떻게 되는지도 분석하였다.

□ II. 본론

1. 보도 내용 분석방법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언론 모니터링은 10대 일간지와 8개 경제지 총 1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언론은 판매부스와 대중적인 인지도를 고려하여 선

정하였다. 모니터링을 한 일간지로는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10개이다. 경제지로는 서울경제, 매일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8개이다.

모니터링은 장애인 주간인 4월 8일에서 4월 22일로 14일간 보도된 장애인 관련 내용으로 하였다. 모니터링의 방법은 각 언론사의 홈페이지에서 모니터링 기간을 설정하고 ‘장애인’ 등 장애인 관련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된 기사를 추출하였다. 경우에 따라 지면 신문을 활용 하였으나 편집의 구도를 보는 등 보완적으로만 사용하였다.

2017년 말 기준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광케이블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이 1위이다(행정안전부, 2017).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바일 보급률도 95%가 넘는 등(행정안전부, 2018) 인터넷과 모바일은 일상생활이 되었다. 모니터링의 통로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한 이유는 독자들의 뉴스를 접하는 방식의 변화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종이신문을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 2009년 29%대였던 정기 구독률이 2017년에 와서는 9.9%로 급격히 줄어들었다(언론진흥재단, 2018). 국민들이 언론보도를 종이신문보다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하여 접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모니터링의 통로를 언론사 홈페이지로 하였다. 모니터링의 기초분석은 수어통역사로 활동하는 ‘김공주’ 씨가 맡았다.

언론 보도는 먼저 단순보도인지 일반보도인지를 분류하였다. 단순보도는 보도 내용의 길이, 보도형태에 따라 알릴 수준을 넘지 않은 것으로 하였고, ‘인물/단체, 행사/수상, 사건/집회, 기타’로 나누었다. 일반보도는 주제별로 분류를 하였다. 일반보도와 별도로 언론사별 사설이나 논설은 하나로 묶고 외부 기고의 경우도 논설과 사설에 묶었다.

일반보도는 크게 ‘일반보도와 심층보도, 논설, 외부기고’로 나누었다. 일반보도 내용의 경우 장애계 이슈를 기본으로 하였다. 분류한 주제로는 ‘등급제폐지, 접근성/이동환경, 노동/일자리, 학습/교육, 인권/차별, 여가/건강/스포츠, 정보통신/기술, 장애인인식, 장애일반/정보, 종교/기타’이다. 그리고 내용 가운데 일반 국민이나 언론사들이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이 여전한 것을 감안하여 ‘조현병/정신질



환’의 내용도 별도의 주제로 분류를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예를 들어 인물을 소개를 하면서 장애인의 특정한 이슈를 다루는 경우나 이슈가 둘 이상의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인물”과 “이슈”가 겹치는 경우 비중이 높은 하나를 선택하였다. 이슈가 두 개 이상 겹치기는 하지만 중심내용이 있는 경우는 중심내용을 바탕으로 선택하였다. 둘 이상의 이슈를 각각 보도의 수로 분리하여 포함할 경우 그렇지 않은 보도의 수와 형평이 맞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검색과정에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검색되었으나 장애인의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기사는 제외하였다.

가. 연도별 보도의 양

2015년부터 5년간의 언론사의 장애인 관련 보도의 양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70건의 보도에 비하여 2019년 871건으로 5배 가량 늘었다¹⁾. 그리고 올해는 지난해 644건에 비하여 871건으로 대폭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모니터링 대상 언론이 14개이며 올해 18개인 것을 감안한다면 기사가 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지난해 기사 숫자가 언론사 평균 46개였고, 올해는 평균 48개로 지난해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표 1〉 연도별 장애인관련 보도의 양

연 도	2015	2016	2017	2018	2019
보도수	170	289	651	644	871
언론평균	12.1	20.6	46.5	46	48

나. 언론의 보도의 양 유형

언론사별 보도의 양을 보면, 아시아경제가 108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머니투데이 80건, 파이낸셜뉴스 76건, 국민일보 71건, 매일경제와 헤럴드경제가 각 55건 순이다, 일반보도(사설포함)는 머니투데이 33건, 서울신문 29건, 국민일보 26건, 아주경제 21건순이다.

1) 하지만 이는 양적인 증가의 측면을 본 것이다. 내용이 깊이 등 기사의 질적인 경중과 상관관계를 분석하지 않았으므로 ‘양적 증가가 질적 성장으로 이어진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표 2〉 언론사별 보도의 양과 유형

보도 유형	언론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계
		13	25	17	27	10	18	45	21	7	3	34	32	28	46	47	88	31	56	548
일반 보도	단순보도	13	25	17	27	10	18	45	21	7	3	34	32	28	46	47	88	31	56	548
	일반 보도	12	14	13	9	10	21	21	13	10	12	17	14	7	8	24	17	18	17	255
	심층 보도	4	2	3	-	-	7	1	-	2	5	2	3	0	1	8	2	3	3	46
	사설/ 논설	2	1	3	1	1	1	4	-	-	3	2	2	0	0	0	1	0	0	21
	소 계	16	17	19	10	11	29	26	13	12	20	21	19	7	9	33	20	21	20	323
누 계		31	42	36	37	21	47	71	34	19	23	55	51	35	55	80	108	52	76	871

지난해의 보도량과 비교를 해보면, 단순보도가 장애인 관련 보도 871건 가운데 548건으로 61%이다. 지난해의 단순보도 41%(장애인보도 644건, 단순보도 264건)보다 많은 수치이다. 일반보도의 전체의 양은 장애인 관련 보도 가운데 323건으로 49%를 차지한다. 이는 지난 해 일반보도 59%(380건)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다. 심층취재 등 보도의 양이 적었음을 뜻한다. 실제로 일반보도 가운데 심층보도는 2018년 52건인데 반해 2019년에는 46건으로 적다. 하지만 사설과 논설의 경우는 2018년 16건인데 비해 2019년 21건으로 조금 앞선다. 하지만 이러한 차이는 절대적인 비교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올해는 지난해와 달리 경제 관련 언론 4개가 추가되어 지난해와 단순한 비교는 절대화 할 수 없다.

다. 언론사별 보도형태

1) 언론사별 단순보도

언론사별 단순보도의 경우 장애인의 날 관련 행사 등이 전체 548건 중 335건으로 61%를 차지하며 가장 많다. 언론사별 단순 행사보도의 양은 아시아경제 58건, 파이낸셜뉴스 48건, 헤럴드경제 30건, 머니투데이 29건 순이다. 상대적으로 한겨레, 경향신문, 중앙일보 등이 단순 행사 보도가 적었다.



〈표 3〉 언론사별 단순보도

보도 유형	언론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계
단순보도	인물/단체	2	3	4	6	2	2	5	3	-	-	1	2	2	-	2	1	2	1	35
	행사/수상	3	12	7	7	4	10	21	10	3	2	27	25	15	30	29	58	24	48	335
	사건/집회	1	1	2	4	1	1	4	2	1	1	2	-	2	3	3	10	-	-	38
	단순/기타	7	10	6	10	3	5	15	6	3	-	4	5	9	13	13	19	6	7	140
누 계		13	25	17	27	10	17	45	21	7	3	34	32	28	46	47	88	31	56	548

단순보도 가운데 몇 개의 기사를 보자. 행사와 관련한 보도로 “교육부, 39번째 장애인의 날 맞아 ‘찾아가는 장애인해교육’ 실시”(머니투데이, 2019.4.18.), “장애 청소년 예술인 성장 돕는다... 봄꿈 3대 장학생 선정”(아시아경제, 2019.4.21.) 등이 있다.

아시아경제

장애청소년 예술인 성장 돕는다..봄꿈 3대 장학생 선정

원문보기 사회>장애인 IT_과학>IT_과학일반 2019-04-21 최대열

가 가 ★스크린 뉴스듣기 f t

[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한국장애인재단과 안선영 홍보대사는 장애청소년 장학사업 '봄꿈'의 세번째 장학생으로 이소정양을 선정했다. 이소정양은 지난해 평창 동계패럴림픽 개막식에서 '내 마음 속 반짝이는' 공연으로 주목받았다. 시각장애가 있는 이양은 그간 전문교육 도움 없이 음악인으로서 꿈을 키웠으나 이번 사업으로 전문 보컬·피아노 트레이닝, 멘토링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재단 측은 내다봤다. 20일 장애인의 날을 시작으로

〈그림 1〉 장애청소년 장학사업 ‘봄꿈’ 장학생으로 이소정양을 소개한 기사(아시아경제, 2019.4.21.)

인물/단체의 활동 등을 소개한 보도로 “휠체어 탄 장애인 7명, 드론축구로 자원 봉사·지역 홍보 앞장”(국민일보, 2019.4.17.), “문재인 구두 화제로 재창업 힘 얻었죠”(한국경제, 2019.4.12.). 장애인 주간에 발생한 장애인 관련 사건이나 집회와 관련한 보도로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실현 촉구하는 엄마들의 외침”(한겨레, 2019.4.18.), “수원역 일대, 장애인차별철폐 시위로 퇴근길 교통 정체”(머니투데이, 2019.4.8.), “배달의 민족, 시각·음성인식 기능 강화··장애인 접근성 ↑”(파이낸셜뉴스, 2019.4.19.) 등이 있다.



〈그림 2〉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장애인부모회 회원들이 장애 영유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달라는 외침(한겨레, 2019.4.18.)

2) 언론사별 일반보도

언론사별 일반보도는 고용, 교육 등 영역별로 구분하였다. 여기에 올해 시행되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사회적 편견이 가시지 않는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주제도 별도로 구분하였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제도는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그럼에도 장애인 주간에 보도되었던 기사 가운데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보도는 많지 않았다. 정신장애인과 관련한 보도는 단순 정보 전달성 보도를 제외하면 대체로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등장하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가 연관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성 보도와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알리기 위한 보도이다. 장애인주간에 보도에서는 전자의 기사보다는 후자의 기사가 몇 개 눈에 띄었다는 특징이 있다.

주제별로 보면, 장애인과 관련한 일반보도가 51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노동과 일자리 관련 보도 38건, 인권과 차별관련 보도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보도가 각 35건이다. 그 외 종교와 관련한 보도 25건, 정보통신과 기술관련 보도 24건, 접근성과 이동관련 보도가 23건으로 뒤를 이었다.

〈표 4〉 언론사별 일반보도

보도 유형	언론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계
일반보도	등급제 폐지	3	1	1	-	-	1	1	-	1	2	1	-	-	-	4	-	-	-	15
	접근성/이동환경	1	3	2	1	-	2	-	-	-	2	2	1	-	-	4	3	1	1	23
	노동/일자리	1	3	-	-	1	1	5	1	-	-	3	2	2	2	4	1	4	8	38
	학습/교육	2	1	1	3	2	1	2	1	-	1	1	2	1	-	1	-	-	-	19
	인권/차별	4	2	4	-	1	6	1	-	1	3	2	2	-	2	4	1	-	2	35
	여가/건강/스포츠	-	1	1	2	1	3	2	3	2	1	1	2	-	2	4	3	5	2	35
	정보통신/기술	1	1	1	1	1	1	1	3	1	1	1	3	3	-	1	1	2	1	24
	장애인 인식	1	1	-	1	-	2	2	-	2	-	2	-	-	1	3	-	2	-	17
	장애일반/정보	1	2	3	-	1	6	3	1	2	3	3	3	-	1	6	7	3	6	51
	조현병/정신질환	2	-	3	-	1	3	2	2	1	3	-	1	-	-	1	1	2	-	20

보도 유형 \ 언론사		경향신문	세계일보	한국일보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국민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서울경제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계
일반보도	종교/기타	-	1	-	1	2	2	3	2	2	1	3	1	1	1	1	2	2	-	25
누 계		16	16	16	9	10	28	22	13	12	17	19	17	7	9	33	19	21	20	302

언론사별 일반보도의 내용 가운데 몇 가지를 보면, 세계일보의 “피해자일 때는 무관심 ‘피고인’ 되니 나라 도움 받는 장애인”(2019.4.19.), “듣고 싶는데 들을 수 없어요. 시각장애인 막는 ‘인터넷 사이트’란 벽”(2019.4.20.), 중앙일보의 “휠체어 타고 도로 위 20분 필사의 탈출, 산불 속 소외된 장애인들”(2019.4.8.), “청각장애인 “산불 재난방송 보는데 가슴 타들어가…수어통역 없어””(2019.4.9.)이다. 이 가운데 장애인의 정보접근 관련 기사로 세계일보에서 다룬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 환경 기사를 들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재난방송에서 취약한 문제를 다룬 장애인 안전 관련 보도로 중앙일보의 보도를 들 수 있다.



〈그림 3〉 시각장애인 접근권 관련 보도(세계일보, 2019.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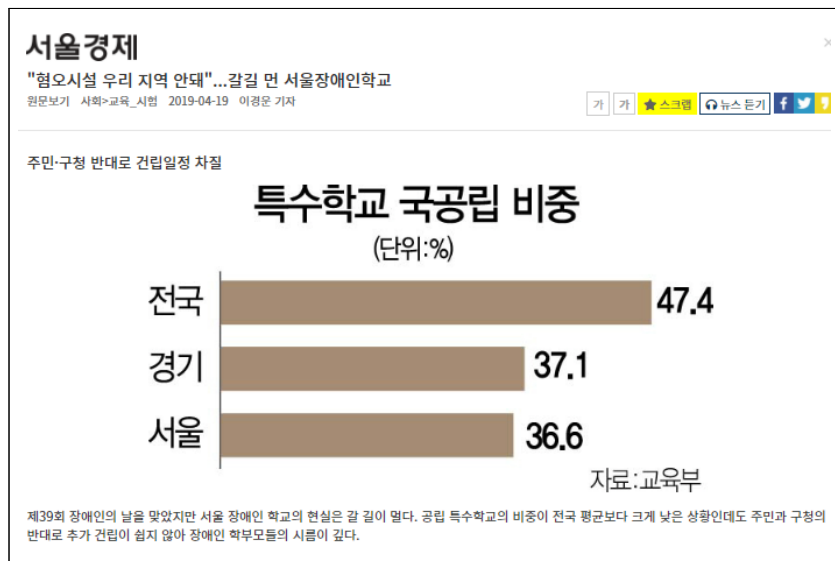
〈그림 4〉 산불 관련 재난보도에 수어통역이 없어 항의하는 청각장애인들(중앙일보, 2019.4.6.)

그리고 한겨레의 “임금 폐인 ‘염전노예’, 누굴 위한 소멸시효인가”(2019.4.19.), “자기결정권 없는 장애인 불임수술(2019.4.19.)” 등이 있다. 한국일보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시설 18곳뿐... 다른 장애인 시설 3390곳 이용 허용해야”(2019.4.9.), 조선일보의 “조현병 반드시 치료를... 범치는 병과 별개의 문제”(2019.4.17.) 등이다. 이 가운데 조현병이 막연한 공포의 대상이나 범죄의 동기가 아닌 치료 가능한 질병이라는 등 조현병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리려는 조선일보의 기사가 눈에 띄는 보도였다.



〈그림 5〉 조현병의 문제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보도(조선일보, 2019.4.17.)

서울신문의 “혼자서 정신질환자 100명 관리…위기관리는 꿈도 못 꾀다”(2019.4.19.), 서울신문의 “장애 정도에 구애 없이 동등 업무… ‘특별함’ 없어요”(2019.4.18.) 등도 일반보도이다. 서울경제의 “정신질환자 매뉴얼 있으면 뭐하나”(2019.4.19.), “혐오시설 우리 지역 안돼.. 갈길 먼 서울 장애인학교”(2019.4.19.) 등이다. 이 가운데, 서울경제는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의 문제를 주민들의 넘비현상으로 다룬 기사도 의미가 있는 보도였다.



〈그림 6〉 장애인학교 설립 반대를 다룬 보도(서울경제, 2019.4.19.)

일반보도로 동아일보의 “박양우 문체부 장관, 취임 후 첫 행보는 ‘장애인 체육 현장 의견 청취’”(2019.4.17.), “이상진 총장 “취업이 최고의 복지… 지역사회와 상생, 발전하는 대학으로”(2019.4.16.), 한국일보의 “휠체어 高3 “전교생 대피훈련 할 때 나 홀로 교실에””(2019.4.19.), 매일경제의 “현대차그룹, ‘수동휠체어 전동화키트 셰어링’ 서비스 확대”(2019.4.19.), 한국경제의 “장애학생 9만명인데 특수학교는 175개…주민 반발에 ‘진통’”(2019.4.19.), 헤럴드경제의 “장애인의 날 여기 어때 무장애여행지 12선 소개”(2019.4.20.), 머니투데이의 “출근하고, 영화관가고 남들처럼 사는게 꿈”(2019.4.19.) 등이다. 이 가운데 머니투데이 보도는 장애인의 환경이 비장애인처럼 직장을 갖고 문화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 등을 여러 주제로 엮어 기사화하였다.



〈그림 7〉 장애인이 겪는 문제를 다양한 주제로 엮어 보도한 기사(머니투데이, 2019.4.19.)

아시아경제의 “장애인도 편하게 영화 보고 싶다, 영화관, ‘장애인 배려’ 개선 될
까”(2019.4.19.), 아주경제의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장애인의, 장애
인에 의한, 장애인을 위한 ‘장애감수성’ 주력”(2019.4.14.), 파이낸셜뉴스의 “‘무
늬’만 장애인 화장실...배려는 어디에?”(2019.4.20.) 등이다. 이 가운데 파이낸셜
뉴스의 보도는 장애인 화장실 설치가 낮은 문제와 관리의 부실, 설치 장소에 대한
잘못된 정보의 기사를 다루고 있다.

[시골이름]

'무늬'만 장애인 화장실...배려는 어디에?

파이낸셜뉴스 | 일력 : 2019.04.20 09:29 | 수정 : 2019.04.20 10:15



사이트별 다른 정보로 혼란 야기
접이식 문, '사용 중' 표시에 이용하기 어려워
'휠체어 장애인'은 이용할 수 없는 화장실도 있어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도 불리는 이날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이들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로 39회를 맞이했다.



▲지하철 내 장애인 화장실의 실상을 살펴본다/사진=픽사베이

〈그림 8〉 장애인 화장실 문제를 다룬 보도(파이낸셜뉴스, 2019.4.20.)

3) 사설, 논설 및 칼럼

사설과 논설은 주제별로 고루 분포되어 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인식 관련 내용이 5건이며,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의 문제를 다룬 내용이 4건이다. 그 외에 차별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를 다룬 내용이 각 3건이다. 언론사별로 보면, 국민일보가 4건이며, 한겨레, 한국일보가 각 3건이다. 사설이나 칼럼이 없는 언론사도 7곳이다.



〈표 5〉 언론사별 사설 및 칼럼

언론사 보도 유형	경 향 신 문	세 계 일 보	한 국 일 보	동 아 일 보	문 화 일 보	서 울 신 문	국 민 일 보	조 선 일 보	중 앙 일 보	한 겨 레	매 일 경 제	서 울 경 제	한 국 경 제	헤 럴 드 경 제	머 니 투 데 이	아 시 아 경 제	아 주 경 제	파 이 낸 셜 뉴 스	계
사 설· 칼 럼	등급제 폐지	-	-	-	-	-	-	-	-	-	-	1	-	-	-	-	-	-	1
	접근성/ 이동환경	-	-	-	-	1	-	-	-	-	-	-	-	-	-	1	-	-	2
	노동/ 일자리	-	-	-	-	-	1	-	-	-	1	1	-	-	-	-	-	-	3
	학습/ 교육	-	-	1	-	-	-	-	-	-	-	-	-	-	-	-	-	-	1
	인권/ 차별	1	-	1	-	-	-	-	-	1	-	-	-	-	-	-	-	-	3
	여가/건강 /스포츠	-	-	-	-	-	1	-	-	-	-	-	-	-	-	-	-	-	1
	장애인 인식	1	1	1	-	-	1	1	-	-	-	-	-	-	-	-	-	-	5
	장애일반 /정보	-	-	-	-	-	1	-	-	-	-	-	-	-	-	-	-	-	1
	조현병/ 정신질환	-	-	-	1	-	-	-	-	2	1	-	-	-	-	-	-	-	4
	누 계	2	1	3	1	1	1	4	-	-	3	2	2	-	-	-	1	-	21

대표적인 사설과 칼럼으로는 한국일보의 “장애인은 불쌍하니 도와야 한다?... 함부로 규정하지 마세요”(2019.4.9.), 국민일보의 “[셋강에서-전석운]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2019.4.18.),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미래를 여는 희망”(2019.4.9.), 한겨레의 “국가의 책임을 묻다 / 박진”(2019.4.22.),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공신탁서비스가 필요하다 / 제철웅”(2019.4.15.)이다.

그리고 매일경제의 “‘이웃집 괴물’ 사건이 우리 사회에 던진 숙제”(2019.4.19.), “4월을 맞아 장애인고용 확산 기대”(2019.4.16.), 아시아경제의 “장애인들의 차별 없는 편리한 이동”(2019.4.18.), 경향신문의 “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위하여”(2019.4.16.) 등이다. 언론에 기재된 사설과 칼럼들이 하나같이 장애인

의 현실 등 문제를 잘 짚고 있다. 이 가운데 정신장애와 국가책임제(한겨레, 2019.2.22.), 장애인에 대한 편견(한국일보, 2019.4.9.), 포용사회에 대한 제안(경향신문, 2019.4.16.)도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다.



〈그림 9〉 정신장애의 문제를 국가책임제로 가야한다는 주장한 칼럼(한겨레, 2019.2.22.)



장애아 엄마, 세상에 외치다

“장애인은 불쌍하니 도와야 한다?... 함부로 규정하지 마세요”

입력 2019.04.09 04:40 | 28면 0단 | 좋아요 47개 | 댓글 0 | 공유 0

가 가

<24> 장애인식 개선



[저작권 한국일보]장애인은 도와야 할 불쌍한 사람일까요. 김경진 기자

편견에 기반한 동정·혐오 모두
자기만족에 불과한 폭력과 같아

〈그림 10〉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지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칼럼(한국일보, 2019.4.9.)

[기고]장애가 장애되지 않는 포용사회를 위하여

김판석 | 연세대 교수 전 인사혁신처장



입력 : 2019.04.16 20:38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고 천문기술 발전과 제도혁신을 도모한 눈부신 업적을 남겼다. 그는 또한 임신한 여자노비에게 산전휴가 30일과 출산휴가 100일, 남편에게는 출산휴가 30일을 주어 당시의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파격적인 복지제도를 소개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조선 시대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제도 설계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왕조실록과 역사연구 등에 의하면, 조선 태종 대에 설립된 명통시라는 장애인단체가 있었는데, 이는 독경사(경전을 읽고 외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로 활동하는 시각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해 나라가 설립한 조직이었다. 명통시에 소속된 시각장애인 독경사들은 국가행사에서 독경을 담당하고 대가로 쌀과 벼를 지급받았다고 한다.

평생 척추장애인으로 살았지만, 장애의 벽을 넘어 명성을 떨치며 귀감이 된 허조라는 분이 있다. 그는 고려 말에 문과에 급제하여



〈그림 11〉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안 관련 칼럼(경향신문, 2019.4.16.)

Ⅲ. 나오며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언론 모니터를 실시하였다. 모니터 대상은 지난해보다 4개의 언론이 늘어난 중앙일간지와 경제지 18개로 하였다. 모니터링 방법은 언론사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종이 신문을 사용하였다. 수어통역사 '김공주' 씨가 초안 분석을 맡았다. 모니터 결과, 장애인 관련 기사는 871건으로 지난 해 644건보다 대폭 늘었다. 하지만 모니터링 대상 언론이 지난 해 14개에서 18개로 늘어난 것을 감안한다면 기사가 많이 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언론사별 보도의 양은, 아시아경제 108건, 머니투데이 80건, 파이낸셜뉴스 76건, 국민일보 71건 순이다. 단순 보도의 경우 장애인의 날 행사 등이 전체 548건 중 335건으로 61%를 차지하고 있다. 언론사별로 보면 아시아경제 58건, 파이낸셜뉴스 48건, 헤럴드경제 30건, 머니투데이 29건 순이다.

일반보도의 경우 주제별로 보면, 장애인과 관련한 일반보도가 51건, 노동과 일자리 관련 보도 38건, 인권과 차별관련 보도와 여가 및 스포츠 관련 보도가 각 35건, 종교와 관련한 보도 25건 순이다. 사설과 논설은 장애인인식 관련 내용 5건, 조현병 등 정신장애인 문제 4건, 차별의 문제와 노동의 문제를 다룬 내용이 각 3건이다. 언론사별로 보면, 국민일보가 4건이며, 한겨레, 한국일보가 각 3건이다.

올해의 보도내용은 주제별로, 영역별로 특별히 편중되지 않고 있다. 특히 4월 초 강원도 일대에서 생긴 산불 관련한 보도들은 적절했다고 볼 수 있다. 아쉬운 점은 31년 만에 바뀌는 제도인 장애인등급제와 관련한 심층 취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장애 영역별로 문제점은 없는지, 장애인의 목소리는 어떤지 깊게 다룬 보도가 거의 없었다. 장애인 주간 이전에, 이후에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장애인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장애인주간에 이런 기사를 다루었다면 장애인 문제를 일반 국민과 공감하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다. 바꾸어 말하면 장애인 정책과 관련하여 현재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을 받아쓰는 보도를 넘어서지 못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을 남긴 모니터링이었다.

2019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기획모니터 2

1.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니터링

김태현(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2. 고령장애인 관련 보도내용 분석

신재민(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대리)

3. ‘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매뉴얼’ 기획모니터

서문원(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4. 초등학생 백일장 시 속에 나타난 20년 장애인 인식의 변화

방귀희(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언론에 나타난 ‘장애인표준사업장’ 모니터링

김 태 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I. 시작하며

장애인이건 비장애인이건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성인이 되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이다. 그 기본이 바로 경제활동인데, 이는 부모님이 부자가 아닌 이상, 임노동 활동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특히나 중증의 장애인인 경우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조차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이들 중 하나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다.

먼저 장애인표준사업장이란 경쟁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과 사회통합 기반을 조성하고 장애인 중심의 작업환경 기준을 제시하여 중증장애인 친화적(물리적, 정서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을 충족하여 공단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을 말한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장애인표준사업장 기준)에 따르면 장애인 10명 이상, 상시 근로자 중 장애인을 30% 이상(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중증장애인고용의무 차등 적용)을 고용,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을 갖추고, 장애인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¹⁾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일반적인 경쟁 노동시장에서 근로 활동이 쉽지 않은 중증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중 하나로 2002년도에 도입되어 시행 중이다. 표준사업장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 특히 중증장애인 고용의 기준이 가장 엄격하다는 면에서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표적 제도라고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의 표준사업장은 크게 일반형 표준사업장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먼저 일반형 표준사업장은 상시 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고 그 중 중증장애인을 상시 근로자 수의 규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하여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인데, 모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표준사업장의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 또는 운영할 경우 자회사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운영되는 사업장을 말한다.²⁾

II. 들어가며

모니터링의 기간은 2019년 1월 2일 ~ 2019년 8월 31일까지이고, 모니터링 방법은 각 언론사 홈페이지에서 제목 + 내용 '장애표준사업장'과 '장애인표준사업장' 두 가지 검색어로 검색한 결과 검색된 기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표 1〉 각 신문에 나타난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기사제목과 형태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경향신문	보도	SK이노베이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통해 장애인 고용 확대 나선다	6/28	경제일반
	보도	SK이노베이션 노사 “행복협의회 상설 운영”	7/29	기업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 2018 EDI 연구보고서 다이제스트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국민 일보	보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러시아 기업협의회, 장애인 표준사업장 발전방안 논의	3/6	시사
	보도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자회사형 표준사업장과 고용 확대 약정 러시	3/20	시사
	보도	웹젠, 장애인 고용위한 자회사 '웹젠드림' 설립...10인 고용	3/21	시사
	보도	웹젠, 자회사 웹젠드림 통해 장애인 10명 채용	3/24	시사
	보도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주)리빙우드 및 민속물산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 체결	4/2	시사
	보도	NHN, 세계 자폐인의 날 기념해 사옥에 '푸른 전구' 그린다	4/2	시사
	보도	장애인 고용공단 서울동부지사, 동구발 등 4개 업체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약정 체결	4/3	시사
	기고	스페셜리스트 발달장애인, 이제는 고용할 때	4/9	시사
	보도	코리아경기도(주), (주)이베이, 장애인고용공단 손잡고 판로활성화 협약	5/3	시사
	보도	포스코휴먼스, 장애인 인터쉽 프로그램 운영	5/8	시사
	보도	웹젠 자회사 '웹젠드림',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5/10	시사
	보도	장애인고용공단, 사회적기업 (주)청밀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체결	5/21	시사
	보도	시각장애인에게 “눈뜬장님이나”...알고보니 정부 지원 받는 사업장	5/29	시사
	보도	장애인고용공단, 건국대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업무 협약 체결	6/12	시사
	보도	웹젠, '청소년 코딩공작소' 등 인재 키우기 주력	6/17	시사
	보도	OCI(주), 고용공단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협약	6/18	시사
	보도	SK이노,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키움' '행복디딤' 개소	6/23	시사
	보도	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 JS오토모티브(주)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6/25	시사
	보도	장애인고용공단, SK하이닉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발달장애인 직무개발 성공	6/25	시사
	보도	케이디텍, 장애인 및 시니어 고용 200명 돌파	7/1	시사
	보도	엔씨소프트, 장애인 고용 위한 표준사업장 인증 취득	7/8	시사
	보도	웹젠, 자율출근제 등 '워라벨' 추구하며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7/25	시사
	보도	SK이노베이션, 단체협약 타결	7/29	시사
	보도	단협 타결 '미소 짓는 SK이노베이션 노사'	7/29	시사
	보도	SK이노베이션, 단체교섭 3주만에 타결	7/29	시사
	보도	협력업체까지 돕는 단협 조기 타결한 SK이노베이션 노사의 비결은?	7/29	시사
	보도	SK이노, 노사 최단기간 단협 합의... 제안과 배려 통했다	7/30	시사
	보도	장애예술인 1만명 취업 시대 열리나	8/18	시사
	보도	방귀희 교수 “국회 계류 중인 장애예술지원법 통과” 공개 요구		
	보도	장애인고용공단, SK텔레콤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8/22	시사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동아 일보	보도	'골프존 DNA'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 사회적 소외계층-취약계층 '열린 채용'	4/1	비즈니스
	보도	한국타이어, 11년간 사회복지기관에 車447대 제공	4/30	비즈니스
	보도	장애인표준사업장 '태건비에프' "직원 절반이 장애인... 출입구-화장실 문턱도 없앴죠"	6/18	비즈니스
	보도	약속 지킨 최태원... SK, 장애인 고용 늘린다	6/24	비즈니스
	보도	"한국의 우수한 장애인 고용정책 배우러 왔어요"	7/2	비즈니스
	보도	그룹 인사옥에 장애인 바리스타-매니저가 운영하는 사내카페 열어	8/30	비즈니스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문화 일보	보도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식	4/12	경제
	보도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발달장애인 고용 모범 사업장 성빈센트병원 방문	4/12	사회
	보도	개인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조절... 삶의 질 향상 → 업무성과 '선순환'	6/7	경제
	보도	30분만에 임협타결 SK이노 노사... 단협도 3주만에 끝냈다	7/29	경제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서울 신문	보도	"장애 정도에 구애 없이 동등 업무... '특별함' 없어요"	4/18	경제
	보도	효성, 임가가 행복한 일터... 육아 돕는 회사	5/27	경제
	보도	장애인·경단녀 취업 지원... 대기업들 포용적 일자리 창출 동참	5/28	경제
	보도	한국타이어엔테놀로지(주), 글로벌 리딩 기업으로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우선	8/12	경제
	인터뷰	"중증장애인으로 첨단사업 일할 수 있어... 직무 편견부터 깨야"	8/13	정책/행정
	보도	"장애인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78곳뿐... 설립문턱 낮춰 기업참여·고용 촉진"	8/22	정책/행정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세계 일보	보도	아워홈, 장애인 고용 활성화 앞장	4/19	경제
	보도	사회복지기관 차량 노후 타이어 교체[사회공헌 특집]	4/24	경제
	보도	전주시, 장애인이 일하기 좋은 표준사업장 설립	6/19	정책/행정
	보도	SK이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앞장	6/24	경제
	보도	SK이노, 단협 3주 만에 합의... 역대최단	7/30	비즈니스
	보도	SK텔레콤,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해 일자리 창출에 앞장	8/22	비즈니스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중앙 일보	보도	[도약하는 남양주] GTX 역 신설, 일자리 창출, 통합복지 구현...신도시, 신바람 물고온다	2/25	정책
	칼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장애인 고용으로 실현 가능	3/11	경제
	보도	[경제 브리핑] SK이노베이션,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장 열어	6/24	경제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한겨레	보도	SKT,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4/22	경제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한국 일보		기사 없음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조선 일보	보도	뉴딘파스텔,장애인 직업합창단 '골프존파스텔합창단' 오디션 성료	1/19	스포츠
	보도	GDR 직영매장 확대하며 400명 신규 채용키로	3/29	경제
	보도	사회복지기관 차량 노후 타이어 1만8852개 교체	3/29	경제
	보도	SK실트론, 50명 규모 장애인표준사업 자회사 설립	4/11	테크
	보도	SK이노베이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본격화	6/23	산업
	보도	SK이노베이션,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소식	6/24	산업
	보도	SK이노베이션 노사, 단체협상 갱신 타결	7/29	산업
	보도	SK텔레콤,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8/22	테크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서울 경제	보도	창립 77주년 맞은 넥센타이어, 글로벌 사회공헌 활동 펼쳐	5/3	사회
	보도	포스코휴먼스, 장애인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5/8	산업
	보도	OCI,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한다	6/18	산업
	보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정부·대기업 힘 모은다	6/19	산업
	보도	고용노동부, 삼성·현대차 등 17개 대기업과 '포용적 일자리' 창출 위해 협력하기로	6/19	사회
	보도	SK이노베이션, 장애인 일자리 창출	6/23	산업
	보도	SK D&C, 행복ICT 신사업 주역은 발달장애인 3인방	7/1	산업
	보도	엔씨소프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7/8	산업
	보도	최기동 부산고용노동청장, 장애인고용부진기업에 관심 촉구	7/19	사회
	보도	고용부·일자리위, SK하이닉스·셀트리온 등 100개사 '일자리 으뜸기업'으로	7/29	산업
	보도	SK이노베이션 노사모두 '미래' 초점...불필요한 소모전 없애	7/30	비즈
	보도	자금·컨설팅 '수혈'...청년기업 매출 70%씩	8/19	경제/금융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매일 경제	보도	제주항공 일자리우수기업	1/29	항공/해운
	보도	SK그룹, 장애인 고용 크게 늘린다	3/1	기업/경영
	보도	SK하이닉스, 사회적기업에 중고 노트북·프린터 등 기증(연합뉴스)	3/5	보건/복지
	보도	SK하이닉스, 물량 2배 늘려 PC·노트북 사회적 기업에 기증(더 팩트)	3/5	경제일반
	보도	SK하이닉스, 중고 PC·노트북 9569대 사회적 기업에 기증	3/5	전기·전자 ·통신
	보도	‘웹젠드림’ 발달장애인 10명 정규직 채용...‘꿈꾸는 숲’ 운영(게임)	3/21	비즈앤 컴퍼니
	보도	웹젠, 장애인 고용 위한 자회사 ‘웹젠드림’ 설립(연합뉴스)	3/21	컴퓨터/ 정보통신
	보도	웹젠, 장애인 고용 위한 자회사 ‘웹젠드림’ 설립(인포스타크 코스닥)	3/21	인포스타크/ 코스닥
	보도	웹젠, 자회사 웹젠드림 설립...장애인 사회활동 도움 목적(인포스타크 코스닥)	3/21	인포스타크/ 코스닥
	보도	웹젠, 자회사 ‘웹젠드림’ 설립...장애인 일자리 창출 지원 나선다(인포스타크 코스닥)	3/21	인포스타크/ 코스닥
	보도	발달장애인 자소모임 활성화한다...“사회적경제기업 발전 지원”(연합뉴스)	3/21	보건/복지
	보도	웹젠, 자회사 웹젠드림 설립...장애인 사회활동 도움 목적(인포스타크 코스닥)	3/21	인포스타크/ 코스닥
	보도	‘뮤오리진2’ 웹젠, 장애인 고용 위한 자회사 웹젠드림 설립(더 팩트)	3/21	더 팩트/게임
	보도	[청년이 미래다] SK하이닉스,4차 산업혁명 기술 선도...반도체 전문가 키우는 ‘SKHU’	3/22	테마기획
	보도	SK실트론 “장애인 일자리 확대로 사회적 가치 창출”	4/11	기업일반/ 재계동향
	보도	공공기관, 작년 장애인 생산품 2천673억원 구매...44% 증가(연합뉴스)	4/23	노동/노사
	보도	이베이코리아, 한국장애인고용공단·경기도주식회사와 업무협약	5/3	유통·섬유 ·음식료
	보도	이베이코리아, ‘文 대통령 구두’ 아지오 온라인 판로 지원(연합뉴스)	5/3	유통·섬유 ·음식료
	보도	포스코휴먼스, 발달장애 등 장애인 인턴 16명 채용(연합뉴스)	5/8	보건/복지
	보도	“사회적 가치 회계화”...최태원 SK 회장 실험 결과 공개된다(더 팩트)	5/18	경제일반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보도	전주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안정된 일자리 제공(연합뉴스)	5/27	행정/지자체
	보도	패러다임 바꿨다...공기업의 재발견 스타트업 발굴, 기업 해외진출 지원	5/31	집중기획
	보도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지원65곳 선정...일자리 481개 창출(연합뉴스)	6/12	사회일반
	보도	OCI,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MOU 체결(연합뉴스)	6/18	보건/복지
	보도	노동부-주요 대기업 "취약계층 포용적 일자리 창출 노력"(연합뉴스)	6/19	사회일반
	보도	SK이노베이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소 (연합뉴스)	6/23	보건/복지
	보도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해 장애인 '따뜻한 채용' 늘린다	6/23	기업일반·재계동향
	보도	양경준 크립톤 대표 "지방·소셜기업 육성해 스타트업 생태계 확산"(미라클 어헤드)	6/27	Insights
	보도	직장내 '왕따'법으로 금지...외국인 '건보 먹튀'도 막는다	6/27	경제일반
	보도	LG그룹, 31國 1600개 협력사 리스크진단...고위험 판정면 현장실사·컨설팅	6/28	테마기획
	보도	SK, 발달장애인 자립위해 'ICT인프라 예코사업' 집중 육성(연합뉴스)	7/1	과학기술/특허
	보도	최태원 회장의 진심...SK텔레콤, 하반기 '장애인 일터' 만든다 (더 팩트)	7/2	경제일반
	보도	엔씨소프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획득 (연합뉴스)	7/8	과학기술/특허
	보도	엔씨소프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획득 (게임)	7/8	비즈앤컴퍼니
	보도	엔씨소프트,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획득	7/8	인터넷/게임
	보도	[TF확대경]최태원 SK 회장 '장애인 고용'의지...그룹 차원 실천 속도 (더 팩트)	7/19	경제일반
	보도	[2019세법개정]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1년 더 연장 (연합뉴스)	7/25	경제일반
	보도	[세법개정 요약] ②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 (연합뉴스)	7/25	경제일반
	보도	웹젠, 근로자 일하고 싶은 회사...100대 일자리 으뜸기업 뽑혀 (게임)	7/25	종합·정책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보도	SK이노 노사, 단체협약 갱신 조인...77.6% 찬성으로 타결 (연합뉴스)	7/29	노동/노사
	보도	“노사 협상 프레임 혁신” SK이노, 첫 교섭 후 3주만에 단협 완전 타결	7/29	기업경영
	보도	SK이노베이션 노사, 단체교섭 프레임 혁신에 합의	7/29	화학·에너지
	보도	SK이노베이션 노사상생...단협 3주만에 끝냈다	7/29	기업일반·재계동향
	보도	전주시-기업 컨소시엄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추진 (연합뉴스)	8/15	사회일반
	보도	[게시판]SKT, 장애인고용공단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연합뉴스)	8/22	과학기술/특허
	보도	SK텔레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연합뉴스)	8/22	전기·전자·통신
	보도	[TF확대경] 최태원의 약속...하이닉스·이노 이어 텔레콤도 ‘장애인 일터’ 설립(더 팩트)	8/23	경제일반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보도	2014년 366명→2018년 774명 채용...제주항공 ‘일자리 창출 유공 표창’	1/29	항공우주
	보도	제주항공 “북극곰 함께 살려요”...탄소 줄이기 캠페인 확대	2/25	항공우주
	보도	SK하이닉스, 중고 ICT자산 기증해 사회적 기업 지원	3/5	경제
	보도	중구, 중소기업 안정 위해 20억원 푼다	4/2	경제
	보도	정수정 이랜드 중국법인 부대표 철탑산업훈장 수상	4/17	경제
	보도	아워홈,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고용률 연평균 69% 성장	4/18	생활경제
	보도	공공기관, 작년 장애인 생산물 구매액 2673억원...1년새 44% ↑	4/23	경제
	보도	넥센타이어, 창립 기념 주간 맞아 글로벌 사회공헌활동 전개	5/3	자동차
	보도	포스코휴먼스, 장애인 인터쉽 프로그램 운영	5/8	경제
	보도	고용부-대기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위해 ‘맞손’	6/19	경제
헤럴드경제	보도	고용노동부-대기업 17곳 ‘취약층 일자리 창출’ 맞손	6/19	경제
	보도	SK이노, 장애인 일자리 확대...사회적 가치 경영 실천	6/23	경제
	보도	행복ICT, 노트북·데스크톱 리사이클링 본격 시작	7/1	컴퓨터
	보도	[2019년 세법개정안]정규직 전환기업 세액공제 1년,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3년 연장	7/25	경제
	보도	SK이노, 노사상생 새 ‘이정표’...‘단협 프레임 혁신’ 통해 최단기간 단협 체결	7/29	산업일반
	보도	27일만에 단협 체결...SK이노 ‘노사 혁신’	7/29	산업일반
	사설	국회도 배워야 할 SK이노베이션의 노사문화	7/30	산업
	칼럼	[기고-조종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이사장] 전 세계인의 공감과 약속, 장애인고용	8/5	정책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머니 투데이	보도	SK하이닉스, 중고 ICT자산 사회적기업에 기증..장애인 일자리 ↑	3/5	산업
	보도	발달장애인 돌봄 사회적기업에 최대 3억원 운영비 지원	3/21	정책
	보도	SK실트론 장애인사업장 설립...사회적 가치 창출	4/11	정책
	보도	고용부 장관이 성빈센트 찾은 까닭은	4/12	산업
	보도	정수정 이랜드 부대표에 철탑산업훈장...‘장애인 고용촉진대회’	4/17	정책
	보도	한국동그라미파트너스, ‘장애인고용촉진대회’서 총리 표창	4/18	사회
	보도	대영하이텍, 대한민국 우수기업대상 ‘사회공헌대상’ 수상	5/29	사회
	보도	효성ITX, 창립 22주년 맞아 ‘행복나눔 행사’ 전개	6/19	사회
	기획	“장애인 일자리 연계고용제도가 해법...中企 부담 줄어야”	6/20	정책
	기획	우아한형제들 ‘우아한 공생’...장애인 표준사업장 확산	6/20	정책
	보도	장애인 일자리와 교육사업 지원하는 ‘두루행복한세상’	6/20	산업
	보도	약속지킨 최태원, SK그룹 장애인 고용 늘린다	6/23	산업
	보도	행복ICT, 신사업 ‘ICT 인프라 에코’ 집중 양성	7/1	IT
	보도	엔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받아	7/8	IT
	보도	SK머티리얼즈, 사회적 가치 창출 속도낸다	7/9	사회
	보도	‘경단녀’ 재고용 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7/25	정책
	보도	SK하이닉스 등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100곳 선정	7/25	정책
	보도	정규직 많이 전환하면 세금 혜택, 내년까지 연장	7/25	정책
	보도	웹젠,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7/25	IT
	보도	[오늘의 국회토론회-21일]아빠들이 말하는 육아경험과 의미	8/21	정책
	보도	SKT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MOU	8/22	IT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아시아경제	보도	제주항공, ‘2018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유공 표창 수여	1/29	유통
	보도	SK하이닉스, 중고 PC·노트북 9500대 사회적 기업에 기증	3/5	기업·CEO
	보도	웹젠, 장애인 고용 위한 자회사 ‘웹젠드림’ 설립	3/21	일반
	칼럼	[시론] 사회적 가치 실현은 장애인 고용으로 부터	3/22	정책
	보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 ‘다미설’과 “표준사업장” 운영 약정 체결	4/3	지역
	보도	장애인공단, SK실트론과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협약	4/11	일반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보도	SK실트론,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사회적 고용 늘린다	4/11	기업·CEO
	보도	아워홈, 장애인 일자리 창출 노력...고용률 연평균 69% 성장	4/18	일반
	보도	구매실적 공개이후...공공기관 장애인 생산품 구매액 44% 급증	4/23	일반
	보도	'장애인 채용' 대신 벌금으로 때우는 은행들	4/25	금융
	보도	이베이코리아, 중소기업·장애인 제품 판로개척 돕는다	5/3	유통
	보도	OCI, 장애인 일자리 창출 나선다...'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추진	6/18	기업·CEO
	보도	SK이노베이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6/23	기업·CEO
	보도	'稅收 안좋은데...' 일몰사업 평가 앞둔 기재부의 고민	6/24	정책
	보도	장애인고용공-울산시교육청, 훈련센터 설립 MOU...직업교육 실시	7/18	일반
	보도	[2019세법] "일자리 만들면 세제혜택"...민간 고용 살아날까	7/25	정책
	보도	SK이노베이션 노사, 첫 교섭 이후 3주만에 단체협약 완전타결	7/29	기업·CEO
	보도	장애인고용공-SK텔레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체결	8/22	일반

신문사	유형	제목	일시	분류
파이낸셜 뉴스	보도	SK이노, 대전 기술혁신연구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 개소	6/21	산업
	보도	SK텔레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 사업장 설립한다	8/22	피플

위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간지 10개와 경제지 6개의 기사를 검색하였다. 검색 결과 한국일보가 검색어에 기사가 나오지 않았다.

앞서서 먼저 배경을 조금 이야기 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인 '소득주도경제성장'의 공공일자리 80만개를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에 장애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이에 중증의 장애인이 장애인공공일자리 1만개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면서 장애인고용공단 서울본부를 점거농성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그리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즉 장애인일자리 창출이 이슈가 되었고, 정부 차원의 장애인일자리 마련과, 장애인고용공단의 혁신, 장애인의무고용률 이행을 위한 공단차원의 노력 등이 이야기 되었다.

2019년 들어 각 기업들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의 기사들이 많이 나온 이유도 여기에서 기인한다 하겠다.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일간지보다 경제지에서 많이 기사화 되었다는 것과, 기획이나 칼럼, 인터뷰보다 기업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한 장애인고용 혹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보도하는 보도기사가 주를 이루었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의 환경은 장애인의 접근을 쉽게 허락하여 주고 있지 않다. 그러한 장애인의 노동현실, 경제활동 지표, 이러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장애인 노동권이 확보되어야 하는 필요성과 아울러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일반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약간의 설명도 없이 보도된 내용의 기사들이 많아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가는 친절한 기사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다.

요즘 언론에 대해서 비판되어지는 문제를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살짝 엿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보도자료에 언론들이 너무 의지 한다는 사실이다. 역시 아쉬운 부분이라 하겠다.

기사의 내용들도 각 기업의 입장이나, 주요 책임기관인 장애인고용공단, 노동부 등의 생각과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어서, ‘장애인표준사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라든가 구직을 하는 장애인의 의견이나 생각들을 다루어 주지 않아서 전반적인 기사의 균형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하겠다.

다음은 각 언론사의 ‘장애인표준사업장’ 기사유형이다.

〈표 2〉 종합일간지 보도유형

언론사		경향 신문	국민 일보	동아 일보	문화 일보	서울 신문	세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	계
유형	경제 기업	2	-	-	3	4	3	5	1	1	-	30
	시사	-	28	-	-	-	-	-	-	-	-	29
보도	사회	-	-	-	1	-	-	-	-	-	-	1
	정책	-	-	-	-	1	1	-	1	-	-	4
	기타	-	-	6	-	-	2	3	-	-	-	11
기획, 기고 등		-	1	-	-	1	-	-	1	-	-	3
누계		2	29	6	4	6	6	8	3	1	-	78



〈표 3〉 경제지 보도유형

언론사		서울경제	매일경제	헤럴드 경제	머니 투데이	아시아 경제	파이낸셜 뉴스	계
유형	경제 기업	8	13	13	4	11	1	50
	보도							
	시사	-	-	-	-	-	-	0
	사회	3	2	-	4	-	-	9
	정책	-	4	1	7	3	-	15
	기타	1	27	4	4	4	1	41
	기획, 기고 등	-	1	-	2	-	-	3
	누계	12	47	18	21	18	2	118

일간지에서는 국민일보가 29건의 기사를 다루어 주었고, 경제지에서는 매일경제가 47건의 기사를 다루어 주었다. 전반적으로 일간지보다는 경제지에서 많게 기사화 되었다는 걸 알 수 있다. 기업의 홍보나 사회적 책임을 함께 한다는 것들이 많이 홍보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기획, 기고 등의 기사가 너무 적음을 알 수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그간 장애인취업에 소극적이었던 곳에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만들고 이를 통하여 장애인취업을 이루어낸 곳에 대한 기사가 보였다는 것인데, 병원, 지자체 등이 그곳이다. 장애를 이해하고, 장애인이 일자리를 갖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한 기사들도 눈에 띄었다.

포스코 휴먼스, SK, 울산시 교육청 등의 기사에는 기업에서 장애인들에게 일하기 전의 직업교육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 진행을, 전주시, 남양주 등의 기사에는 지자체가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하여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을, SK, 유리진, 엔씨, 웹젠 등의 기업 등에서는 새로운 플랫폼 속에서 장애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사를, 성빈센트병원, 건국대의 기사에서도 장애인에게 맞는 직종을 만들어 장애인을 고용한 사례를 실어주었다.

또한 비건비에프 등의 기사에서는 장애인이 노동을 하기위한 환경과 장애인표준사업장의 전국 현황, 문제점 등을 이야기 하고 있고, 골프존뉴딘그룹의 뉴딘파스텔을 통한 장애인문화활동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조모임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전혀 접근하지 못했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예도 볼 수 있었다.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을 견학하러 오거나, 직접고용은 아니지

만 표준사업장의 생산품의 판로를 지원해주는 기업, 은행들이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고 고용부담금으로 때운다는 기사 등이 아울러 눈에 띄었다.

그간 기업들이 장애인의무고용을 하지 않았던 문제의 원인, 그 해결책들을 유일하게 다룬 기사가 있어 소개하려 한다.

“장애인 일자리 연계고용제도가 해법…中企 부담 줄여야”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2019.06.20 04:02

[창간기획-공생에서 찾는 행복 : 사회적기업 베어베터]이진희 대표 “의지만 있으면 모든 기업이 공존 현장”

이진희 베어베터 대표 인터뷰/사진=이기범 기자

지난달 28일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를 모토로 열린 민간축제 ‘소셜밸류넥트(SOVAC)2019’에서 축제기획자인 최태원 SK 회장을 당혹스럽게 만든 기업이 있다. 김정호·이진희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인 고용 사회적기업 베어베터다.

김정호 대표는 행사에서 SK 계열사들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SK가 장애인 고용이라는 전공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않았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최 회장은 이같은 지적에 “당황했지만 맞는 말씀”이라며 “무조건 하겠다”고 화답했다.

베어베터는 230여명(직원의 80%)의 발달장애인이 일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이다. 사명부터 발달장애인을 상징하는 ‘곰’이 세상을 이롭게 만든다는 의미(Bear makes the world better)에서 따왔다. 인쇄·제본, 제과제빵, 꽃포장·배달 등 발달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분야는 가리지 않는다.

베어베터의 공동창립자인 이진희 대표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베어베터는 발달장애인의 고용이 설립목표인 회사”라며 “발달장애인이 부족함 없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다면 모두 베어베터의 업종”이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만든 제품’이어서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편견도 보란 듯이 깬다. 이 대표는 “명함, 꽃배달 등 베어베터가 제공하는 상품들은 한 번 사주고 말 물건이 아니다”며 “시장에서 경쟁해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품질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베어베터는 현재 네이버, 에르메스, 루이비통, IBM 등 400여개가 넘는 대기업·기관 등과 거래하고 있다.



베어베터의 두 대표는 모두 1세대 벤처기업 네이버 출신이다. 김 대표는 1999년 창립멤버로, 이 대표는 2008년 네이버에 입사했다. 회사가 정상에 오른 2010년 이 대표는 자폐판정을 받은 자신의 자녀와 같은 아이들을 위해 무언가 하겠다는 꿈을 이루기 위해 네이버를 그만뒀다. 이 대표보다 몇 달 먼저 회사를 그만둔 김 대표는 기업의 사회적 역할 등에 관심을 갖다 이 대표의 꿈에 투자했다. 그렇게 두 대표의 베어베터가 설립됐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들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일자리’입니다. 처음에는 장학금 지원도 생각을 했지만 이 친구들에게는 교육보다 더 급한 문제가 있었어요. 성인기에 갈 곳이 없다는 점입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우리사회의 문제는 무엇일까를 공부하는 데 2년이 걸렸습니다.”

베어베터에 경영동력을 준 것은 ‘연계고용부담금감면제도(이하 연계고용제도)’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의무고용제도를 통해 50인 이상 공공기관·민간기업에 고용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미이행 시 100인 이상의 기업은 미달인원당 월 104만원 이상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연계고용제도’는 이런 기업들이 장애인표준사업장과 도급계약을 하면 거래금액의 50%까지 부담금을 감면시켜주는 제도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 고용에 간접 기여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대표는 “연계고용제도는 현재로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고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로 경증장애인 고용은 늘릴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채용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지난해 경증장애인 고용률은 41.1%,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20.2%로 추산했다.

“발달장애인들이 일반기업에서 적합한 직무를 받지 못해 고생하느니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는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다니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기업입장에서도 아직 중증장애인을 직접 채용하는 건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재로서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표준사업장을 늘리고 연계고용제도로 표준사업장의 운영을 돕는 게 해결책이 됩니다. 온종일 붙어있는 것만이 함께 사는 사회는 아닙니다. 이런 식의 공존도 해답이 될 수 있죠. 적어도 지금의 환경에 서는요.”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연계고용제도의 부담금 감면을 상향을 강조했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아 부담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8264곳(미이행률 56.6%)에 달하지만 이 중 연계고용을 이용하는 기업은 443곳(4.3%)에 그친다. 부담금 감면율(최대 50%)이 기업을 움직일만큼 크지 않아서다.

장애인 일자리 문제에 적극적인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방식의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면한도는 무제한이다. 연계고용으로 부담금을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우리의 표준사업장 격인 장애인공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특히 중소기업에 한정해서라도 연계고용제도의 부담금 감면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모든 기업에 대한 연계고용 부담금 감면이 어렵다면 기업규모별로 차등화를 주는 방법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대기업보다 장애인고용 부담이 큰 중소기업에는 연계고용의 혜택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연계고용제도가 장애인 고용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현재로서 연계고용제도가 최선의 해결책이지만 결국 모든 기업이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어야 한다”며 “발달장애인과 일하는 게 어렵다고 하지만 의지를 갖고 발굴하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아한형제들, 대웅제약, NHN 등의 ‘발달장애인 사내매점·사내카페’ 등이 사례다.

“다들 못한다고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한 게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모든 기업에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살아야겠죠. 김정호 대표는 ‘베어베터의 목표는 발달장애인이 모두 기업에 채용돼 쓸모를 다하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저도 우리 회사가 그렇게 아름답게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업들이 장애인을 직접 고용해야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는 기업에 징벌적 추징금을 부과해야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법적 상황에 직면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그것이 장애인의 노동권을 많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원칙적이고 직접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울 때는 여러 다른 방법을 모색하고 강구해야 한다. 위의 기사내용이 장애당사자 가족인 공동대표의 인터뷰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장애인일자리문제에 실질적 해결방안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그 해결방안도 잘 제시하고 있다. 바로 ‘연계고용제도’로 장애인일 자리를 계속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 하고 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으로만 국한되어있는 것이 많이 아쉽다.

위의 기사와 인과관계가 있는 기사들이 있는데, 바로 위 기사 내용에도 나와 있는 SK관련 기사들이다. 그런데, 정말 꿈같은 일들이 일어났고, 그것이 기사화 된 것이 있어 소개한다.



SK이노베이션 노사, 단체협상 갱신 타결

조선비즈 안상희 기자

입력 2019.07.29 13:36

SK이노베이션 노사가 2019년도 단체협약 갱신을 타결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29일 서울 서린동 SK빌딩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과 이정묵 노동조합위원장 등이 참석해 '2019년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갖고 단협 갱신을 타결했다.

SK이노베이션 노사는 29일 서울 서린동 SK빌딩에서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왼쪽 세 번째), 이정묵 노동조합위원장(왼쪽 두 번째), 박경환 울산 CLX 총괄(왼쪽 첫 번째), 손흥식 노동조합부위원장(왼쪽 네 번째) 등이 참석해 '2019년도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SK이노베이션 제공

이번 단협은 지난 2일 단협 갱신 첫 교섭을 시작한 이래 3주만에 잠정합의안이 도출됐고, 25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에서 참여 조합원 77.56%가 찬성하면서 완전 타결됐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과거 ‘밀고 당기기 식’의 소모적 방식에서 벗어나 ‘건설적 제안과 배려’로 합의를 이끌어 낸 큰 변화”라고 했다.

노사는 △구성원 기본급 1%를 기부해 만든 행복나눔기금을 활용해 ‘협력업체 공동 근로복지기금’ 조성 △새로 도입한 구성원 작업복 세탁 서비스의 ‘장애인 표준사업장’과 연계 통한 장애인 고용 확대 △사회공헌 활동 적극 참여 등에 합의했다.

노사는 그동안 복리후생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희귀·난치병 치료지원 및 난임 치료와 같이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온 의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젊은 계층의 구성원에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주택구입 시 융자를 확대해주시기로 결정했다.

노사는 가칭 ‘행복협의회’를 상설로 구성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의 행복과 함께 사회적 가치 창출, 문화혁신 등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아젠다를 노사가 상시 논의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단협 프레임 혁신이라는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사상 최단 기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낸 것은 노사가 함께 만들어 온 신뢰와 상생, 존중, 배려의 문화가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이 노사문화는 향후 100년, 200년 기업으로 성장·발전하는 핵심역량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자본과 노동자 사이의 단체협상 테이블에 ‘장애인 고용’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다. 옛날에 필자가 민주노동당 장애인위원회 상근자로 활동을 할 당시 북구 유럽의 사회적 연대의 내용을 접했을 때 처음 알게된 내용이 임단협 내용에 장애인고용의 내용이 포함되어있던 것이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민주노총과의 면담자리에서도 민주노총가입 사업장의 경우 장애인의무고용 내용을 임단협 협상안에 넣어줄 것을 지침으로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렇게 진행되지 못해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2019년도에 이렇게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노동자의 직접고용이 아닌 것과 이 안이 노조측의 제안이 아니고, 사측의 제안이었다는 것이 조금 아쉬움으로 남는다.

끝으로 기획 인터뷰 기사를 소개한다.

“중증장애인도 첨단산업 일할 수 있어... 직무 편견부터 깨야”

‘장애인 고용역사 30년 산증인’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

입력 : 2019-08-13 17:36 | 수정 : 2019-08-14 02:44

조종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이 1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장애인 고용 서비스가 수요자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 장애인 맞춤 직무 발굴에도 더욱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장애인의 취업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선입견’이다.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으면 노동이 아예 불가능할 거라고 여기는 편견은 장애인을 점점 우리 사회의 중심에서 바깥으로 내몬다. 기업의 채용 담당자들도 나름의 고충은 있다. 장애인과 함께 일해 본 경험이 없기에 무슨 일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이다. 조종란(58)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의 어깨가 무거운 이유다. 공단은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하고 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연구·개발하는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스스로 장애 당사자이기도 한 조 이사장은 공단이 설립된 1990년 창립구성원으로 시작, 30여년간 공단과 장애 현장에서 활약한 한국 장애인 고용사(史)의 산증인이다. 13일 경기 성남에 있는 공단 본부에서 만난 조 이사장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원들에게 항상 장애인의 처지에서 바라보고 생각하라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직무에 대한 편견을 깨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공단을 직접 이끌어 보니 어떤가.



“1990년 입사한 뒤 24년간 내리 근무했다. 4년 정도 공단을 떠나 성민복지관장을 맡다가 2017년 12월 이사장으로 부임했다. 공단에 청춘을 묻은 셈이다. 성민복지관장을 맡으면서 느낀 게 있다. 장애인을 둘러싼 환경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체장애 인구는 고령화되고 있다. 발달장애 인구는 새롭게 늘어나고 있다. 공단을 이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조금함이 크다. 그러나 관련 제도와 공단의 조직 운영은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할 만큼 유연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장애인을 위한다는 서비스는 여전히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졌다. 직원들이 ‘장애 감수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체질 개선이 필요했다. 직원들에게 항상 ‘장애인의 처지에서 생각하라’고 강조하는 이유다. 공단의 수요자인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단 조직을 재정비하고 장애인 고용 서비스를 정교하게 만들고자 집중했다.”

• 선입견 없이 장애인 직무 발굴·설계 필요

- 장애인을 위한 직무를 발굴하는 일을 하는데 어려운 점은 없나.

“첨단 산업으로 갈수록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장애인 고용을 실질적으로 늘리려면 기존의 채용 방식이나 직무에 대한 틀에 박힌 편견을 과감히 깨야 한다.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가 설립한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모아’에서 개발한 직무는 아주 좋은 사례다. 행복모아는 SK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에서 발달장애인들을 ‘반도체 방진복 특수세정원’으로 고용했다. 발달장애인에 맞게 작업공정을 맞춤으로 설계했다. 비장애인이 작업하면 한 사람이 수거와 접수, 분류, 바코드작업, 세척기 작동 등 모든 공정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정을 쪼개서 발달장애인들의 작업능력을 평가한 뒤 쉽고 어려운 정도에 따라 배치했다. 세척기도 타이머를 갖춘 기계로 바꾸고 작업장의 동선도 발달장애인을 위해 조정했다.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첨단 산업에서도 중증장애인이 얼마든지 일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올해부터 장애등급제가 점차 폐지된다. 공단에선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

“앞으로 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단체 등에서는 예산이나 장애 유형에 따른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지 않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안다.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으니 관련 예산이 늘어나는 등 점차 보완될 것이다. 공단은 장애등급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2022년 이후 ‘고용서비스 판정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고용서비스 판정체계란 장애 유형과 개인별 특성을 분류해서 적절한 지원체계를 제공하는 것이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있다고 하자. 겉으로 보면 중증장애인이지만 그가 하는 업무에 따라서 중증이 아닐 수도 있다. 단순히 의사소통을 하거나 손만 쓰는 일을 한다면 그는 비장애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능력을 갖추고 있다. 장애 유형과 정도가 개인별로 차이가 심하기에 개발 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공단은 장애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적절한 체계를 완성할 예정이다.”

• 장애 심한 분에 맞춤 서비스... 공단 첫 A 평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은 반드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1991년 도입돼 운영 중이다. 이사장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민간 기업의 고용의무 이행 현황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991년 0.43%에 불과했던 의무고용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말 기준 2.78%로 6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의 모범을 보여야 하는 공공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부진하다는 지적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채용 확대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고 공무원임용시험령을 개정해 채용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청에서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그러나 교육청은 상황이 좀 다르다. 대부분 교원으로 이뤄져 있는데 사범대를 졸업하고 교원임용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서 장애인이 한꺼번에 입직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내야 하는 고용 의무 부담금이 내년부터 국가와 지자체에도 확대돼 교육청도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안다. 인사처와 고용부, 교육부와 함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 장애인이 일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보조공학기기 연구도 한다고 들었다.

“보조공학기기는 중증장애인 고용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외부에서 활동할 때와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 필요한 휠체어가 각각 다르다. 근로 환경에 맞는 보조공학기기를 연구·개발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공단이 하고 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것은 의사소통형 포스(POS·판매자시점정보관리시스템)다. 발달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취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문제는 발달장애인들이 돈을 받고 거스름돈을 주는 계산과 관련된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다. 의사소통형 포스는 구매자가 무엇을 주문하는지 눌러 주고 현금을 낼 것인지 아니면 카드로 결제할 것인지 등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손님이 직접 계산을 하도록 한 것이다. 이런 첨단 보조공학기기를 더 많이 연구하면 좋는데 관련 예산은 2억~3억원 정도다. 아쉬움이 있다.”

-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면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SK그룹 사회공헌위원회와 한 일이 많다. 지난해 11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뒤 SK이노베이션, SK하이닉스 등 그룹 내 관계사들이 연이어 직간접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통한 사회적 가치를 실천했다. SK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도 장애인 고용을 통한 포용사회의 가치가 확산하고 있는 것 같아 반갑고 감사하다. 장애인의 개별 욕구에 맞는 서비스에 집중하고자 올해 초 본부



에 '중증통합지원국'도 신설했다. 그간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이유로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있었던 장애인에게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좋은 성과로 나타났다. 최근 발표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공단 창립 최초로 'A등급'을 달성하기도 했다.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관장을 믿고 따라 준 직원들 덕분이다.”

• 비장애인과의 소득차 30%... 일자리 개선 노력

- 앞으로 계획은.

“그간 장애인 고용의 양적 확대는 꾸준히 이뤄졌지만 질적인 부분은 여전히 차이가 크다. 근로자 소득을 보면 장애인과 비장애인 격차가 30% 정도 벌어진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질적인 개선에도 치중하겠다. 그간 일을 하면서 느낀 점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종속관계 등 전통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고 관심을 더하면 모두가 행복한 포용사회가 성큼 다가올 것으로 믿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위 기사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주된 내용은 아니지만, 장애인의 노동권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잘 정리하고 있다. 인식개선, 보조기기, 작업환경, 민간기업과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취업 현황, 장애등급제 변화 후 공단의 역할 변화 등등 세세히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그간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심혈을 기울여 결실을 맺은 중증장애인에 맞는 직무개발, 이용자 중심으로의 공단 체질 변화 등이 큰 성과로 보인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인터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듯이 장애인고용공단이 변화에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자기반성을 돌려 이야기 하였지만, 그리고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지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예를 들면 고용기금 활용, 직업훈련원의 교육내용의 개편 등등의 언급이 없어 아쉬움이 있다. 특히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 대해 공공일자리와 연계 방법 등의 이야기가 없어 더 아쉬움이 남는다.

Ⅲ. 나오며

이번 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바로 ‘SK’다 전체 기사 196건 중 제목에만 ‘SK’가 나온 기사가 47건이다. 2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장애인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이나 설립을 ‘SK’ 아니었으면 누가 했을까 의문이 들 정도다.

이 결과를 보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나마 대기업에서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을 해서 참 다행이고, 이것이 이렇게 이슈화 되어 다른 기업들과 공공부문에서도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과, 발달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더 장애가 심한 사람들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졌으면 하는 바램과, 그간 장애인의 일자리 등이 여전히 대한민국 전체의 몫이 아닌 사회 일부분만의 몫이었다는 것이다.

얼마 전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일반노동조합지부가 창립총회를 거쳐 ‘장애인 고용률 높이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산업현장에서의 장애인차별철폐’의 슬로건을 걸고 공식 출범하여 장애인 노동권 확보에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고, 사회의 변화는 점점 빠르게 변화하여 가고 있다. 노동의 양상과 삶의 방식 또한 빠르게 변화해 갈 것이다. 어떻게 하면 일하고 싶어 하는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가? 과학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 속에서 플랫폼 방식에서의 장애인의 노동, 그리고 그 속에서 장애인의 권리가 존중되어 모두가 행복한 일자리에서 일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고령장애인 관련 보도내용 분석

신재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대리

I. 서론

고령장애인이란 노인성 노화에 따른 장애(Disability with aging)와 장애인 노화(Aging with disability)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장애와 노화를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2018년 한국 65세 이상 인구(738만 명)는 전체 인구(5,163만 명) 대비 14.3%로 고령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향후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60년에는 41%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2019)¹⁾.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기술 발달에 따른 기대수명 연장과 급격한 출산율 저하로 고령인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일본보다 더 빨리 진행되고 있어 여러 가지 고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18)²⁾. 그런데 등록장애인의 고령화 현상은 더 심각하다. 2018년 기준 전체 인구 수(5,163만 명) 대비 전체 등록장애인(258만 명)의 비중은 4.9%인데, 65세 이상 등록 장애 인구(120만 명)는 46.7%나 된다. 이는 2014년 43.3%에 비하여 3.3%가 증가한 수치이다(보건복지부, 2017).³⁾

1) 통계청(2019). 장래인구추계

2) 한국노인인력개발원(2018). 2017 노인일자리 통계 동향



고령장애인은 장애와 고령을 동시에 경험하는 집단으로 복지욕구 또한 높다. 하지만 고령장애인의 욕구를 충족시킬만한 사회정책 부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특히 낮은 취업률과 제한적인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의 빈곤, 장애와 노화로 인한 만성질환 등의 의료문제와 사회적 고립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고령장애인은 연령과 장애라는 제약으로 중복 소외 및 이중 차별에 노출되기 쉬워 국가나 지역사회의 국가적 개입이 필요로 하는 정책과제이기도 하다.

고령장애인 복지를 정책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언론은 여론이 형성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이런 관심과 분위기 형성이 정책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밑거름 역할을 한다. 이에 고령장애인에 대해 언론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보도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9년 한 해 동안 언론사별로 고령장애인에 대해 어떻게 기사를 다루고, 어떤 형태로 보도되고 있는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분석해 앞으로 언론보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본론

1. 분석

가. 분석대상

분석방법은 10개 종합일간지를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모니터링 하였다. 분석한 10개 일간지는 경향신문·국민일보·동아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한겨레·한국일보이다.

나. 분석방법

모니터링 방법으로는 국내 언론사의 뉴스 및 기사 등을 포함한 최대 규모 DB를 토대로 빅데이터 분석 활용이 가능한 빅카인즈(BIG KINDS)를 통해 해당 기간 동안 ‘고령장애인’, ‘노령장애인’, ‘장애노인’ 총 3가지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기사

3) 보건복지부(2017).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를 분석하였다.

‘고령장애인’이라는 용어는 2000년대 초반에 등장하였으나, 노인 또는 노령자와 유사한 개념으로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정확한 법적 규정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여러 연구를 살펴보면 고령장애인에 대한 용어는 다양한 연령기준 설정과 고용영역, 장애영역 등 여러 영역에서 연구자들마다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다.⁴⁾

장애노인, 노령장애인, 노인성 장애인 등 다양한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모니터링에서도 고령장애인 이외에 노령장애인, 장애노인까지 검색하였다. 단, 검색과정에서 위 단어로 검색되었으나 고령장애인의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기사는 제외했다.

검색된 기사는 단순보도, 심층보도, 논설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으며, 단순보도는 단순 정보전달의 내용만 담거나 고령장애인에 대해 극히 일부만 다룬 기사로 보았다. 심층보도는 인터뷰, 직접 체험 등 심층적으로 내용을 분석한 보도자료로 구분하였으며, 논설은 외부 기고까지 포함하였다.

2. 분석결과

가. 보도량

총 29건의 기사 중 키워드 별 보도량을 살펴보면 ‘고령장애인’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장애노인’이 13건, ‘노령장애인’이 2건이었다. 언론사별로 살펴보면 서울신문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가 4건이었다. 반면, 동아일보, 문화일보의 경우 단 한건의 기사도 검색되지 않았다.

4) 한국장애인개발원(2017). 고령장애인의 욕구조사 및 중장기 정책방향



〈표 1〉 언론사별 보도량

(단위 : 건)

구분	경향 신문	국민 일보	동아 일보	문화 일보	서울 신문	세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	계
고령장애인	2	2	0	0	2	2	2	1	1	2	14
노령장애인	0	1	0	0	0	0	0	0	1	0	2
장애노인	0	1	0	0	5	2	1	2	2	0	13
계	2	4	0	0	7	4	3	3	4	2	29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19년에 보도된 장애인 관련 기사는 10,939건으로 장애인 보도기사 수에 비하면 고령장애인 관련 보도량은 0.27%로 턱없이 부족하였다.

나. 보도 유형

보도 유형을 살펴보면 심층보도가 14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 다음 단순보도(12건), 논설(3건) 순으로 나와 심층보도와 단순보도의 차이는 별로 없었다. 그 중 가장 많이 보도가 된 서울신문(총 7건)의 경우 단순보도가 4건, 심층보도가 3건으로 총 보도된 수에 비해 단순보도 내용이 많았다. 단순보도는 홍보성의 기사나 정부에서 발표한 통계 수치에 의존한 정보전달 형태의 기사로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한 심층보도에 비해 질적으로 부족한 보도형태라고 볼 수 있다.

〈표 2〉 언론사별 보도 유형

(단위 : 건)

구분	경향 신문	국민 일보	동아 일보	문화 일보	서울 신문	세계 일보	조선 일보	중앙 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	계
단순보도	0	1	0	0	4	2	1	3	1	0	12
심층보도	1	2	0	0	3	2	2	0	2	2	14
기고	1	1	0	0	0	0	0	0	1	0	3
계	2	4	0	0	7	4	3	3	4	2	29

다. 주제별 분석

보도된 기사들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커뮤니티 케어 등 10개 주제별로 분류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가장 많이 다룬 주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5건)였다. 그 다음으로 커뮤니티 케어(4건), 최초 시각장애인 경로당 설립(3건), 고령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전달(3건), 평생교육(2건) 순으로 차지하였다. 그밖에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봉사활동, 이동권, 고령장애인으로 발생한 사건사고, 각종 행사 등이 있었다. 기타 주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내용이 일부만 다뤄졌거나 홍보성 기사가 포함된다.

〈표 3〉 언론사별 보도 주제

(단위 : 건)

순위	주제	언론사	보도량
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5
2	커뮤니티 케어(돌봄, 진료비)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4
3	고령장애인 개념 및 현황	한국일보, 세계일보, 서울신문	3
3	시각장애인 경로당 설립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3
5	평생교육	조선일보, 한겨레	2
5	발달장애인 마을	한겨레	2
5	토론회	국민일보, 서울신문	2
5	기업 및 단체 봉사활동	조선일보, 서울신문	2
9	이동권	경향신문	1
9	사건사고	중앙일보	1
10	기타	국민일보, 중앙일보, 서울신문	4

첫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한 이슈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 총 5곳에서 다뤘다. 특히 한국일보, 국민일보, 서울신문은 심층보도로, 한겨레, 경향신문은 기고 형태로 보도되었다.

심층보도한 언론사 중 한국일보(“만 65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중단은 인권침해”/2019.10.14.)와 국민일보(인권위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제공해야”/2019.8.26.)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와 서울시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중단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긴급구제를 권고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하지만 정부와 각 시청에서는 예



산 부족으로 인한 재정 부담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서울신문(세상으로의 문이 닫힌다...중증장애인 65세의 '절망'/2019.10.14.)의 경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 박명애 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65세 고령장애인 중 노인장기요양전환율과 그로 인한 문제점을 심층 분석하였다.



〈그림 1〉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 대해 심층보도한 기사
(한국일보, 2019-10-14, / 서울신문, 2019-10-13.)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해 기고 형태로 보도한 곳은 한겨레와 경향신문이었다. 한겨레([공감세상] 스무살이 된 장애인들/2019.8.19.)의 경우 변호사 겸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 저자인 김원영씨는 장기요양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를 받던 장애인이 65세가 되면서 장기요양제도를 지원받으면서 발생하는 문제를 제시하면서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보완이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경향신문은 (사)한국장애예술인협회 방귀희 대표가 기고한 ([기고]형평성을 내세운 정치적 범죄/2019.10.21.)를 통해, 장애인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하고, 65세 이상 고령장애인도 노인이 될 뿐만 아니라 장애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모든 장애인이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감세상] 스무살이 된 장애인들 / 김원영

등록 : 2019-08-19 17:17



김원영
변호사 <실적당첨 자들을 위한 변호> 저자

나는 열다섯살이 되었을 때 처음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다.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할말할 일이 많았다. 특학으로 배운 사칙연산으로는 중학 수학을 따라가지 못해, 재빨리 분수를 익혀야 했다. 성별이 다른 친구들과는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기에 이성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다. 현금지급기에서 돈은 어떻게 인출하는 걸까? 슈퍼에서 물건을 사고 문구류를 고르고 나에게 어울리는 옷을 직접 고르는 법도 몰랐다. 그러도 이 모든 과정이 신났다.

어떤 사람들은 이 과정을 50살부터 시작했다. 한국 사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장애인들의 외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그 전까지 다수의 장애인은 집과 장애인 거주 시설에서 평생을 보냈다. 나는 1980년대에 태어났으므로 15년 정도의 저가(在來)장애인 생활을 거쳐 세상에 나왔지만, 1950~60년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40~5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자신의 의지대로 외출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장애인 대다수는 사회적인 의미에서, 이제 스무살 무렵의 인생을 사는 중이다.

노화는 정신적·신체적 장애를 수반하지만 노화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지니고 살다가 노인이 된 사람들은 여러 면에서 다르다. 고령장애인에 대한 몇몇 연구를(김세진, '장애노인 돌봄의 정책 도출' 등)에 따르면, 장애를 가지고 노인이 된 사람들은 사회참여 욕구가 크고 장애인 당사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반면, 노인이 되면서 장애인이 된 사람들은 요양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가운데 나이와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사회문화적

[기고]형평성을 내세운 정치적 범죄

방귀회 | (사)한국장애인예술인협회 대표

이번 국정감사에서 우리나라 고독사 5명 중 1명이 장애인이며 장애인 고독사는 전년도에 비해 80% 증가했다는 충격적인 사회문제가 드러났다. 2018년 장애인 무연고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고독사한 장애인의 장애유형은 지체장애가 52.2%를 차지해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혼자 지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보여줬다. 이 문제를 가장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다.

만 65세가 되면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65세부터 노인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는데 이 서비스는 하루 4시간이 전부여서 나머지 20시간은 혼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에게서 활동지원서비스 연령 제한 철폐 요구 집회를 계속하고 있다.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나온 박명애씨는 47세에 장애인아학을 통해 공부한 후 장애인운동가가 되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도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는 등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어 다시 집 안에 갇혀 살아야 한다며 장애인 활동지원 연령 제한의 폐해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17일 한 장애인단체에는 '거기 누구 없나?'라는 제목의 글이 실려 많은 공감을 유발했다. 글쓴이는 시골에서 상경해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공부하여 전문직 직급까지 가졌으나 결혼을 앞두던 딸은 어느 날 뽕소니 교통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갖게 된 한미순씨다. 그는 사고로 건강과 사망, 미래의 꿈 모두를 잃고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면서도 사립다워지고 싶어서 타자봉을



〈그림 2〉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기사
(한겨레, 2019-8-19, 김원영 / 경향신문, 2019-10-21, 방귀회)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은 장애인이 65세 고령층으로 진입하면서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될 문제로 언론사에서 가장 많이 보도되고 보도형태도 심층보도 및 기고 형태로 다뤄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커뮤니티 케어'는 총 4건 보도가 되었으며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에서 다뤘다. 특히 세계일보의 경우 심층분석 형태로 2건(장애인도 고령화... 커지는 돌봄서비스·의료비 부담/2019.3.3., 장애인 1인당 年 진료비 국민 평균의 3.3배/2019.2.24.)이 보도되었으며, 조선일보는 '일본선 거동 힘든 환자 왕진·치아관리 서비스 한해 1000만건'(2019.4.5.)이라는 기사를 통해 일본의 사례를 보도하였다.

커뮤니티 케어는 현 정부에서 가장 강조해 진행하는 사업이자 고령장애인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정책이다. 하지만 4건의 보도 중 단 2건만 심층보도하였고 나머지는 해외사례와 제품 홍보 기사로 우리나라 고령장애인의 문제와 현황을 파악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세 번째로 많이 다뤄진 주제는 성북구에 최초로 설립된 ‘시각장애인 경로당’이다. 이 주제를 다룬 언론사는 국민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총 3곳이며, 국민일보(성북구에 서울시 최초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생겼다/2019.7.25.)와 서울신문(성북구 동선동에 서울 유일 시각장애인 경로당/2019.7.26.)은 단순보도 형태로 다루었다. 반면 세계일보(밤 늦게까지 모여 이야기 꽃 피워... 맘 나누고 위안 받는 아늑한 쉼터 [김동환의 김기자와 만남시대]/2019.8.24.)는 경로당이 설립된 배경부터 시설 확인, 이용자들의 인터뷰 등 심층보도 형태로 다루어 많은 독자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좋은 기사였다.

성북구에 서울시 최초 ‘시각장애인 경로당’이 생겼다 입력 : 2019-07-25 11:32  이날로 서울 성북구정장(오른쪽)이 지난 23일 성북시각장애인 경로당 개소식에서 노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성북구 제공 서울 성북구에 서울시 최초의 시각장애인을 위한 경로당이 생겼다. 성북구는 지난 23일 구립 성북시각장애인 경로당(성북구 동소문로25길 6-10)을 개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성북구가 동선동에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만든 이유는 이 지역에 시각장애인이 많기 때문이다. 동선동 거주 장애인 중 시각장애를 가진 비율이 17.6%로 성북구 평균(10.9%)보다 높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중 시각장애인 비율은 절반(47.5%)에 육박한다. 성북구 어르신복지과 관계자는 “동선동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있어서 주변으로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몰려 살게 된 것 같다”면서 “시각장애 노인들이 복지관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낼 수 없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경로당을 만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북구 시각장애인 경로당에는 점자블록, 핸드레일 등이 설치됐다. 운영 프로그램은 경로당 회원들과 함께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밤 늦게까지 모여 이야기 꽃 피워... 맘 나누고 위안 받는 아늑한 쉼터 시각장애인 경로당 가보니 / 7월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개소 / 이동로 점자블록 등 사고 예방 시설 / 함께 모여 웃음이 들 하며 시간 보내 / 일손은 타고 주변동네서 찾아오기도 입력 2019-08-21 10:37:37, 수정 2019-08-24 11:51:39 “평소에는 많이 오는데 오늘 기자님께서 온다니 오히려 더 안 오네!” 허허.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동선동(성북구 동소문로25길 6-10) ‘성북시각장애인 경로당 (시각장애인 경로당)’에서 기자를 만난 홍수성 회장이 웃으며 말했다. 거실에 모여 앉아 밝은 표정으로 맞이한 다른 시각장애인들은 비록 기자의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내한 손과 목소리로 저마다 허탈해 상상 속의 기자 얼굴을 그려내는 듯했다.  지난 19일, 서울 성북구 동선동 ‘성북시각장애인 경로당’에서 만난 홍수성 회장(왼쪽에서 세번째) 등 시각장애인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성북구청 제공
---	--

〈그림 3〉 성북구에 서울시 최초로 ‘시각장애인 경로당’을 소개한 기사
(국민일보, 2019-7-25 / 세계일보, 2019-8-21)

‘시각장애인 경로당’과 동일한 보도량을 가진 주제는 고령장애인의 개념 및 현황으로 한국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에서 다뤘다. 한국일보(장애인 46%가 65세 이상... 후천적 고령 장애도 늘어/2019.4.17.)의 경우 한국의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성 장애인 현황에 대해 언급하고, 이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장애인의 욕구문제를 다루었다. 세계일보(장애인 인구도 고령화... 절반이 ‘65세 이상’/2019.4.17.)의 경우 고령장애인의 인구 현황을 파악하고, 특히 전체 장애인과 노인의 의료비와 고령장애인의 의료비와 비교하였다. 서울신문(등

록장애인 2명 중 1명 노인… 발달장애인도 갈수록 증가세/2019.4.18.)은 연령, 성별, 유형, 등급 등 전체 장애인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분석하고, 그 중 고령장애인 비율이 급증하고 있음을 강조하여 국가와 사회가 부담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언급하였다.

이 밖에도 각 지역별 고령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시설 마련, 기업과 단체에서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진행한 봉사활동, 고령장애인 삶의 증진을 위한 토론회 기사 등이 보도되었다. 또한 고령장애인이 저지른 ‘봉화 엽총 살인 사건’에 대한 기사에서 보듯 부정적인 보도의 흐름도 보였으며, 반대로 장애를 가지고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례를 들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보도내용도 있었다.

그동안 전반적인 장애계 언론 흐름은 장애인활동지원, 장애등급제, 탈시설, 장애인 고용 등 다양한 이슈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노년계 언론 흐름은 경제활동, 고용, 노후준비, 건강, 생활복지 등에 대해 집중 보도되었다. 하지만 고령장애인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슈가 부각되지 않은 탓에 보도량이 매우 적었다. 이번에 모니터링한 기사도 주제를 보면 전반적으로 적은 보도량에 비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중단’, ‘커뮤니티케어’, ‘평생교육’ 등 고령노인에 관한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그러나 소득보장, 의료보장, 주거권, 노인일자리 부족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언급이 적어 한정적인 보도에 아쉬움을 남겼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이슈는 다양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언론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변용찬(2006)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장애인 중 73.1%가 ‘의료보장’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으로 소득보장(67.5%), 주거보장(25.4%), 이동권 보장(20.5%)이 차지하였다. 그럼에도 언론보도 기사에서 고령장애인에 대한 사회 문제 제시와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기사를 찾기엔 부족하였다.



III. 결론 및 제언

위에서 살펴본 고령장애인 관련 보도된 결과를 종합하면 장애인이나 고령자에 비해 고령장애인에 대한 기사는 보도량과 질 모두 부족했다. 적은 보도량, 한정적인 보도 주제는 고령장애인에 대한 정책의 필요성을 사회에 환기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많이 보도된 주제를 살펴보면 고령장애인을 ‘생산 활동 주체’가 아닌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독자로 하여금 고령장애인을 수동적인 대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편견을 갖게 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돌봄이 아닌 고령장애인의 삶을 개척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보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에 대한 주제는 장애계와 노년계 모두에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언론보도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필자가 2019년 고령장애인 고용에 대해 연구한 논문⁵⁾에 따르면 고령장애인은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낮은 여성 고용률, 높은 비정규직 및 비임금근로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고령장애인은 나이와 장애에 상관없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였다. 따라서 넓은 영역에서의 취업 보장을 위해 장애인고용제도와 고령자고용제도의 통합화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언론으로서 향후 고령장애인만의 특화된 사회적 욕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고령장애인의 입장과 시각에서 보도하고, 장애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올바른 고령장애인 정책 방향이 설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신재민(2019). 고령장애인의 취업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매뉴얼’ 기획모니터

서 문 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I. 들어가는 말

1. 모니터 목적 및 필요성

이 모니터는 장애인 권리의 완전 구현을 위해 그동안 운영된 정부부처의 장애인 관련 매뉴얼의 용어를 조사·분석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 몇 년간 사회의 장애 인권 의식은 향상되었으나 관련된 각종 법령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러한 한계는 법을 이해하고 집행하는데 어려움을 유발한다. 때문에 장애인 단체는 권리 구현에 미진한 법 조항 개정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다.

이 법을 기초로 제작한 정부 각 부처의 장애인 관련 매뉴얼은 비장애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고, 사용 주체가 공무원이라 법령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매뉴얼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자는 장애인이므로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이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매뉴얼 내용을 살펴서 바꿀 내용이 있는지 파악해 이를 개선하여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모니터 대상

이 모니터의 대상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등 행정부와 대법원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관련 10개 매뉴얼이다.

〈표 1〉 정부부처 장애인 관련 10개 매뉴얼

정부 부처	매뉴얼	제정연도
방송통신위원회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	2012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2012
행정안전부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2012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2
대법원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013
여성가족부	장애인 성인권 교육 매뉴얼	2013
행정안전부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2014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2014
경찰청	장애인 수사 매뉴얼	2015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2017

3. 모니터 방법

본 모니터는 10개 정부부처 매뉴얼에서 부적절한 장애 관련 용어의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그 대체 용어를 제시하는 것으로 진행했다.

모니터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종류와 명칭으로 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는 장애인을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동조2항에서는 이를 세분화하여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고 있다. 이는 다시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의 15개 장애로 분류된다.

〈표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8.12.31 기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병변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장애	시력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장애	청력장애, 평형기능장애
		언어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관의 장애	신장장애	투석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받은 경우
		심장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 기능 이상
		간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호흡기 기능 이상
		장루·요루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요루
		뇌전증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 장애	지적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장애	소아청소년 자폐 등 자폐성 장애
	정신 장애	정신장애	조현병, 분열형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장애

이외 장애인식과 관련해서는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의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¹⁾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센터 ‘올바른 장애 용어 및 표현을 위한 언론 가이드북’²⁾을 참조하였다.

II. 모니터 결과

1.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방송통신위원회, 2012)

가. 내용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2010년 5월 장애인을 만났을 때 꼭 필요한 에티켓 100개를 담은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1차 개정판)’을 발표했다.

2) 한국장애인인권포럼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는 2013년 12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올바른 장애용어 및 표현을 위한 언론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이 가이드북은 스마트워크를 통해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기업과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스마트워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하는 업계가 참고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접근성 관련 법령(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국내·외 기술표준 등 현행 법령·지침·표준 등과 연계하여 스마트워크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방안을 총망라하여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워크 시설·기기·서비스별 접근성 제공 방안을 비롯해 이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접근성 평가 체크리스트, 스마트워크 접근성 관련 법률·표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간질	14	뇌전증
장애를 지니다	10, 35, 63	장애를 갖다

- 1) 간질 : 뇌전증 장애의 옛 법령 용어로 환자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담겨 있어 사회참여에 제약이 있다는 문제에 따라, ‘뇌전증’이란 새로운 공식 명칭을 만들어 2014년 7월 29일부터 사용하고 있다.

2.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국가인권위원회, 2012)

가. 내용

이 매뉴얼은 신문 등 다양한 매체에 종사하는 언론인이 장애인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와 인식을 통해 장애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으며, 제작 시 사전 고려 사항에 대한 가이드라인, 기사나 방송내용에서 장애인 묘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영상표현, 장애인 캐릭터연출, 인터뷰 시 고려 사항), 방송이나 언론 현장에서 장애인이 참여할 경우에 필요한 가이드라인 등으로 구성하고, 세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으며, 관련 법률 조항들도 실려있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간질	15, 56	뇌전증
장애를 지니다	164	장애를 갖다
정신지체	71, 57	지적장애

- 1) 정신지체 : 정신지체는 개인의 지적 손상 정도에 초점을 두는 용어다. 개인이 가진 강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장애계의 의견에 따라 2007년 10월 장애인 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적장애로 변경하였다. 교육부도 2016년 6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신지체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를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로 변경하였다.

3.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012)

가. 내용

이 매뉴얼은 공직 내에 장애인 공무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제정된 인사관리 지침서다.

주요내용은 채용과정, 보직관리, 근무평정 등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관련 제도와 법령을 사례와 Q&A 등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매뉴얼 후반에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수행 사례를 인터뷰 형식으로 실고 있는데, 가까이 있는 것만 보이는 어느 시각장애인 공무원이 ‘견방진’ 사람으로 오해받기도 한 에피소드 등이 사실감 있게 실려있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결과 부적절한 장애 관련 용어가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간질	4, 10, 23, 59, 69, 138	뇌전증
장애 극복	52	재활 의지
	106(1), (2)	저시력 장애로 불편한 문자 생활에 도움을 주는 독서확대기로서
정신지체	36, 154	지적장애
휠체어 화장실	14	화장실의 휠체어 사용 가능 여부 확인
휠체어에 의지한 상태	53	휠체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휠체어 장애인	87	휠체어 사용자
휠체어 타는 사람	31	휠체어 사용자

- 1) 장애극복 : 장애는 극복되는 게 아니고, 생활하는 동안 장애인의 삶에 계속 영향을 주는 것이다.
- 2)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화장실 : 휠체어에 의지하다 등의 표현에서 휠체어는 보조기구에 불과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보다 더 부각된다. 따라서 장애인을 지칭할 때에는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사람. 즉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 목발을 사용하는 사람 등으로 표현해야 한다.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2010년 공직 내에 장애인 공무원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³⁾되었고, 2012년 내용이 보완되었다. 그러나 장애인 관련 용어의 정비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4.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 2012)

가.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를 이유로 보험인수를 거절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기준을 토대로 보험인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공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3) 행정안전부, 2010. 2. 11., “장애인공무원 인사관리,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보도자료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에 대한 보험차별이 되는 사례와 그에 대한 기준을 인수단체, 보험계약 및 유지, 보험금 지급 등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차별의 입증 책임과 정당한 사유의 내용 역시 구체적으로 담았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간질	9	뇌전증

5. 대법원 : 장애인 사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2013)

가.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지체장애·뇌병변장애·시각장애·청각장애·언어장애·정신장애 등 각 장애 유형별 특성에 따라 소송절차의 각 단계에서 법원이 제공할 수 있는 사법 지원 방안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판사 및 법원 공무원이 소송절차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때 상세하고 친절한 길잡이 역할을 하여 장애인의 사법 접근성을 쉽게 하고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회생·파산 절차뿐 아니라 일반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간질	21, 20	뇌전증
장애를 입게 되다	21, 23	장애를 갖다
장애인이 아닌 사람	머리말, 43, 66, 68	비장애인

6. 장애인 성 인권교육 매뉴얼(여성가족부, 2013)

가. 내용

이 매뉴얼은 국제가이드라인 3레벨에 해당하는 12세~15세(초등고학년~중학생), 특수학급의 장애인(시각장애+지적장애, 청각장애+지적장애, 지체장애+지적장애 및 지적중증)을 중심으로 제작되었다. 지적장애인을 중심으로 매뉴얼이 구성



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은 각 회기별 Tip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정상인	23	비장애인
정신지체	29, 12, 13, 15	지적장애

- 1) 정상인 : 장애인의 상대어는 ‘정상인’이 아니고 ‘비장애인’이다. ‘정상인’은 말이나 글의 흐름상 ‘장애인’의 상대어로 쓰일 때 문제가 된다.

7.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행정안전부, 2014)

가. 내용

이 매뉴얼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통해 비장애인 공무원이 장애를 이해하고 동료로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침서다.

장애에 대한 기초지식을 퀴즈로 알아보기, 장애인 공무원 근무사례, 장애유형별 특성과 비장애인 공무원들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장애인 차별금지 정책, 인사정책 등이 담겨져 있다. 또 15가지 장애 유형별 특성, 장애인과 함께 근무할 때 배려할 사항과 바른 표현 등이 수록되어 있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간질	17, 20, 26	뇌전증
장애를 입다	24	장애를 갖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28	(삭제)
휠체어 장애인	13	휠체어 사용자

- 1) 장애를 입다 : 장애는 질병이 아닌 후유증상이다. 따라서 “장애를 앓고 있다”라는 표현은 비장애인에게 장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재활 과정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개선될 수는 있으나 이를 질병의 치료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장애를 갖다”로 표현해야 할 것이다.

- 2) 휠체어에 의지하다 : 사용자가 보조기구에 종속된 느낌을 주고 있다. 이 매뉴얼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의도를 충분히 전달한다.

8.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국가인권위원회, 2014)

가. 내용

이 매뉴얼은 장애인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시설종사자의 인권 감수성을 짚어보고 장애인 인권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되었다. 시설종사자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하여 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권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빚어지는 다양한 인권 상황 사례를 정리하여 종사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구체적인 인권 가이드라인을 담았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간질	102	뇌전증
장애를 입다	489	장애를 갖다
정상인	73, 67	비장애인
지적장애가 있는 정신지체인	41	지적장애인

9. 장애인 수사 매뉴얼(경찰청, 2015)

가. 내용

수사과정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경찰의 원활한 사건 수사를 돕기 위하여 제작한 지침서다. 장애인 사건을 수사하기에 앞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배경지식과 마음가짐, 장애의 유형별로 의사소통의 폭을 넓혀 경찰관과 접촉하는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수록하였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간질	23, 49, 50	뇌전증



10.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방송통신위원회, 2017)

가. 내용

이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방송의 제작 기준과 방법, 준수사항 등을 정하고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방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장애인방송 제공에 관한 기본 준수사항, 장애인방송 유형별 제작 지침, 기타 권장 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나. 모니터 내용

모니터 내용	출현 쪽	수정 제안
장애를 지니다	15	장애를 갖다
화면해설방송은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 이용자이며,	15	화면해설방송은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 이용자며,

- 1) 화면해설방송은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주 이용자 : ‘시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만 써도 뜻은 전달된다. ‘선천적 및 후천적으로’란 표현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다.

11. 10개 매뉴얼 용어 사용 분석

10개의 장애인 관련 정부 부처 매뉴얼의 부적절한 용어나 표현은 다음과 같다.

〈표 3〉 매뉴얼 모니터 분석표

매뉴얼	간질	장애 극복	장애를 입다/지니다	정상인	정신 지체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의지	기타	계
스마트워크 장애인 접근성 가이드북	1	0	3	0	0	0	0	0	4
언론인을 위한 장애인권 길라잡이	2	0	1	0	2	0	0	0	5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	6	3	0	0	2	3	1	0	15
장애인 보험차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1	0	0	0	0	0	0	0	1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2	0	2	0	0	0	0	0	4
장애인 성 인권교육 매뉴얼	0	0	0	1	4	0	0	0	5

매뉴얼	간질	장애 극복	장애를 입다/ 지니다	정상인	정신 지체	휠체어 장애인	휠체어 의지	기타	계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	3	0	1	0	0	1	1	0	6
장애인 인권 길라잡이	1	0	1	2	1	0	0	0	5
장애인 수사 매뉴얼	3	0	0	0	0	0	0	0	3
장애인방송 프로그램 제공 가이드라인	0	0	1	0	0	0	0	1	2
계	19	3	9	3	9	4	2	11	50

〈표 3〉의 분석표에서 보듯 10개의 장애인 관련 정부부처 매뉴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용어는 ‘간질’이었다. 이는 매뉴얼의 대부분이 ‘뇌전증’이란 새로운 공식 명칭을 만들어진 2014년 7월 이전에 제정되어서이다. 그러나 ‘정신지체’ 용어는 ‘지적장애’가 2007년 장애인복지법에서 개정, 사용되고 있음에도 매뉴얼에서 9건이나 나타나 있다는 것은 장애 관련 용어 변화에 대해 그만큼 둔감하거나 검수가 부족한 상태라는 것을 반영한다. 매뉴얼의 상시적 관리 필요성이 강조되는 지점이다. 매뉴얼별로는 행정안전부의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이 전체 50개의 부적절한 용어 중에 15개를 점하고 있고, 역시 같은 부의 ‘장애인 동료와 함께 일하기’가 6개를 점하고 있다.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 매뉴얼’은 ‘간질’ 19개 중에서 6개를 사용하고 있다.

Ⅲ. 나오며

10개의 장애인 관련 정부부처 매뉴얼을 살펴보면서 개선되어야 할 용어나 표현 사용에 대해 모니터하고,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시대에 따라 변화한 내용이 있는지 분석해 보았다. 매뉴얼의 대부분은 대체로 장애인과 함께 하려는 노력이 엿보인다. 다만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아쉬운 점과 그에 대한 대책 몇 가지를 제시하며 이 논의를 마치고자 한다.

매뉴얼의 상시적 관리 : 매뉴얼은 제정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수정되어야 한다. 다른 법령이나 지침도 상호 비



교하면서 장애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이 점에서는 다소 미흡했다. ‘정신지체’ 용어가 변경된 것이 2007년임에도 몇몇 매뉴얼은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나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꾸준히 모니터링하거나 매뉴얼을 제정한 부처에서 장애인 관련 단체에 자문을 구해야 할 것이다.

매뉴얼의 명칭 통일 : 장애인 관련 정부부처 매뉴얼을 보면 명칭이 각각이다. 매뉴얼이 3개, 길라잡이가 2개, 가이드라인(가이드북)이 4개다. 국립국어원은 매뉴얼이란 용어에 대해 ‘설명서’, ‘안내서’, ‘지침’으로 순화해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어려운 외국어 대신 국어로 통일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개정 시 수정할 것을 권고한다.

초등학생 백일장 시 속에 나타난 20년 장애인 인식의 변화

방 귀 희

승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I. 들어가며

그동안 초중고 학교에서 특별활동 시간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었는데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의무화로 사기업, 공기업, 공공기관, 정부 등 모든 집단에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5월 29일 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 2(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에서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연 1회 1시간의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였을 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을 위해 동법동조 3(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위탁 등)에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애인식교육을 누가 어떤 내용 더 나아가 어떤 방식으로 실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사회에 장애인 인식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한다.

(사)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펼치고 있는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가운데 전국 초중고학생 백일장이 2018년에 20회를 맞이하였다. 백일장 1회부터 20회까지 단 한 회도 빠지지 않고 시 부문 심사에 참여하며 초등학생들의 시 작품



을 보면서 장애인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그래서 20년 동안 선정된 백일장 시 대상 작품에 나타난 초등학생의 장애인 인식 변화를 탐색하여 장애인 인식 개선의 모형을 제시 하고자 한다.

II. 장애인 인식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논문은 많으나 『장애인문화예술의 이해』(방귀희, 2013, 도서출판솜대)를 중심으로 요약하여 소개한다.

1. 형성 요인

가. 보편인간의 지향

장애인에 대한 편견의 형성 배경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 그렇기는 하여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의 동일성 가운데 하나로써 이질성을 배척하는 동질의식이 별나게 강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같은 민족으로만 같은 언어와 같은 문화를 누리고 같은 땅에 수천 년 살아온 나라는 이 세상에서 손꼽을 정도로 적으며 그런 민족일수록 이질성에 미숙하므로 자연스럽게 동질성이 강할 수밖에 없다. 동질의식이 강할수록 평균된 보편성의 것에 가치를 두게 되며 평균과 동떨어진 이질의 개성 있는 것일수록 비가치화한다. 물론 우리의 문화가 서구 지향적으로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한시적인 특정 세대에서만 나타난다고 할 정도로 근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도 동질성 위주의 문화가 존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사람의 경우도 평균인간, 동질인간, 보편인간을 지향하게 되며 그 기준에서 이탈될수록 존재가치를 상실한다. 거기에 우리 선조들이 살아왔던 촌락단위의 정착된 농경사회는 동질의식이 되며, 이는 유교적 배경을 가진 농경사회의 특성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우리 선조들은 농경문화 속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기후와 대자연이라는 강적을 상대로 일치단결하여 싸워야 했고, 일정한 시기에 씨 뿌리고, 못자리 만들고, 모심고, 김 매고, 보 막고, 나락 베고, 나락 들고, 타작하는 그때그때의 적절한 시기에 한정하여 일을 하여야 하는 노동력 결집형으로 자연을 일구어야 했었다. 따라서 농경문화에서는 노동력을 창출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정신건강과 육체건강 즉 오체구족(五體俱足)한 사람만이 그 시대의 보편인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나. 완전인간의 지향

개성을 평가하지 않는 보편인간을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어느 한 가지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을 인정하기보다는 이것저것 고루 갖춘 완전지향을 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작용하고 있다. 즉 필요한 물건을 그때그때 구입해서 쓰는 일품주의(一品主義)가 아니라 쓸모가 있거나 없거나를 따지기보다는 이것저것 구색을 갖추기 위하여 한 세트에 구입하는 전품일절주의(全品一切主義)가 지배적이다. 곧 보편주의 사회, 완전주의 사회에 있는 장애인은 막스 쉐러의 보편자로서 행동하는 사람이 아닌 개별자로서 행동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에 항상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열등감을 갖도록 하는 사람으로 치부하게 된다.

다. 욕구불만의 전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욕구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욕구불만을 적절히 해소시키는 사람을 우리는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건강치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요인은 한국인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서구의 다른 나라에 비해 이러한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메커니즘(방어기제)이 장애인에게 투사되어 편견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욕구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대상을 자신보다 못한 사람이나 대리물로 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전위(displacement)라고 한다. 이러한 전위의 대상으로 흔히 장애인이 등장되었는데 한국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은 바로 이 같은 사회의 편견구조로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런 인식 속에서 형성된 장애인관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생각이라고 쉽게 설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생각이 이 땅에 살고 있는 450만 장애인의 생명줄을 잡고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관을 바로 잡아 놓지 않으면 소수의 장애인은 다수의 비장애인 횡포에 꼼짝없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떤 장애인관을 갖느냐에 따라 장애인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친다.

2. 시대별 장애인관 변화

가. 1980년대 장애인관

우리나라 언론에 장애인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지기 시작한 것은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였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의 기틀이 세계장애인의 해를 기해 마련됐기 때문이다.

세계장애인의 해라는 커다란 이벤트를 치루기 위해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장애인 기사를 신거나 방송을 했는데 대부분 장애를 딛고 성공한 장애인의 극복기였다.

마침 1981년에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필자의 기사가 당시 가장 지면을 많이 차지하는 톱 기사였다. 당시 언론에서는 장애인의 어려움만을 부각시키면서 피나는 노력으로 그 고통을 이겨냈다는 것과 그 고통 뒤에는 희생적인 어머니가 있었다는 사실로 귀결시켰다.

당시의 장애인관은 한마디로 장애인의 장애 극복을 인간 승리로 극대화시키고 장애인 가족 특히 어머니의 역할을 헌신적인 모성으로 감동을 유발시켰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1980년대에는 모든 장애인 문제의 해결사로 정립회관의 황연대 관장이 등장했다. 그녀는 소아마비장애인으로 의사가 됐지만 장애인복지를 위해 흰 가운을 벗고 장애인과 함께 장애인의 대모로 활약했다. 1982년도 장애인 법관임용 탈락 사건이 발생했을 때 황연대 관장은 임용에서 탈락한 장애인을 위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때 언론은 그 모습을 그대로 실었고 그 모습은 민심을 자극했다. 결국 사법부는 장애인 법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당시 언론은 장애인에 대해 다분히 동정론을 폈다. 그 장애인 법관들이 뛰어난 능력을 가진 수재라는 점

을 강조했다. 그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법부의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목발을 사용하는 기타리스트 김병식이 연예계에서 활동을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병식은 삼육재활원 출신으로 장애 때문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다시피 하여 재활원에서 성장을 하였고, 기타연주와 작곡, 편곡, 노래 등 음악에 재능을 보여 장애예술인으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방송에 모습을 자주 보였었는데 사람들은 김병식을 음악인으로 보기 전에 그가 살아온 삶에 더 주목하였다.

그 후 1988년 서울장애인올림픽을 치르면서 드디어 장애인 문제가 떠오르기 시작했다. 장애인올림픽 개최국의 장애인복지 수준을 점검해보는 기사였다. 그때 가장 먼저 서울 시내의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0점이라고 편의시설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사가 등장했다.

하지만 여전히 언론에서는 장애인 선수들의 장애 극복에만 초점을 맞췄다. 선진 외국의 장애인 체육이 얼마나 발전했는가를 소개하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장애인 체육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형성된 장애인관은 장애인이 더 이상 집에만 있고 싶어 하지 않고 비장애인과 똑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힘들게 휠체어바퀴를 굴리며 골인지점을 향해 달리고 또 달린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

80년대의 장애인관은 동정적인 측면이 강했지만 장애인의 욕구가 서서히 표면화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나. 1990년대 장애인관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애인복지에 큰 변화가 일어난다. 장애인 문제를 장애인 스스로 해결하기 위한 장애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장애운동은 장애인 인권이 기본 이념이 되기 때문에 장애인복지가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그래서 언론에는 장애인이 시위하는 모습이 자주 실렸다. 장애인복지를 위해 장애당사자가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장애인 인권문제도 세분화되었다. 이동권, 교육권, 노동권, 참정권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이 우리 사회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제시했다. 그 과정에서 장애인복지 지도자상도 교체가 되었다. 장애인 운동가가 새로운 지도자로 등장한 것이다. 온몸에 쇠사슬



을 묶고 장애인이 이 땅에서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모든 차별과 맞서 싸우는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대표가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된다.

박경석 대표는 대학 재학시절 행글라이더 사고로 중도에 장애인이 됐고 장애인 문제를 풀기 위해 현장으로 뛰어들었다. 이렇게 장애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면서 장애인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다.

다. 2000년대 장애인관

드디어 제17대 국회에 야당과 여당에 각각 장애인비례대표로 국회에 진출하게 된다. 열린우리당의 장향숙 의원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여성장애인이고 한나라당의 정화원 의원은 시각장애인이다. 당시 언론에서는 장향숙 의원이 무학력자이고 가난한 장애인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무학, 무직이란 단서를 붙여 그녀를 소개했다.

정화원 의원은 우리나라 최초로 시각장애를 갖고 국회의원이 됐기 때문에 언론에서 그의 시각장애를 강조했다. 시각장애 국회의원과 휠체어 국회의원 탄생으로 장애인이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2000년대 장애인관의 큰 변화는 장애인스타들이 대거 나타났다는 것이다.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 이희아, 휠체어개그맨 박대운, 인기 듀오 클론의 강원래, 영화 <말아톤>의 실제 주인공 배형진, 인기 예능프로그램의 코너 <준호야 사랑해>의 김준호 등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장애인 스타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라. 2010년대 장애인관

2013년 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사건인데 지금 우리 뇌리 속에는 그 사건이 아주 오래된 일로 인식되거나 아예 잊어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애인계는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건이란 바로 장애인총리의 탄생을 물거품으로 만든 장애인복지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장애인 차별 사태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란 기록을 세우며 제18대 대통령이 된 박근혜 당선인은 김용준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하였다. 하지만 언론에서는 총리 지명자 김용준의 장애를 노골적으로 문제 삼으며 총리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제기하며 자진 사퇴라는 백기를 들게 하였다.

2017년은 언론에서 장애라는 단어의 노출빈도가 높았다. 어금니아빠 이영학이 지적장애와 정신장애를 갖고 있는 장애인이라는 것과 가수 김광석 사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딸 서연양이 지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계속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2017년에도 특수학교 건립을 반대하는 님비현상이 나타났다. 서울 강서구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성태 의원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장애인 부모를 외면하고 도망가듯이 행사장을 빠져나가 비난을 받았다. 이 뉴스도 언론에서 많이 다루어졌다.

그런데 이 소식 역시 장애인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장애인부모가 무릎을 꿇어 장애인교육시설의 절실함은 전달되었지만 장애자녀를 키우려면 저자세로 호소해야 한다는 약자의 모습으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2018년은 장애를 남발하는 한해였다. 잔인한 살인 사건의 범인을 심신(心神)미약으로 규정하려고 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되었는데 원래 심신(心神)은 정신적인 문제를 뜻하는데 정신과 육체를 가리키는 심신(心身)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장애라는 단어는 없지만 장애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밖에도 모든 사회 문제를 분노조절장애, 충동조절장애, 기억장애, 반사회성장애, 성격장애, 다중인격장애 등 장애와 연결시켜서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을 장애로 판단하고 있다.

11월 24일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로 발생한 통신 대란을 각 언론마다 통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통신장애가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되었다. 교통 혼잡을 의미할 때도 교통마비라고 하여 장애를 뜻하는 단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듯 아직도 장애를 부정적인 의미로 비유하고 있는 언어 습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Ⅲ. 초등학생 장애인 인식 변화

1. 연구 방법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1996년에 창립되어 장애인먼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장애인계에서 유일하게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다양한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 초중고학생 백일장은 2018년 20회를 맞이하였다.

백일장은 시, 산문, 방송소감문, 독후감, 드라마 소재, 웹툰 부문으로 공모하여 각 부문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佳作으로 시상하고 있다. 2018년 응모작품 수는 총 27,351편으로 매년 3만여 명의 학생들이 장애인을 생각하며 글을 쓰고 있다는 것은 장애인 인식개선 효과가 얼마나 클지 짐작할 수 있다.

백일장 가운데 시는 유일하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의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다. 그래서 1회부터 20회까지 대상을 차지한 시를 분석하여 20년 동안 초등학생들의 장애인 인식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999~2018년 전국 초중고학생 백일장 시 대상 수상작의 특징은 <표1>과 같다.

<표 1> 백일장 시 대상 수상작의 일반 특징

번호	연도	이름	학년	제목	문제	노력	변화	비고
1	1999	김세연	5	시계	협동 숙제	느리지만 기다려줌	똑같은 친구	초침과 분침이 함께 시간을 만듦
2	2000	백승무	6	거울	차가운 마음	함께 아파함	아름다운 버팀목	똑같이 표정 짓는 마음의 거울
3	2001	홍낙원	5	동그라미	네모 마음	동그라미 마음	울타리	장애인 친구가 모나지 않아서
4	2002	황정윤	4	스펀지	모든 장애유형	스펀지가 됨	받아들임	처음부터 장애 포용
5	2003	김대욱	5	내 친구	전학 가서 만난 짝궁의 장애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낯설지 않음	장애인 친구의 친절
6	2004	이혜진	5	우리는 하나	지체장애	착한 마음	우리는 하나	현상 설명
7	2005	석민규	4	휠체어 친구	친구가 장애를 갖게 된 후 낯설	먼저 다가감	단짝 친구	꿈속에서 손잡고 달리자

번호	연도	이름	학년	제목	문제	노력	변화	비고
8	2006	조민영	6	마음으로 보는 세상	시각장애	관찰	보는 눈이 조금 다를 뿐	같은 곳을 본다
9	2007	강수현	4	눈으로 말해요	청각장애	눈 사인 언어	소통	눈이 바쁘다
10	2008	김시현	4	망설이다	망설임	친구하자	친구가 되다	심리 묘사
11	2009	육보미	6	자동문	도움반	관찰	마음에도 자동문이	스스럼없이 열리길
12	2010	정명주	6	노란블록	시각장애	관찰	노란 블록이 되자	제안(노란 블록이 장애아동을 상징할 수도 있음)
13	2011	최다니엘	4	휠체어에도 봄 햇살을	사회적 편견	예비장애인	장애인도 마음껏 달리는 날이 왔으면	사회 문제
14	2012	김시원	6	햇살과 먹구름	지적장애	관찰	점점 친구가 되어 감	총소리를 내며 인사하면서 접근
15	2013	임세혁	3	마음의 눈	달린 마음	마음을 열고	모두 같은 모습	자기 점검
16	2014	김상윤	5	마음의 38선	장벽	장벽은 허물어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일	사회문제
17	2015	진민영	4	우정의 비	모든장애유형	마음에 우정이	행복한 마음	현상
18	2016	김희진	2	오빠는 3살	오빠의 장애	오빠와 등교하며	오빠 사랑	장애인 가족
19	2017	임희진	5	우산 줄다리기	특수반	약간의 이기심	우정	장애인 친구의 배려
20	2018	장수연	6	수연이와 6학년3반 친구들	제일 느낌	반 친구들의 도움	제일 행복	장애인 당사자

20편 가운데 장애가족 이야기 1편, 장애당사자 이야기 1편이고 나머지는 직간접으로 경험한 장애인 친구에 대한 내용이다. 수상자 가운데 저학년은 2명에 불과하여 저학년 학생들은 상징과 은유로 장애인에 대한 마음을 표현하는데 조금은 미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재로 사용한 장애유형은 지적장애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휠체어 5명, 장애유형 복합 3명, 시각장애 2명 청각장애 1명으로 나타났다.

제목에 나타난 단어는 친구와 마음이 각 3개로 가장 많았고, 휠체어가 2개로 초등학교 학생들은 장애인을 휠체어로 상징하고 있으며,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친구이며, 장애인과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착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백일장 대상 대표 시

20년 동안 초등학생이 장애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변화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대표시 5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시계/제1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 부문 대상 수상작

오늘 내 준 사회속제는
기철이도 함께 해야 될
협동 숙제

하지만 기철인.....

허우적 허우적 손이 먼저 말을 하는 아이
“이...경 어.....땡깡 하는거.....야”
힘겨운 입술이 애처러운 친구

“우리가 끝지일꺼야”
한숨 짓는 나에게
세연아!
낮은 소리로 시계가 속삭인다.

짹짹 짹 짹 초침도 있지만
 짹-깅 분침도 함께 간다.
 둥근 하루 둥근 세상 만들며
 함께 간다고....

아! 이제야 알겠어
초침과 분침이 서로 도와
고장없는 시계가 되 듯
나와 기철이도 함께 가야할 친구라는 걸
숙제하고, 뛰놀고,
나보다는 느리지만
마음은 똑같은 친구라는 걸

기철이는 허우적 허우적 손이 먼저 말을 한다는 것으로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있는 것 같다. 기철이를 바라보는 세연이 마음은 애처로움인데 이것은 동정과는

다르다. 애정이 있는 안타까움이다.

협동 숙제라는 현실에서 매사에 느린 기철이 때문에 경쟁에서 뒤떨어질 것이 뻔하기에 한숨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 그 순간 시계를 보고 깨닫는다. 분침은 초침에 비해 느리지만 초침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분침이 이동을 하듯이, 서로의 역할이 다르며 서로 다른 것이 함께 가야 시간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듯이 장애인 친구와 자기는 함께 가야할 친구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자 마음이 똑같다는 것도 알게 된다. 세연이는 장애인 친구를 위해 기다려주는 넉넉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나. 눈으로 말해요/제9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 부문 대상 수상작

내 친구 귓속은
항상 조용하데요

그래서
친구와 난 눈으로 말해요

화장실 급해서
한번 찡긋
밖에 나가 놀자고
두 번 찡긋 찡긋
선생님 화나셨다고
세 번 찡긋 찡긋 찡긋
신나는 점심시간이다
두 눈이 동글동글

하루 종일
바쁜 친구눈
내 눈

청각장애 친구를 직접 가져본 경험이 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청각장애 친구와 소통하는 방법을 잘 설명하였다. 눈을 찡긋하는 것으로 친구와 의사 소통이 가능하다. 점심시간에는 두 눈이 동글동글하다고 하여 자유와 즐거움을 잘 표현하였다.

청각장애라는 단어는 없지만 청각장애인 친구와 사귀는 것이 어렵지 않고 말이



아니더라도 눈으로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재미있게 소개하여 청각장애 인과의 거리를 좁혀주었다.

다. 노란 블록/제12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 부문 대상 수상작

길을 걷다가 본
울퉁불퉁 노란 블록

우리의 작은 친구들을 도와주지
‘앞으로 가세요.’
‘멈추세요.’

우리도 작은 친구들의
노란 블록이 되어주자.

거리에서, 건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노란색 점자 블록을 매개로 시각장애인을 생각하게 만든다. 점자블록이 하는 역할은 방향, 시작과 끝 지점을 알려준다. 우리의 작은 친구라는 것으로 노란 블록은 시각장애인 뿐만 아니라 자기 또래의 장애인 친구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명주는 노란블록이 되어주자는 제안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장애인과 함께 하기를 권하고 있다.

라. 마음의 38선/제16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 부문 대상 수상작

철컹철컹
들리나요.
보이지는 않지만
모두 느낄 수 있어요.

북한과 남한이 통일을 해야 하듯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통일해야 해요.

철컹철컹
들리나요.

마음의 쇠창살 소리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통일했듯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통일해야 해요.

마음의 38선
통일해야 해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통일을 목표로 통일 준비로 바빠질 것이다. 통일의 필수 조건은 서로 다른 점을 받아들여 포용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차이로 인한 차별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차별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마음의 38선’은 우리의 과제를 잘 드러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마음의 벽, 사람의 마음을 꽂꽂 묶고 있는 쇠창살이 존재하니 그 쇠창살을 풀고 벽을 허물어 통일을 하자며 장애인 인식을 사회 문제 화시켰다.

마. 수연이와 6학년 3반 친구들/제20회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 시 부문 대상 수상작

나는 6학년
나는 걷지 못 한다 앉지도 못 한다
세상에 일찍 나왔더니 몸은 느리게 커간다
다른 친구들보다 뭐든 느리다
그래도 친구가 있어 행복하다

내 말을 잘 알아들어주고 챙겨주는 서연이
노트쓰기를 도와주는 한별이
말동무 해주는 나현이
6학년 3반 친구들아 모두 모두 고마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느리지만
제일 행복하다



시상식장에서 수연 학생을 만났다. 아빠와 엄마 온 가족이 총출동하여 딸의 수상을 축하해주는 것을 보고 수연이는 가정에서도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수연이는 정말 장애가 심했다. 휠체어에 앉아서도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이지만 학교에서 친구들과 티 없는 우정을 나누고 있다는 것이 잘 표현된 시를 통해 요즘 초등학생들이 장애인 친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지 알 수 있다.

수연이가 속해있는 6학년 3반처럼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 통합교육은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3. 백일장 시 대상 수상작 내용 분석

백일장 시 속에는 자신이 경험한 사례가 소개되어있는데 사례 간 그리고 사례 내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인 비교분석방법(comparative analysis)을 사용하여 코딩(coding)을 하였다. 자료 분석은 대상 수상자가 경험한 사례들을 상황으로 의미화 하였고, 그 상황들을 공통의 내용으로 묶어서 분류한 후 주요 상황을 다시 범주화시키는 과정을 통해 도출된 의미 단위들을 17개로 요약했고, 이 도출된 의미 단위 요약들을 포함하는 보다 상위의 개념인 8개의 하위 구성요소들로 묶었고, 하위 구성요소들 간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험의 일반적 구조를 찾기 위해 동질적인 하위구성요소들을 묶어서 다시 4개 구성 요소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다음 <표2>와 같이 완성하였다.

<표 2> 백일장 시 대상 수상작의 장애인 인식 매트릭스

구성요소	하위요소	의미단위
거부감	낮춤	- 기다려주기 - 망설이지 말고 먼저
	차가운 마음	- 함께 아파함 - 동그란 마음
관찰	받아들임	- 장애인 친구의 친절 받아줌 -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
	방법 찾기	- 마음으로 보기 - 눈으로 소통

구성요소	하위요소	의미단위
환경	부정적 요인	- 사회 문제 - 사회적 벽
	긍정적 요인	- 열린 마음 - 행복한 마음
포용	이입	- 스펀지 - 자동문 - 노란 블록
	다가가기	- 친구가 되어감 - 진정한 우정

상위 범주인 구성요소로 빈도를 분석해보면 거부감 4개, 관찰 4개, 환경 4개, 포용이 8개로 초등학생들은 장애인 친구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으면서도 장애인 친구에게 관심을 갖고 관찰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며 장애인 친구가 처해있는 환경을 생각하면서 장애인 친구를 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학생은 10%에 불과해서 초등학생에게 아직 사회적 인식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 의미 있는 변화를 탐색하고자 백일장 대상 시를 5년의 분기별로 키워드를 분류하면 <표3>과 같다.

<표 3> 백일장 시 대상 수상작 분기 별 키워드

구간	연도	키워드	대표 의미	비고
1	1999 ~ 2003	시계, 거울, 동그라미, 스펀지	차이	반성
2	2004 ~ 2008	우리는 하나, 마음으로 보기, 눈으로 말하기	그들이 사는 법	관심
3	2009 ~ 2013	자동문, 노란블록, 봄 햇살, 마음의 문	대안 찾기	개방
4	2014 ~ 2018	마음의 38선, 우정의 비, 우산줄다리기	함께 하기	우정

이를 바탕으로 백일장 시 대상 수상작의 분기별 내용 특징을 분석하면 아래 <표 4>과 같다.



〈표 4〉 백일장 시 대상 수상작의 분기 별 특징

구간	연도	키워드	도전	결과
1	1999 ~ 2003	시계	기다려줌	협동
2	2004 ~ 2008	눈말	살펴보기	다르지 않다
3	2009 ~ 2013	자동문	방법찾기	다가감
4	2014 ~ 2018	줄다리기	배려하기	포용

가. 1기-기다려줌

시계, 거울, 동그라미, 스펀지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장애인 친구가 낮설고 거부감이 있지만 자기와 장애인 친구의 차이를 인정하고 친구의 느낌을 기다려주면서 협동해가는 시기이다.

중심 키워드 시계는 많은 교훈을 준다. 요즘은 전자시계가 많아서 초침, 분침, 시침이 있는 시계는 매우 고전적으로 느껴지지만, 시계의 원리는 초침이 60번을 째깍거리며 한 눈금씩 움직여서 분침이 한 눈금 이동을 하고 분침이 60번 움직여서 시침이 한 칸 이동하여 1시간을 만든다.

이렇게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진 바늘이 서로 다른 속도로 쉬지 않고 움직여 동그라미를 만들면서 시간을 운영하면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시계는 다르다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세상은 서로 달라야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철학을 보여준다. 초침, 분침, 시침이 서로를 향해 네가 틀렸다고 비난하면 시간이라는 질서가 무너진다.

장애인, 비장애인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느낌을 기다려주는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계의 원리로 일깨워주었다.

나. 2기-살펴보기

이 시기 키워드는 마음으로 보기, 눈으로 말하기 등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 장애인들이 사는 방식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자신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사람들은 장애인과 함께 하려면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어보려고 ‘잠시 만요’라고 말을 걸면 마치 그 자리에 없는

것처럼 못들은 척하다가 슬쩍 피해버리고, 청각장애인이 손짓으로 도움 요청하면 힐끗 쳐다보고 바쁜 듯이 발걸음을 옮긴다.

이렇듯 장애인을 피하는 것은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장애인과 함께 하려면 특별한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눈을 찡긍하는 것으로도 의사소통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눈으로 말해요’에서 잘 말해주고 있다. 말은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는 눈말도 있으니 부담 갖지 말라고 당부하는 듯하다.

다. 3기-방법 찾기

이 시기의 키워드는 자동문, 노란블록, 마음의 문으로 자신을 개방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니 대안이 나오고 그리하여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요즘은 문을 열고 닫는다는 개념이 많이 흐려졌다. 곳곳에 자동문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다. 자동문은 사람들에게 열고 닫는 수고를 덜어주며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문은 자동으로 열리지 않는다. 특히 장애인에게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도 자동문을 달아주자는 것으로 우리의 닫힌 마음을 꼬집으면서 장애인에게 스스럼없이 마음을 열자고 호소하고 있다.

장애인을 비롯한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대하는 우리 마음의 문을 자동문으로 바꿔야 한다는 필요성에 크게 공감이 된다. 그래서 중심 키워드를 자동문으로 하였다.

라. 4기-배려

이때는 마음의 38선, 우정의 비, 줄다리기라는 키워드가 등장하는데 함께하면서 배려를 하다 보니 우정이 생기고 그 우정이 완전한 친구가 되는 포용 현상으로 나타난다. 중심 키워드 줄다리기는 비가 오는 날 장애인친구와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가면서 줄다리가 시작된다. 비를 맞지 않으려고 슬쩍 자기 쪽으로 우산을 당겼는데 장애인친구는 자기 친구를 위해 우산을 밀어준다. 이기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이 미안해서 다시 장애인친구 쪽으로 밀어주며 우산 줄다리를 통해 우정의 줄다리를 하고 있는 모습이 한없이 귀엽다.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는 이렇듯 훈훈한 아름다움을 준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에 배려의 줄다리기가 이어진다면 장애인 인식 개선은 완성될 것이다.

4. 초등학생 장애인 인식의 변화 특징

가. 거부감

“우리가 꼴찌일 거야” / 한숨 짓는 나에게

장애인에 대한 거부감은 낮췄에서 생긴다. 장애인친구 때문에 꼴찌를 하게 될 것이 걱정스러워서 생긴 것이다.

내가 착한 눈으로 날 볼 때 / 눈이 부신 난 / 애써 고개를 돌렸지.

장애인친구에게서 고개를 돌린 것은 그가 싫어서가 아니라 선한 눈빛으로 쳐다 보기 때문에 눈이 부셔서라고 한 것은 장애인 친구가 자기에게 주는 피해가 고의적으로 해코지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다.

내가 너라면 / 네모가 되어 / 여기 저기 / 부딪혔을 텐데.

장애인친구를 보면서 만약 내가 너라면 너처럼 동그란 마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자기반성을 하기에 이른다.

같이 학교 갈까? / 같이 밥 먹을까?
망설이다 망설이다 / 짧은 손을 잡는다

장애인친구에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아직 장애인친구와 함께 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망설임 끝에 결국 손을 잡는다.

친구는 함께 어울리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1기에서 보인 장애인친구에 대한 거부감을 갖게 된 것은 초기 단계에서 발생한 현상이다.

나. 관찰

전학 온 첫날 / 떠나온 친구들이 / 그림지도 않을 만큼
내 친구가 내 마음에 가득찼다

통합교육이 확대되면서 초등학교에 장애학생들이 많아졌다. 전학을 가서 만난 짝꿍이 첫 번째 친구일 텐데 그 친구가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자기에게 먼저 친절을 보이자 옛 학교 친구들이 그림지 않다고 하였다.

내가 다리 하나 감추면 / 난 너와 하나
우리는 / 보는 눈이 / 아주 조금 다른 / 이웃이다.

장애 때문에 장애인친구가 자기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초등학생들은 장애인 친구를 어른들처럼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 현상 자체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편견이 들어설 틈이 없다. 이렇게 수용하는 단계를 지나면 장애인과 소통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어 함께 한다.

내 친구 귓속은 / 항상 조용하데요
그래서 / 친구와 난 눈으로 말해요

다. 환경

겉모습 조금 다르다고 / 차별하는 우리는 / 마음 다친 또 다른 장애인 아닐까?
마음의 38선/통일해야 해요.

초등학생들이 드디어 장애인 문제를 사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 사회적 환경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닫힌 문이 열리듯이 / 닫힌 마음도 열려라
마음을 열고 바라보면 / 우리 모두 같은 모습

그리고 우정의 비가 / 마음으로 떨어지면
친구랑 있으면 / 행복한 마음이 생긴다.



한편 개인적인 환경 변화도 필요하며 닫힌 마음을 열고, 장애인 친구와 함께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하였다.

라. 포용

초등학생의 장애인 인식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포용이다.

포용의 초기 단계에서는 자신은 스펀지로 모든 것을 다 수용할 수 있으니 자기한테 기대라고 장애인 친구를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의존적인 존재로 그리고 있다.

친구야 / 나 스펀지야
다리 아파 가는 길 / 울퉁불퉁 힘들어서 넘어질 때 / 나에게 넘어지렴
널 상처 나지 않게 / 폭신평신킨 받아 줄 수 있으니까

또한 자동문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어주자고 한다거나 방향을 알려주는 등의 도움을 주는 노란 점자블록이 되어주자고 하며 개인을 떠나 우리라는 공동의 의무를 말하면서 장애인친구 곁으로 옮겨가려는 심정적 이입을 하려고 노력한다.

우리들 마음에도 / 자동문을 달아서 / 마음을 열어주자
우리도 작은 친구들의 / 노란 블록이 되어주자.

포용의 중간 단계에서는 장애인친구의 마음을 이해하고 진심으로 다가간다. 마음만은 늘 함께 걷는다든지 점점 친구가 되어간다거나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는 것은 동등한 우정의 발로로 진정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늘 나보다 뒤에 처져 허둥지둥 / 무엇을 할 때마다 느릿느릿
하지만 / 마음만은 늘 함께 걸어요.

우리도 그 햇살에 녹아 / 점점 친구가 되어가네

젖지 않은 나와 친구의 한 쪽 팔이 / 더욱 따뜻하게 느껴진다.

진정한 포용이 되었다는 것은 장애인 당사자의 작품에서 더 확실히 증명이 된다.

자기는 장애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느리지만 6학년3반 친구들의 우정 때문에 제일 행복하다고 하였다.

6학년 3반 친구들아 모두 모두 고마워
나는 세상에서 제일 느리지만 / 제일 행복하다

포용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는 가정에서의 포용이다. 장애를 가진 오빠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오빠를 많이 사랑한다고 고백한 것은 가정에서의 포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오빠가 미울 때도 있지만 / 저는 오빠를 많이 사랑해요

초등학생 장애인 인식의 변화 특징을 분석한 결과 거부감이 4개, 관찰이 4개, 환경이 4개 그리고 포용이 8개로 40%를 차지한 것은 장애인 인식 개선의 긍정적인 변화이다.

IV. 초등학생 장애인 인식의 과제

1. 연구결과

시라는 것은 생각과 언어를 같고 다듬어서 정제시킨 가장 반듯한 보석 형태이고, 게다가 심사위원들이 가장 신중하게 낙점을 찍는 대상 작품이기 때문에 최고의 시 속에서 편견과 차별을 찾아낸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하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다듬어도 본질은 남는다. 그래서 본질 접근 방식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갖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유형을 탐색할 수는 있었다. 그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다.

가. 망설임형

장애인 친구를 만났을 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것은 본능이다. 사람



은 낯선 상황에서는 친밀함을 표현하지 못한다. 특히 장애인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낯섦이 더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장애인을 처음 대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되는데 아직 자아형성이 미숙한 초등학생들이 망설이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

나. 모범 답안형

20편의 시를 읽으며 조금 아쉬웠던 것은 우리 학생들이 무엇이 올바른 장애인 인식인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 사회에서 선과 악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듯이 우리 학생들은 장애인친구를 친구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경험을 통해 습득한 것이 아니라 교육의 효과로 머릿속에 숙지된 것이다.

그래서 거부감을 가졌다가도 모두 다가가려고 시도하는 모범 답안형이 많다. 알면서도 막상 부딪혔을 때 실천하지 않는다면 장애인 인식개선은 어려워지기에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실천을 지도해야 한다.

다. 스스로 실천형

경험에서 장애인 친구와 함께 하는 방법을 터득한 작품은 제1회 시계, 제5회 내 친구, 제7회 휠체어 친구, 제10회 망설이다, 제17회 우산 줄다리의 다섯 개 작품으로 여겨진다. 이들 작품의 특징은 아름다운 미사여구는 없지만 어떤 상황인지 장면이 그려진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이다.

이 스스로 실천형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 발로에 의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실천하는 유형이 많아져야 한다.

2. 제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 장애인을 주제로 전국 초중고학생 백일장을 20년 동안 실시해오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자라나는 학령기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올바른 장애인 인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누가 시다운 시를 지었느냐보다는 어느 학생이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

식을 갖고 그것을 제대로 잘 표현했는가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기에 백일장 대상 시 20편은 초등학생의 장애인 인식 변화를 아는데 결정적인 자료가 된다. 이 분석을 통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장애인 포용 사회를 목표로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둘째,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장애인 인식개선 범국민운동이 실시되어야 한다.

최근 장애인계의 키워드로 등장한 것은 포용(inclusive)이다. 한때는 통합(integration)을 주장하였으나 통합은 위치 변화만 시켜서 억지로 포함시킨 것이기에 함께 사는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화학적 결합으로 하나 더하기 하나가 또 다른 하나가 되는 포용이란 단어가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포용시킬 것인지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들 들어 통합 교육을 위해 일반학교에 장애학생들이 공부하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였지만 포용 교육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는 구체적인 방안은 갖고 있지 않다.

포용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 전체가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요즘처럼 바쁜 사회에 장애인을 위해 누가 그런 노력을 하겠는가? 그래서 장애인을 포용하지 않았을 때 개인적,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찾아서 국민에게 알려주면 장애인 포용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2019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부 록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소개
2.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1.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소개

○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은 장애인에 대한 정신적, 사회적 불리를 개선하고자 하는 국민운동으로 하나의 에티켓이며, 시민사회운동입니다.

이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생활 속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 선진복지공동체를 가꾸어 가자는 취지로 1996년 4월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로 출범하여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2003년 12월부터는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 연혁

- 1996. 3. 1대 홍두표 상임대표(前KBS사장) 취임
- 1996. 4. 장애인의 날 장애인먼저실천운동 선포
- 1996. 4.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 출범
- 1996. 6. 각 시·도 협의회 설립 완료
- 1998. 11. 2대 이수성 상임대표(前국무총리) 취임
- 2003. 12.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설립
- 2003. 12. 이수성 이사장(前국무총리) 취임
- 2004. 8.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 전남운동본부 설립
- 2005. 5.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 대구, 부산, 대전운동본부 설립
- 2009. 3.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 광주운동본부 설립



○ 사업 내용

[인식개선센터운영]

교육기관 및 장애인관련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긍정적인 장애인식 형성

○ 전국 초·중·고등학생 백일장(1999~)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의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와 관련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령기 때부터 올바른 장애인식을 심어 주고 장애 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 형성

○ 유아를 위한 장애인식개선 콘텐츠(2018~)

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장애이해교육 자료를 다양한 콘텐츠로 제작 및 보급하여 장애이해교육과 함께 또래 친구들과의 올바른 관계 형성을 통해 사회통합에 기여

○ 초등학생을 위한 ‘대한민국 1교시’(2005~)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장애이해교육 방송을 제작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함께 제작하여 배포함으로써 통합교육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 청소년을 위한 교육 영상물(2008~)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의 올바른 장애이해를 위하여 장애인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식개선 영상물을 제작하여 ‘장애인의 날’ 방송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배포

○ 아름다운 소통(2010~)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애인식개선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장애차별을 예방하고 장애인식개선에 기여

[사회통합지원사업]

언론 및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에 대한 올바른 용어를 발굴·보급하고, 장애인먼저실천운동과 인식개선에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함으로써 성공적인 사회통합 환경 조성에 기여

○ 모니터 사업(1997~)

대중매체 모니터를 통한 장애 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른 용어를 발굴 및 보급하고 장애관련 이슈에 대해 신속하게 모니터하고 분석하여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 및 용어 순화 캠페인 지속적 실시

- 장애관련 기획모니터
- 이달의 좋은 기사 선정 및 발표
- 올해의 좋은 방송 선정 및 발표
- 장애 차별용어 모니터 및 용어 개선
- 모니터 보고서 제작 및 배포

○ 장애인먼저실천캠페인(2000~)

탤런트 정선경, VJ 김형규, ‘용하다 용해’ 만화작가 강주배, 앵커 오수현, 탤런트 백승도, 아나운서 장웅을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캠페인 및 행사를 통해 전국민에게 장애인식개선에 관한 파급효과 극대화

○ 장애인먼저실천상 시상식(1996~)

장애인식개선 및 권익증진에 앞장 선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고 참여를 유도하여 장애인먼저실천운동을 확산시키고 긍정적인 우수사례를 널리 알려 사회통합에 기여

○ 500원의 희망선물(2005~)

전국의 장애청소년 가정 또는 시설을 대상으로 삼성화재 RC와 장애인관련기관의 추천을 통해 매월 1개소씩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의 욕구 및 자립 생활의 기반을 마련하고 표준 리모델링이 될 수 있는 매뉴얼 보급



○ 기업 및 사회단체 연계 캠페인(1996~)

장애인식개선 및 역량강화에 관심있는 기업 및 사회단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자립생활 및 역량강화

[장애인역량강화사업]

장애인의 음악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자립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사회 진출의 기회 확대

○ ‘뽕꼬 아 뽕꼬’ 캠프(2009~)

음악에 재능이 있는 장애학생과 음악멘토 및 각 분야 음악 교수진이 참여하여 장애학생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예비 음악가로 진출하는데 음악 경험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

○ ‘뽕꼬 아 뽕꼬’ 음악회(2010~)

‘뽕꼬 아 뽕꼬’ 캠프에 참가했던 장애학생과 비장애인이 오케스트라를 구성해 음악회를 개최하고 이를 지상파 및 케이블 채널 또는 라디오로 송출함으로써 장애학생의 역량강화와 비장애인의 장애인식개선의 장 마련

○ 앙상블(2015~)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연주의 기회를 제공하여 음악 능력을 향상시키고 전문 음악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옆자리를 드립니다!'](2012~)

보건복지부와 우리 운동본부가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참여형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으로 지금까지 배려 차원에서 앞자리를 양보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 발 더 나아가 나의 옆자리, 우리의 옆자리에서 함께 살아가자는 캠페인

2. 장애인먼저실천 100대 에티켓

기본적인 에티켓

1. 장애인 인권에 관심을 가집니다.
2. 장애인도 다양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3. 자기 결정권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4. '장애를 앓다'가 아닌 '장애를 갖다'가 바른 표현입니다.
5. 주춤하거나, 힐끗거리며 바라보지 않습니다.
6. 동정 어린 격려나 호기심 어린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7. 지나친 관심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8. 무조건 칭찬하는 것도 편견일 수 있습니다.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각으로 봐야합니다.
9. 장애인에 관련된 용어는 정확하게 사용합니다.
10. 장애인의 반대말은 비장애인입니다.
11. 우리나라는 장애인복지법에 장애 유형을 15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2. 장애는 유형마다, 개인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13. 장애를 갖게 된 경위는 먼저 물어보지 않습니다.
14. 비하 발언은 무의식중에 나오므로 항상 주의합니다.
15. 장애 상태를 부각하는 농담은 장애 비하로 보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16. 무조건적 도움보다 필요한 부분에 지원하며,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될까요?” 하고 먼저 물어봅니다.
17. 부모가 장애인이라고 그 자녀도 장애인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8. 장애인이 있는 가족은 장애인이 없는 가족과 다를 것이라는 편견을 갖지 않습니다.
19. 미(美)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20. 성적인 농담을 하지 않습니다.
21. 도와줄 때 신체적 접촉은 줄이고 피치 못할 신체적 접촉 시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22. 출산과 육아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23. 행사 진행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합니다.
24. 자원 활동을 할 때는 기본적인 에티켓을 숙지하고, 지시적인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25. 고용주는 모든 직원에게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해야 합니다.
26. 음식점에 갈 때는 출입구, 화장실 등의 이동 동선과 좌석 배치를 생각하여 선택합니다.
27. 무인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있으면, ‘제가 해드릴까요?’라며 물어봅니다.
28. 건물의 현관문(회전문, 여닫이문)을 이용할 때는 주변을 살피고 장애인이 있다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잡아줍니다.
29. 지하철, 저상버스의 휠체어 전용공간은 비워둡니다.
30. 휠체어 사용자가 저상버스 이용 시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재촉하지 않고 여유 있게 기다립니다.
31. 승강기 사용 시 휠체어 사용자에게 먼저 양보하며 타고 내리는 동안 열림 버튼을 눌러 안전한 이용을 돕습니다.
32. 휠체어 사용자와 대화를 나눌 때는 눈높이를 맞춥니다.
33. 휠체어 사용자와 함께 근무할 때는 적절한 근무환경을 조성합니다.
34. 길거리에서 휠체어 사용자나 목발(클러치) 사용자를 만나면, 먼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줍니다.
35.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보행자는 함께 속도를 맞춰 건너지고,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차량은 정차합니다.
36. 화재나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하였을 경우, 안전한 대피가 어려우므로 현장에 장애인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37. 복지시책이나 시설이용 등 장애인 생활 전반에 상담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장애인 차별상담전화 1577-1330, 장애인 인권침해 상담전화 1577-5364, 장애인 학대신고 및 피해자 지원 상담 1644-8295에 문의합니다.

편의시설

- 38.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물 내 편의시설이 잘 안내되어 있어야 합니다.
- 39. 장애인의 참여를 위한 의사소통 편의는 어디서든 필수적으로 제공합니다.
- 40. 장애인용 화장실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잠가두지 않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4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했을 경우 비우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합니다.
- 42. 경사로나 보행공간에 물건을 놓으면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항상 보행공간을 확보합니다.

보조기구

- 43.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보조기구는 신체와 같습니다. 목발(클러치)이나 흰 지팡이를 가져가서 다른 곳에 보관하지 않습니다.
- 44. 보행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은 쉽게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지 않도록 합니다.
- 45. 전동휠체어 뒤에 매달리거나, 사용자 위에 올라타서 함께 운행하지 않습니다.
- 46. 휠체어를 말없이 붙잡거나 기대지 말고 당사자의 동의 없이 휠체어를 밀지 않습니다.
- 47.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보폭을 맞춥니다.

장애유형별

- 48. 청각장애인은 듣는 것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으로 시각적(표정, 동작 등)으로 정보를 파악하기 때문에 비언어적 표현에 유의합니다.
- 49.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얼굴과 눈을 바라보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말하는 것이 힘들어보여도 끝까지 듣고 내용을 함부로 추측하지 않습니다.
- 50. 구화가 가능한 청각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마주보고 약간 느린 속도로 입모양을 또박또박 말하며 짧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어려울 경우에는 필담으로 대화합니다.



51. 청각장애인을 힐끗힐끗 쳐다보면서 속삭이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52. 청각장애인이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필담으로 중간중간 내용을 전해주고 대화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듭니다.
53. 청각장애인과 함께 일할 때에는, 시각적으로 알아볼 수 있도록 시범을 보이고 명확히 설명합니다.
54. 직장 동료 중 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파티션의 높이를 낮추고, 회의일정 및 주요 공유 내용은 눈에 잘 띄는 게시판에 게시합니다.
55. 청각장애인은 위급한 상황을 문자로 신고하게 되므로 문자 신고에 유의합니다.
56. 청각장애인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시간 약속을 정하고 변동사항이 있을 시 문자로 안내합니다.
57. 차량 뒷면유리에 청각장애인 알림표지가 붙어있으면 경음기를 울리는 대신 전조등을 깜빡거립니다.
58. 청각장애인을 부르거나 주의를 환기시킬 때에는 어깨나 손, 팔을 살짝 두드립니다.
59. 청각장애인과 통화를 원할 경우 수어통역센터, 통신중계서비스 등을 이용합니다.
60. 수어는 나라마다 다르며, 국어와 같이 각 지역마다 사투리도 있습니다.
61. 간단한 수어를 익힌다면 더욱 친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62. 한국수어는 국어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농인의 공용 언어이며, 점자는 한글과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사용되는 시각장애인의 문자입니다.
63. 시각장애인과 만났을 때에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악수를 합니다.
64. 시각장애인과 대화를 시작할 때는 이름을 부르거나 팔을 가볍게 건드려 줍니다.
65.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턱이나 계단이 있을 경우 미리 알려줍니다.
66. 시각장애인이 길을 물으면 전후좌우와 주변상황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67. 시각장애인이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신호등의 색깔을 알려주며 함께 건넌니다.

68. 시각장애인과 음식점에 가면 메뉴와 가격을 함께 설명하며, 음식의 위치는 시각장애인 기준에서 시계방향으로 설명합니다.
69.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물건은 가까이 놓지 말고, 그런 물건이 있다면 꼭 알립니다. 물건을 살 때 물건에 대한 위치와 용도를 설명합니다.
70. 시각장애인과 함께 있다가 자리를 비울 때는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71. 시각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물건의 위치를 함부로 바꾸지 않습니다.
72. 시각장애인이 의자에 앉을 때에는 의자 등받이에 손을 갖다 대고 확인시켜 줍니다.
73. 시각장애인에게 돈을 건네 줄 때에는 화폐단위를 설명합니다.
74.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흰 지팡이를 사용하는 손의 반대편에서 팔을 잡게 하고, 반보 앞에서 걷습니다. 흰 지팡이 없이 걸을 때는 안내자의 오른 팔을 잡을 수 있도록 한 후 반보 앞에서 인도합니다.
75. 시각장애인이 보행하고 있을 때에 흰 지팡이나 옷소매를 잡지 않습니다.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의 안전 지킴이입니다.
76.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어디든지 동반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 안내견을 만지거나 음식을 주지 않습니다.
77. 시각장애인이 대기표를 받고 기다릴 때 자기 순서를 놓칠 때가 있으니 옆에서 차례가 되었을 때 알려줍니다.
78. 시각장애인의 서명이 필요할 때 시각장애인이 손을 잡아 안내해달라고 요청하면 상황에 맞게 지원합니다.
79. 시각장애인과 문자를 주고받을 때는 초성을 많이 사용하거나 이모티콘 사용을 자제합니다.
80. 음식을 먹을 때 뇌병변장애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물어봅니다.
81. 뇌병변장애인은 불안하거나 긴장하면 경직이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합니다.
82.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과 대화할 때는 쉬운 말로 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며 천천히 말하고, 말을 끝까지 들어줍니다.
83.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애인)에게 특정 음악, 소음, 냄새, 공간 등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84.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장애인)이 연상일 경우 존칭어를 사용하며, ‘-씨’를 붙여줍니다.
85.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장장애인)이 식당에서 메뉴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 음식 사진 등으로 설명하여 먹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합니다.
86. 자폐성장장애인은 특별한 목적없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상동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복적 행동을 비난하거나 흥내 내지 않습니다.
87. 자폐성장장애인이 언어적 표현이 안 될 경우 그림, 행동 등 비언어적 의사표현에 집중합니다.
88. 자폐성장장애인은 위험한 순간의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뜨거운 물, 전기, 자동차 등 위험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언어적 주의만이 아닌 직접적인 행동으로 도움을 줍니다.
89. 다운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생김새가 비슷한 것이 특징인데 “누구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말하는 것은 실례입니다.
90. 정신장애인은 일부 활동 및 생활영역에 제한이 있을 뿐 지능이 낮은 것은 아닙니다.
91. 혈액 투석중인 신장장애인에게 갑작스럽게 힘을 주어 투석을 받는 팔목이나 복강부분을 밀치면 위험합니다.
92. 언어장애는 청각장애와는 달리 소리는 듣지만, 언어적 표현이 힘든 장애입니다.
93. 언어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이 지적능력까지 낮을 것이라는 생각은 편견입니다.
94. 언어장애가 있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기 위해서는 서두르거나 끼어들지 않고 이해가 어려울 경우 필담을 활용하여 끝까지 관심을 보이며 들어줍니다.
95. 언어장애인이 느리게 쉬어가면서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고개를 끄덕이거나 대답을 하여 경청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96. 내부기관 장애인은 식단조절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음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97. 장루·요루장애인은 복부에 힘이 들어가면 탈장 가능성이 있으니, 무거운 짐

을 들거나 오래 서 있지 않도록 합니다.

98. 호흡기장애인을 만날 때 향수나 스프레이 등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는 화학 물질사용을 자제합니다.
99. 호흡기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 천천히 걷고, 계단보다는 경사로를 이용합니다.
100. 뇌전증장애인이 경련을 일으킬 때 당황하지 말고 위험한 물건을 치우며, 경련이 지속될 경우 적극적인 구호 활동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3. 장애관련 올바른 용어 가이드라인

과거용어	비하용어	자제용어	법적용어 (올바른 용어)
	정상인	일반인	비장애인
장애자·심신장애자	애자·불구자·병신·불구	장애우	장애인
맹인	애꾸눈·외눈박이	장님·소경·봉사	시각장애인
	귀머거리		청각장애인
	말더듬이·병어리		언어장애인
	언청이		안면장애인
정신지체인·정신박약자	백치·저능아		지적장애인
지체부자유자	찐따·절름발이·얇은뱅이·불구자·곱추		지체장애인
간질장애인			뇌전증장애인

부적절한 표현	바른 표현
장애를 앓다	장애를 갖다
절름발이 ○○	불균형적인·조화롭지 못한
귀머거리 삼년·병어리 삼년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꿀 먹은 병어리	말문이 막힌·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병어리 냉가슴 앓다	가슴앓이하다·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지 못하는
병어리장갑	손모아장갑·엄지손장갑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기	일부만 알면서 전체를 알듯이·주먹구구식
눈 뜬 장님	무엇을 보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눈먼 돈	대가없이 얻은 돈·임자(주인)없는 돈
외눈박이의 시각	왜곡된 시각·편파적인 시각
외눈박이 방송	편파 방송

※ 올바른 표현은 상황에 맞는 표현을 사용

I 2019년 모니터 보고서

장애인과 4차 산업혁명

글쓴이

김철환 장애인벽허물기 활동가
김태현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정책실장
방귀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겸임교수
배현정 한경 MONEY 기자
서문원 한국뇌성마비정보센터 소장
송경재 경희대학교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교수
신재민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대리

기획위원

권택환 대구교육대학교 교수
방귀희 한국장애예술인협회 회장
백종환 에이블뉴스 대표
이정연 KBS라디오 제작센터 PD

발행일 2019년 12월

발행인 이수성 이사장

발행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서로43, 405(여의도동, 한서리버파크)

전 화 02-784-9727

팩 스 02-784-9729

홈페이지 www.wefirst.or.kr

디자인 및 인쇄 리드릭 02-2269-1919